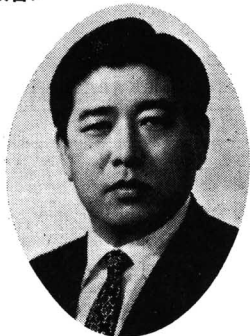


<卷頭言>



슬기와 忍耐로 民族

敬愛하는 跆拳道人 여러분 !

우리 國民은 第29週年을 맞는 光復式典에서 못하지 않은 不幸을 맞이했습니다.

大統領 令夫人 陸英修女史의 逝去는 온 民族의 슬픔일 뿐 아니라, 民族中興의 近代史에서 맞은 또 하나의 뼈아픈 試練인 것입니다.

他意에 依해 分斷된 한 民族과 한핏줄을 다시 찾자는 總力自主統一에 相峙되는 이런 非人道的인 蠻行은 世界의 政治界에 共產主義의 殘虐性을 다시 한번 내 보였음은 勿論 이 民族의 가슴속에 메울 수 없는 傷處를 주었습니다.

1950年の 저 凄絶했던 同族相殘의 悲劇以來 光復式典을 피로 물들인 이 蠻行이야말로 歷史의 審判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本人은 全國의 跆拳道人을 代表하여 삼가 故 陸英修女史의 靈前에 默念을 올리며 기필코 祖國統一을 向해 앞장서야 할 것을 盟誓하고 싶습니다.

全國의 跆拳道人 여러분 !

全世界에 뻗어나가 오늘날에 國威宣揚에 앞장 서고 있는 海外師範, 그리고 世界 跆拳道聯盟의 同志 여러분 !

이런 슬픔의 極에서도 理性을 잃지 말고 지금까지 걸어온 줄기찬 民族史創造의 앞날에 邁進해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民族은 外勢의 시달림가운데 民族의 슬기와 精氣를 잘 傳承해온 反面, 主體的 思考의 缺如, 相互의 不信과 協同精神의 薄弱等 많은 短點들로 總和團結과 進取的 氣象을 害쳐온 事例가 있었던 것도 숨길 수 없는 事實입니다.

史를 開拓하 자

世界跆拳道聯盟總裁 金 雲 龍
大韓跆拳道協會會長

이런 問題들은 1960年代부터 일기 始作한 祖國의 近代化・國力の 伸展, 그리고 새마을運動等으로 刷新되고 이제 自主, 自立, 自助精神을 이 나라의 國民精神으로 定立시켜온 것이 朴正熙大總統閣下의 功績이었던 것입니다.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跆拳道도 이 時代의 使命에 부응하여 國技로 選定되고 全國民的으로 汎世界的으로 發展해왔던 것입니다.

本人은 其間 第一回世界選手權大會를 지난해 5月 國技院에서 열었으며 이제 地域的인 第1回 아시아選手權大會를 準備해 왔읍니다.

全跆拳道人의 宿願인 이 大會創設을 爲해 國際審判講習會를 열어 審判規定을 汎世界的으로 確立시켰으며, 아시아 여러나라의 跆拳道人들과 끊임없는 接觸을 해왔읍니다.

第1回 아시아跆拳道選手權大會는 처음 創設되는 만큼 競技의 質面에서나 普及에 있어서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기 어렵다고는 하나 갖은 産苦 끝에 誕生한다는 보람과 未來創造의 발판이 된다는 意義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大會를 契機로 跆拳道世界化의 跳躍台위에 있다는 信念을 갖어야 하며, 어려운 時期에 열리는 大會이니 만큼 團結된 祖國의 모습을 아시아友邦에게 보인다는 民族의 肯持로서 每事에 臨해주시기를 全 跆拳道人에게 再當付하고 싶습니다.

國家百年大計의 時點에서 스스로 自重하고 跆拳道人 特有的 體力練磨와 精神의 修鍊을 통한 人格의 陶冶로서 어려운 時期를 승기와 忍耐로서 이겼다는 意志를 後學들에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全國의 跆拳道人 여러분!

다함께 故 陸英修女史의 冥福을 빌고 國力の 總和發展, 統一의 總和團結을 다짐하는 國技 跆拳道人의 決意를 다짐시다.

跆拳道世界스포츠化의 座標

Co-ordinate of Modern Taekwondo as a world sports.



(제일회 국제심판 강습회의 이론 교육을 받는 세계의跆拳道人들)

오늘 이 자리에는 國際跆拳道審判講習會에 參加하신 여러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우리跆拳道가 70年代에 들어와 傳統跆拳道를 世界스포츠로 發展시키기 위한 礎石을 놓고 이 基礎를 바탕으로 跆拳道競技의 現代化를 위한 作業으로, 문제를 統一시키고 競技와 審判規定을 마련했으며 國技院으로 昇段의 審査를 單一化했고 世界大會를 開催한 것은 다 이런 努力의 一端인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祖國을 代表하여 世界各國에 跆拳道를 普及시키는 使者로 활약해 오셨읍니다. 어느분은 類似 東洋武術과의 競爭으로 고충을 겪으셨고, 開拓者로서 荊棘의 길을 걸으셨는가 하면 各國의 跆拳道協會를 組織하는 데도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의 運動競技로서 跆拳道를 世界化 해가는 過程은 二千年來의 歷史의 背景을 업고 急速히 展開되어 가는 만큼 우리가 서있는 座標를 正確히 파악하고 前進한다는 責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周知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跆拳道는 간헐적으로 世界에 떨어진 나간 경험 이 있고 誤導된 跆拳道가 많이 世界化에 장애를 갖어 왔던 事實을 세삼 들을 必要는 없을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오신 李京明사범, 西獨 문헌에서 활약하시는 徐允南사범, 프랑스의 李觀永, 네델란드의 徐明洙, 그리고 美國의 姜明圭, 自由中國의 노효영씨가 여기 모여 계십니다.

感謝합니다.

오늘 이 좌담회의 취지를 充分히 이해해 주시고 계시는 여러분은 기탄없는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記錄된 高見는 集約하여 編輯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編輯室에서 論題를 提起하겠습니다.

(編輯室)

(問) 海外에서의 韓國跆拳道의 現況과 그 問題點을
조 姜明圭師範께서

〈姜明圭〉 세계에 뻗어나가고 있는 國技跆拳道에 대해서는 本 跆拳道誌에서 그때 그때 紹介해 주고 있기 때문에 대충 四五餘個國에 七百餘 以上の 韓國사범이 활약하고 있다는 程度로 말씀드리고 問題點이랄까 아니면 우리 跆拳道의 現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跆拳道는 世界 文化史의 兩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東·西洋文化圈내에서 東洋思想이 採擇하고 있는 方法論에 기인한 하나의 科學的인 스포츠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랜 白人文明 또는 物質至上主義에 의해 誤導되어 온 人間性에 대한 회의는 급기야 東洋思想에 눈을 뜨리게 되었습니다. 좀 어려운 얘



(姜明圭 師範)

기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特別 韓國思想이 中國의 방대하고 豪快한 바탕, 日本의 輕麗한 文化에 대해서 하나의 調和를 모은 精髓라고 봅니다. 即 하나의 集約이요, 完成品이지요.

一例로 東洋에는 수많은 석가모니 像이 있지만 外國人들도 서글람을 가장 完成된 世界的 次元의 藝術로 인정을 해요. 金雲龍會長任도 十二號紙 卷頭言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跆拳道도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하나의 호신술로서 또 生活의 여유에서 오는 自己肉體의 保存에 대한 本能에서 跆拳道가 人氣를 끌고 있다고 評價하지만, 저는 人類歷史의 한 過程으로서 우리 韓國의 文化的 遺産이 꽃을 피울 段階가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問題點이라 한다면 우리文化와 跆拳道歷史가 西洋樣式으로 體系化되지 않은, 아마래할하면 現代로서는 文明의 利器(科學)로서 反證받지 못한 狀態의 跆拳道를 좀 더 科學化하고 體系化한다는 問題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모든 文化의 진파는 無意識의인 狀態에서 好奇心으로 또 群衆心理에 의해서 流行을 이루기도 하지만 이런 科學的인 뒷받침과 確信을 갖지 않고는 土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世界各國에 나가있는 跆拳道人이 우리文化의 世界化요, 또 人類文化에 있어서 人間性의 회복이라는 次元으로까지 끌어 올린다는 自覺이 必要한 때가 되었

다고 봅니다.

(問) 姜先生의 말씀을 들으니 모든 現代運動競技가 점차 機械的인 패턴을 形成하고 있고 選手들은 그 부속품화해가는 느낌을 새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來韓했던 리베네스 A.A.U. 會長이 眞正 跆拳道에 심취하고 있는 背景도 깨닫게 되어지며 우리 民族이 雄飛해야 할 하나의 길이 提示된 것 같습니다.

大韓跆拳道協會로서는 跆拳道世界스포츠와 함께 內實과 實質向上이라는 口號를 내세워 왔습니다. 이에 關聯해서 李京明사범께서—

〈李京明〉 저는 이 問題에 대해서 가장 經濟的인 결국 中庸을 取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大韓跆拳道協會가 國技院을 建立하고 昇段審査를 單一化하며 競技規定을 만들고 또 跆拳道雜誌를 發刊하는 일들이 一見 各各分離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一定時點에 이르러 모든 分野에서 이 成果들이 集積된다면 크나큰 힘을 發揮할 수 있다고 봅니다.

特別 實質向上에 대한 問題는 跆拳道의 特性과 結付시켜보면 解結이 되리라고 봅니다. 跆拳道는 肉體에 無理가 가지 않을 뿐 아니라 健康의 增進에 있어서 男女老少가 다 함께 場所와 時間을 不問하고 修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말은 곧 全 跆拳道人이 各個의 能力과 特性에 알맞게 끊임없이 精進할 수 있다는 說明이 된다고 믿습니다.

西歐人들은 가끔 初段이 벼룩한장을 깨면 六段은 여섯장을 擊破해야 된다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四段 以上の 國技院 審査는 論文試驗을 수반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高段者가 어떤 實質을 함양해야 한다는 말과 一致합니다. 跆拳道誌에 그들의 研究와 意見을 싣고 또 이것을 발판으로 좋은 意見을 肯定的으로 덧붙여 간다면 서서히 그리고 確固하게 跆拳道世界는 發展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이 意見들이 모이면 우리는 宗主國답게 跆拳道大學의 建立이 名實 共に 세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歷史의 發展이 바탕으로부터 쌓여져가는 것이 合理的이겠지만 우리는 그런 意味에서 上下의 一致를 부르짖는 것이며 中道の인— 가장 經濟的인 努力으로 跆拳道世界化를 期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問) 李京明師範의 意見은 그 背面을 깊이 생각해볼 必要가 있다고 믿습니다. 跆拳道人이 이 時點에서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上下가 一致되어 어떤 方向으로 自我形成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點을 앞으로 雜誌마다 계속 討論해 나가겠습니다. 徐明洙사범께

서 外國에 跆拳道를 土着시키는 問題點을 좀!

〈徐明洙〉 저는 跆拳道가 이미 紹介되어 있는 곳과 새로운 開拓地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宗主國에서 跆拳道가 體系化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다고 봅니다.

마치 海外사범은 심장이 되는 宗主國으로부터 피를 받아들어 細部에 끌고 들어가는 役割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沈世界的으로 전파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跆拳道는 發展速度에 비견한 혼신도 無視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때에 無定見한 자세로서의 出發이나 또는 주재국의 變化된 環境에 接하게 된다면 그 후 유증은 막을 길이 없다고 봅니다.



(좌단부터) 徐明洙, 徐允南, 李京明, 李永年 先生

強한 試練에 견딜 수 있는 풍부한 精神의素養과 肉體의인 段練이 要求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그 나라의 言語와 歷史 그리고 現況에 대해서 充分한 豫備教育이 주어져야 하며 아울러 우리의 歷史와 跆拳道를 가르칠 體系의인 目標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重要하다고 봅니다.

具體의인 目標은 좋은 結果를 얻는 지름길이며 우리의 跆拳道를 올바른 精神아래 전파시킬 수 있는 길이 라고 믿는 것입니다.

國技院의 指導者教育과 또 배출된 지도자들이 다시 모이는 보수교육등은 合理的인 制度이며, 海外파견선 발사시험 등이 嚴重하게 시행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의 시행과정에서 좀 더 期間 그리고 具體의인 主體科目이 提示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會員 相互間의 書信交換, 技術交流등이 좀 더 廣域의으로 또 實質의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問) 感謝합니다. 그러면 在外國 사범 여러분들이

좀 더 긴밀한 關係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얘기하고 世界化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李觀永 사범께서 좀

〈李觀永〉 이 問題에 대해서 二元的으로 말씀드리다 먼 먼저 宗主國跆拳道와 關係를 맺고 또 海外사범끼리 情報를 交換한다는 方法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大韓跆拳道協會가 發行하는 跆拳道誌는 跆拳道 世界化에 많은 紙面을 割愛해 주고 있고 또 宗主國의 消息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雜誌가 英文으로 나오지 못하고 또 季刊이라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이 잡지에 모든 의견을 보내고 이 의견이 發刊되어 곧 世界化되는 과정을 밟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海外의 우리 會員들은 각자가 跆拳道의 使者라는 使命感外에도 新聞社에서 채택하고 있는 특파원이나 또는 모니터 (通信員)의 制度를 모방해서 資格이나 證明書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봅니다.

萬一 이렇게 되면 跆拳道의 明實相付한 世界化에 기여하는 것이며 바람직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또 海外會員들끼리 現地에서 간단한 會報를 打字機로 印刷하여 돌려볼 수 있는 連絡網을 갖추는 것이 좋겠으며 이것은 어렵더라도 먼저 始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徐明洙사범이 네덜란드에서 이러한 冊을 발간한 것을 보고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東아시아나 美洲等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만 유럽에서는 行事가 있을 때마다 서로 만나서 돕고 있습니다. 어떤때는 밤새도록 汽車를 타고 가는 때도 있습니다.

(問) 지금까지 뚜렷한 結論에 到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깊이 생각할 問題點들이 많이 提示되었다고 보며 이 問題點의 解答는 讀者여러분의 할 일ियो 스스로 解答를 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跆拳道世界化라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方法에 대한 注意를 드리고 싶습니다.

宗主國을 찾은 跆拳道人들은 異口同聲으로 跆拳道를 알게된 동기가 示範競技를 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各地域別 中心이라든지 또는 宗主國에서 世界巡廻示範團을 파견하는 것은 어쩔지요.

〈徐允南〉 그 問題는 일단 수공은 잡니다. 그러나 새로 開拓하는 나라에서는 이것이 效果의이라고 생각되지만 이제는 示範이 아니라 시험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럽의 경우는 「跆拳道競技」가 벌어지면 많은 觀客이 모이며 또 反應이 좋습니다.

示範은 競技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協會에서도 計劃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宗主國 選手들의 遠征競技가 時期的으로 무르익었다고 봅니다.

遠征選手團이 結實을 맺는다면 大規模의 本格的인 宗主國跆拳道를 수련생과 그리고 一般人에게 까지 깊은 認識을 줄 뿐만 아니라, 跆拳道의 競技規定과 世界跆拳道聯盟을 紹介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李觀永사범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럽에서는 이미 交換 競技를 갖고 있고 國家對抗戰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機會에 한국의 跆拳道가 本格的으로 紹介되는 意味가 있다고 보며 國際審判講習會를 通한 跆拳道世界化 물결의 肯定的이고 좀 進取的인 方向이 아닌가 합니다.

(問) 徐允南先生の 좋은 意見은 協會의 임원진에서 신중히 고려되리라 봅니다. 山積한 現實의 業務와 未來에 對한 企劃은 綜合的으로 分析되어 現實性의 原理를 갖추어 施行되리라 봅니다. 여기서 學論되고 있는 問題들을 整理하는 意味에서 海外 跆拳道 協會의 展望에 대해서 노효영 사법께서 좀—

(노효영) 지금까지 좋은 말씀이 많았고 듣고 있는 가운데 감회가 깊습니다. 이제 國際審判講習會까지 마치고 보니 새롭게 理解되는 점이 많습니다.

저는 特別 個人的인 意見이라는 註를 달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海外에서 맘뉘려 오신 여러 同志들은 처음엔 跆拳道의 使者요 다음엔 指導者이며, 그리고 그곳의 首席 사범으로서 또 임시로 協會를 이끌어 왔습니다.

粉粉히 일어나고 있는 各國의 跆拳道自立에 關한 論爭은 언젠가는 跆拳道의 土着과 함께 汎世界化라는 問題를 풀고 올 것은 當然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宗主國 跆拳道로서는 우리 文化를 發掘하고 알린다는 것을 能事로 삼기 以前에 뼈를 깎는 努力이

있어야 된다고 보며 또 누차 지적된 바와 같이 大同團 結하여 韓國跆拳道라는 塔에 頂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前提아래서 各國은 跆拳道協會를 結成하여 現代스포츠로서 國家의 뒷받침 아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아직 開拓時期라는 現實把握에 지나친 낙관도 禁物이라고 봅니다.



이 過程에서 바르게 그리고 곧게 우리의 精神이 팔리내리도록 선구자적인 노력에 결함 없이 하겠읍니다.

우리는 그들이 自立할 수 있도록 돕고 어느 스포츠든 現代

(노 효 영 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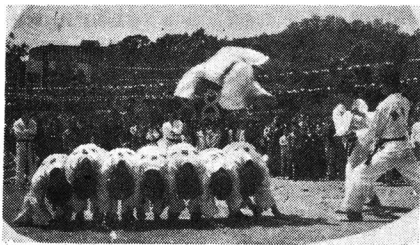
化되는 過程에서 그랬던 것과 같이 競技人口의 增加, 그리고 同好人의 結成, 國家單位體育會에 協會인가신청과 협회구성 등을 善導해야 하리라 봅니다.

어느 國家이든 2년정도의 豫備期間동안을 두고 관찰해 보는 것이 통례로 알고 있으나 跆拳道는 오래 알려져 왔기 때문에 특별히 받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대부분 內務省이나 文教省에서 관장하는 體育에 우리는 現代競技요 또 純粹體育精神 아래서 태권도를 인식시키고 보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跆拳道가 갖고 있는 現實과 未來의 方向設立 등의 기반없는 말씀들을 듣고 느끼는 바가 많으며 앞으로 우리 跆拳道 世界運動競技의 廣場에 당당히 나아갈 날을 기다려 집니다.

一國際 審判講習會를 마치고 나서 돌아가는 在外國 師範을 통해본 이런 特輯 座談會의 問題點들은 하나하나 改善 調定 實踐되리라 보며 이로서 우리는 다음 段階의 發展을 向해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

비록 그것이 모세가 건너간 시나이半島의 사막이라 할지라도—





審判規則의 통일과 보급

審判分科委員長 李 敎 允

金 雲龍會長の 強力한 指導力과 도부에 의해 지난해 世界跆拳道選手權大會가 열렸던 같은 달 같은 場所에서 올해에는 國際跆拳道審判講習會가 열리게 되었다. 跆拳道世界스프츠화의 刻心이 될 이번 審判教育은 世界共通의 審判規定을 教育시킴으로서 汎世界的으로 變여가는 跆拳道發展의 礎石을 이룩하는 데 있었다.

再言할 必要도 없이 跆拳道競技가 成立되고 普及되는 根幹을 이루는 것이 審判規定이요 競技規定이다. 아무튼 좋은 思想이라 할지라도 體系化되어야 哲學的 生命을 얻듯이, 아무리 優秀한 武道라 할지라도 그것을 合理的으로 겨룰 수 있는 方法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獨善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優秀한 審判의 確保와 完壁한 規定을 만든다는 것은 跆拳道競技의 內實과 發展에 直結되는 二大要素(競技力自體와 함께) 中의 하나라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이를 換言하면 좋은 「規定」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跆拳道의 特性과 跆拳道가 發揮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수 집되어야 하며 수집된 事例들은 科學的인 檢討를 거쳐서 그 시기의 段階가 決定되고 그리고 나면 自然모기와 得點順位の 우열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作業으로 現在까지 만들어진 것이 이번의 審判規定이며 이런 經路로 選手들은 修練해 오고 있고 또 觀衆들과 競技를 즐기게 된 것이며 時間이 흐름수록 좋은 案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또한까지 無視할 수 없는 것은 審判員으로서 어떤 意味에서는 좋은 競技의 創造者라고 까지 부를 수 있을 것이다. 跆拳道를 오래 修練한 사람은 젊음의 힘(Power)과 闘志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하나 하나의 競技觀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競技觀과 함께 中道的인 立場에서 편견을 갖지 않은 審判員의 자제가 또한 重要な 것이다.

跆拳道의 精神 아래는 國籍도 없고 貧富의 差도 없으며 다만 高度의 技術과 精神力에 基因하는 스포츠精神이 있을 따름인 것이다.

이번의 國際審判講習會는 美國의 姜明圭 에드워드·셀중 九國에서 46명이 參加한 가운데 五月 十五일부터 三日間 열렸다.

主審 一名과 副審 四名으로 五人組로 편성되어 教育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수강생들에게 指導者教育과 같이 番號를 부여하는 方法이 效果의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리고 것지 페이지에 得點과 注意 點점 등을 色으로 表示하여 印刷한다면 좀 더 能率적인 心算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 강습생에게 배부될 教材와 資料를 미리 계획하여 그림, 圖解, 色採로 시각이 明確하게 하는 것이 效果의 일 이며 幻燈을 使用하여 그 묘에 서서 說明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幻燈은 停止된 狀態이기 때문에 피교육자에게 「競技의 리듬感」을 감지시킬 餘地가 없지않다. 앞으로 映畵와 「스프·비데오」를 使用하는 方法도 外國人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技術的인 問題에 對해서 한가지 私見을 말한 다면 「得點信號」과 「得點信號」에 對한 것이다.

審判服은 競技者가 입는 道服의 白色과 호주의 「빨」「紅」色을 피해야 하며 觀衆들에게 競技者의 활약을 돋보일 수 있는 配色이어야 하고 競技者에게 자극을 주거나 區別이 어려울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 要件이다. 아울러 가장 能率적이며 또 傳統의인 디자인이면 더욱 좋겠다.

또 「得點信號」에 對한 것은 경기의 보급과정에 서서나 完成단계에서도 要求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點점이나 주의는 선언하고 게임을 中斷시키면서 막상 得點은 觀衆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나 주심이 이 경우에 게임을 中斷하거나 또는 信號를 위해 경기의 흐름을 中斷한다는 問題도 없지 않다. 이 때는 手信號를 副審에게 보내고 副審은(例, 前左는 靑팀, 前右는 紅팀으로서)일어서서 得點信號를 傳達하는 方案 등이다.

Leo Wagner, Vice-President of W.T.F. Visit Korea

世界跆拳道聯盟副總裁 레오·바그너씨 來韓 金雲龍 總裁와 跆拳道 世界化論議

7月 29日!

世界跆拳道聯盟副總裁인 레오·바그너씨가 金雲龍世界跆拳道聯盟總裁와 金明會 副總裁의 案內를 받고 國技院을 訪問했다.

國技院院長室에서 있는 記者會見에서 『이번으로 다섯번째 韓國을 訪問하면서 韓國發展像을 유의깊게 관찰하며 깊은 印象을 받는다』고

前提하고 『本人이 副總裁로 있는 世界跆拳道聯盟에 대해서 地域의인 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유럽을 中心으로 한 하나의 單位體를 갖추는 것이 所望이라』는 意 見을 표 達했다.

1962년부터 傳來되어 지난해의 世界大會로 跆拳道普及發展에 一大轉機를 마련한 西獨의 跆拳道界는 現在協會에 登錄인 人口만 1萬5千을 헤아리고 있고 그 밖의 跆拳道愛好家나 修練者는 正確히 推算할 수 없다고 밝혔다.

跆拳道運動이 점차 보급되어 協會의 機構가 커감에 따라 西獨體育會內의 유도協會산하에 있던 跆拳道가 하나의 獨立團體로서 昇格될 豫定이며 이로인해서 西獨의 跆拳道는 획기적인 發展을 이룰 기틀을 갖추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與件에 대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指導者問題를 들고나온 「바그너」副總裁는 宗主國韓國에서 좀 더 많은 師範들을 聘請해줄 것을 要請했으며 金雲龍總裁는 具體的인 問題를 討議해서 곧 實行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跆拳도의 世界化에 대한 方案을 묻는 이 석형 記者



의 質問에 對해 『跆拳道 人口의 底邊擴大, 올바른 跆拳道의 認識, 跆拳道, 競技規則을 광범위하게 알려 世界人에게 깊이 뿌리내리게 하 이 組織을 바탕으로 올림픽 加入問題를 學論하고 올림픽 廣場으로 나아가도록 節次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意味에서 유럽各國의 跆拳道가 빈번한 交

流競技를 갖고 世界跆拳道의 宗主國과 끊임없는 유대를 맺음으로서 유럽의 跆拳道世界가 秩序와 體系를 갖추고 이런 多元的인 跆拳道發展計劃이 世界스포츠化의 一部가 되리라고 確信한다면서 바그너씨는 韓國跆拳道의 發展에 있는 誠意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西獨의 基民黨院內總務이며 下院議院이기도 한 바그너 副總裁는 水泳과 테니스도 즐기는 스포츠愛好家이며 今年 54歲.

記者會見이 끝난뒤 南大門國民學校 어린이들이 펼쳐는 품세 겨루기 적과 등의 모기에 아낌없는 贊辭를 보내면서 계속 金雲龍 總裁와 跆拳道 世界化에 대한 具體案을 討議했다.

國技院院長室에서의 會談을 마치고 金雲龍 世界跆拳道聯盟總裁는 레오바그너 副總裁에게 名譽段證書를 수여하고 뒤이어 公로패를 傳達했다.

發展하는 跆拳道에 자부를 느끼고 8月4日 空路 出國하는 레오, 바그너 副總裁는 來年 世界大會에 다시 韓國을 訪問할 豫定으로 있다.

技術審議會全体會議開催

第一回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계획안 검토 위해

The Masterplan of the 1st Asian T.K.D. Championships discussed at
the Committee of Technical Councils

跆拳道宗主國으로서 跆拳道國威宣揚에 앞장서 온 大韓跆拳道協會는 十月 十八日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제1회 계획안을 작성, 기술심의회 전체회의에 회부하여 大會를 無理없이 치를 수 있는 반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1973. 5. 25 제-1회 世界跆拳道選手權大會, 1973. 5. 28 世界跆拳道聯盟의 創立, 1974. 5. 15 제-1회 국제심판강습회를 마친 大韓跆拳道協會가 새로이 創設한 이大會는 宗主國跆拳道 世界化의 歷史的 轉機를 이룩한다는 점에서 또 唯我獨善의 이고 自慢에 빠진 跆拳道가 아니라 스스로의 할 일을 찾고 背定의인 자세와 創意的인 協同心으로 能動的인 調和를 이룬 一大의 作品을 만들어 보겠다는 意味에서나 跆拳道의 อนาคต을 저울질 할 수 있는 試金石이 될 것이다.

힘을 갖춘 磁石은 金屬을 끌어들이기 마련인 것처럼 內實과 實質을 갖춘 跆拳道는 마침내 世界人의 觀心을 끌어들이 수 있다는 眞理의 對位法을 想起해 보면서.....(編輯室 註)

金雲龍 會長이 登壇한 3時正刻 體育會 第一會議室에서 아시아跆拳道選手權大會 開催計劃案은 검토되었다.

姜元植 事務次長이 計劃案 報告 形式을 取한 이會議는 아시아大會 創設의 趣旨을 「나날이 發展하는 跆拳道의 技術向上, 올바른 跆拳道 精神을 불어넣어 世界跆拳道의 秩序와 體係를 확고히 하고 跆拳道人口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各국간의 友好증진과 世界文化發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대한 태권협회와 世界跆拳道聯盟의 公同主催로 열리



(姜元植 事務次長의 계획안 提案)

는 本大會는 十月十八일부터 二十日까지 三日間 국기원에서 열리며 文教部, 文化公報部의 關係部處, 대한체육회의 후원等 各국적인 關心아래 열리게 되어있다.

행사일정은 10월 17일 대표자회의와 일·폐회식 등의연습, 18일 오전 10시부터는 參加選手의 計體 오후 2시 개최식 그리고 연무시범에 이어 경기가 있으며 10월 20일 오후 3시 경기를 모두 끝내고 오후 4시에 폐회식과 시상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油印物과 圖表로 作成된 提案說明에서 姜元植 委員은 時間的인 配列과 各 部署別로 橫的인 계획을 짜서 일일 行政的인 계획이 물론 을 수 있는 各部署間의 不協和音을 最少限 하고 모두가 스스로 할 일, 또 協助, 補完해야 할 일들을 자세히 지적해 냈다.

報告가 끝난후 質疑 응답에서 金雲龍會長은 이번 試合은 『跆拳道宗主國으로서 하나의 始發이며 이 聖典에 임하는 자부심에 앞서서 겸허한 자세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跆拳道의 哲學, 精神 未來觀을 確實히 展望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전제하고 이번의 아시아大會에서 여러분이 自立, 自足으로 跆拳道世界化의 里程을 完遂한다는 意志를 당부하면서 계획안을 滿場一致로 지지하면서 幕을 내렸다.

특히 이번의大會에는「記念우표 發行」,「記念, 葉書發行」과 함께 世界跆拳道의 象徵이 된 國技院을 主題로 한 그림葉書發行 등이 愛好家의 口味를 당기고 있고 例年에 비해 일찍부터 아시아 태권도 選手權大會의 입장권에 매가 始作되며 대대적인 宣傳과 그간 비약적으로 發展된 競技가 滿都의 愛好家들을 熱狂시킬 것이 틀림 없다.



(계획안을 검토하고 계신 金雲龍 회장)

이번의 대회는 자유중국을 비롯,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日本,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크메르, 괌島까지 多大數의 國家가 參加 분위기를 더 할 예정이며 이들은 모두 호텔 라이온즈에 여자를 풀 예정이다.

다음은 本會議에서 추대된 제-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임원 명단이다.

제 1 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 임원명단

명 예 대 회 장 김 종 필 (국무총리)

대 회 장 김 운 용 (대한태권도협회회장겸 세계태권도연맹총재)

대 회 부 회 장 정 인 영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박 무 승 (")

박 보 회 (")

참 여(무순) 박태선 이대순 원경수 한상국 노병직

본부임원(무순) 이재설 김홍태 이민하 윤석현 박용곤 자익용 김봉균 한기옥

최순길 한봉수 조석래 김명희 최각규 김영일 엄운규 이종우

홍종수 박건석 장재식 박효종 호종일 김태호 황철복 김진정

Dr. Roland De Marco Dr. Leo Wagner Mr. John M. Murphy

Mr. Marx Heinz Mr. Manuel Mondragon Y. Kalb

Gen. Ungku Nazaruddin Gen. Weikuo Chiang Mr. J.A.A. Etima

Mr. L. Lascoste Mr. Cihat Uskan Mr. Tang Chee Yuen

집 행 위 원 장 이남석

부 위 원 장 배영기 이병로

집 행 부 임 원 이계광 전 철 홍정표 현우영 백준기 김봉식 노효영

총 무 부 부 장 강원식

선 전 부 " 김선구

영 접 부 " 고재천

경 비 부 " 이용우

진 행 부 " 박해만

기 록 부 " 김순배

수 송 부 부 장 이영섭

경 기 부 " 김인석

심 판 부 " 이교윤

시 설 부 " 현종명

의 무 부 " 김용서



市道支部 및 加盟團體 二次 實務者會議

지난 2월 16일 처음으로 본協會가主催한 시도지부, 자연맹, 각관 실무자회의 두번째 회의가
6월 7일(金) 오후 2시 국기원에서 열렸다. 國技 跆拳道의 汎國民的인 보급과 인식 刷
新에 多大한 役割을 하는 本會議는 全國의 實務者級代表者들이 한 자리에 모
여 嚴雲奎 사무총장의 주제아래 시증 熱된 意見 交換과 진지한 토의
를 벌였다.....(編輯室註)

소년스포츠포럼이 끝나면서 이루어진 本會議는 6
월 7일 오후 2시에 제주도대표를 비롯한 9市道支部, 國
民學校연맹을 비롯한 3개 연맹과 9개 관대표자등 21명이
참가한 가운데 엄윤규 사무총장의 주재로 幕을 올렸다
먼저 中央協會가 지시하는 事項에 대해서 강원식
사무차장의 說明이 있고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첫째로 지인 및 계인등록 비치에 관한 것은 지난번 회
의때에도 지시된 바 있는데 미제출처는 6월 30일까지
필히 제출토록 하는 것이며

둘째로 각종행사 실시 보고에 대한 것은 행사 개시
15일 전에 사전승인을 득해야하며 실시 종료후에는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하는 행정상의 절차에 대해
철저히 이를 지켜 주기를 당부했다.

특히 현대 스포츠가 날로 科學의 뒷받침을 받고 急
進的으로 發展해가는 데 대해 前進하는 태권도계의 行

政統一化는 바람직한 것이며 또 每行事의 科學的인 記
錄과 報告는 歷史的인 記錄으로서 뿐만 아니라 來日의
發展을 위한 기록과 反省의 資料가 된다는 점도 감안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상벌에 관한 면은 本協會가 제정해놓고 있는
기술심의회 규정에 의거, 상벌요청서 및 공적조서와
이를 증빙할 자료를 첨부하여 타당성과 객관성을 유지
하여 跆拳道精神의 確立에 차질을 招來하지 않도록 해
야 할 것이다.

다음 선수등록에 대한 문제에 대해 엄윤규 사무총장
은 자세히 대태회 제50호와 연맹과 협회의 행정관제에
대해 說明했다.

『시도지부 자 산하의 國民學校, 中·高等學校 그리고
대학연맹의 선수등록은 해당 시도지부에 선수등록 신청
서 (학생부 4통, 일반부 3통)를 접수하면 자동적으로

신정되며 협회는 학교연맹에 —통을 전달함으로써 完結된다.』 이어서 『협회가 국기태권도를 명실상부한 汎國民의 운동으로 보편화 시키는 마당에서 昨年 各급 학교 연맹을 創設한 것도 오히려 늦은 感이 없지 않으며 各급학교 연맹은 一線에서 더욱 활발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급에 임해야 하며 협회와 유기적인 關係를 맺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 했다. 그리고 『자 연맹의 창설이 아직 초창기이므로 創設에 따른 어려움을 充分히 이해하고 상호 협조하여 이번 회의록을 계기로 이제 창설의 단계에서 비약의 단계를 기약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 다섯번째로 매년 2회 1월 1일과 7월 1일 보고토록 되어있는 운영상황을 이번에는 15일까지 보고하라는 지시사항에 이어 이날 가자 의의 있었던 심판원의 확보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이 안건은 실질적으로 競技 跆拳道가 行政의인 問題뿐만 아니라 技術의인 向上과 새로이 制定된 경기규정에 의해 統合된다는 多大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이 안건에 대해서 부산과 경남·충남은 이미 심판교육과 지도자교육들을 통해 교육을 마친 심판원이 확보되었으나 다른 시도지부는 아직 이를 確保되 못하고 있으므로 급면 가을 제55회 전국 체육대회때부터 예정하고 있는 전국의 심판원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方案을 만들자는 계획이래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엄윤규 사무총장은 시도지부의 심판원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지방심판교육을 시행하고 또는 中央의 심판교육에 이들이 참여하여 국제 심판강습회와 함께 중주국 태권도의 내실화를 강조하면서 기필코 이 사업을 이룩하는 데 차질이 없기를 거듭 당부했다.

三十名 以上の 單位로 요청할 때 中央協會는 지체없이 이에 應해 줄 수 있는지를 물어 온 전남대표 「김만석」전무이사와의 질의에 대해서도 엄윤규 사무총장은「협

회는 강사를 파견함은 물론 이에 대한 구체적, 질의를 공문을 통해 해주면 언제든지 이에 대처할 것」이라고 對答했다.

이에 대해서는 부산·경남·충남을 제외한 지부에서 잇따라 질의를 벌이고 今年의 全國體育大會부터는 프로그램에 對陣表를 定式으로 삽입하는 안건에 대하여 금년부터는 定式으로 프로그램에 대진표를 게재하기로 결정을 보았으며 이제 全國이 一致團結하여 全國을 跆拳道권으로 합은 勿論 보다 활발히 범국민적인 태권도 士着과 實質向上을 꾀하자는 團合을 새로이 했다.



(질의에 답변하는 엄윤규 사무총장)

그리고 승단심사비와 昇段伸請에 대해서도 규정된 심사비를 입수할 것과 심사규정에 의거한 年限관계를 철저히 지켜주기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 시도지부는 行政力의 強化와 全國跆拳道人의 단결로서 보다 나은 跆拳道의 歷史를 이룩해가자고 다짐했다.

三時間에 걸친 全國跆拳道代表者들의 지진한 대화는 總和를 다시한번 다짐하는 계기를 갖어왔으며 이 자리에서 金雲龍會長님이 4/3分期 補助金 六拾五萬圓을 各支部에 傳達하여 一線 指導者들의 士氣를 한껏 북돋았다.

보내 주신 原稿는 最善을 다해 실겠습니다 !

부디 發展하는 跆拳道를 위해 投稿하여 주십시오.

一 種目. 7. 理論部門(跆拳道의 發展을 期할 수 있는 內容) 競技記事, 跆拳道消息.

2. 隨筆, 詩, 修練記, 만화, 寫眞

一 方法. 200字 원고지 13枚單位로 26枚, 39枚等

一 보내실 곳. 서울特別市 中區 무교동 19번지 대한태권도협회 편집실 귀하.

第十期指導者教育

The 10th Instructor Training Course



〈十期指導者教育의 필기시험광경〉

10期째를 맞이하는 指導者 教育이 6年 24일부터 1週日間 國技院에서 열렸다.

1972年 4月 4日 跆拳道의 本格的인 實質向上을 目的으로 第1期指導者教育이 열린 以來 世界태권도의 本山을 이루고 있는 國技院을 거쳐한 跆拳道底邊擴大의 役軍이 되고 있는 指導者가 1,500名을 넘게 되었다.

國民學校의 교과과정에 正式으로 태권도가 채택되고 全國의 國民學校 어린이들이 태권도를 수련하게 됨에 따른 指導者의 絶對的인 不足이 急한 問題로 대두되게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跆拳道가 世界的인 스포츠로 발돋움하게 됨에 따라 底邊擴大를 위한 內實化와 아울러 風俗과 言語를 달리하는 異國에 한국의 얼을 심을 素養을 고루 갖추게 한다는 것도 급선무로 대두되게 되었다.

國技院의 建立以後에 이곳으로 자리를 옮긴 指導者 教育은 뜻깊은 10期를 세우게 되었으니, 이는 앞으로 跆拳道大學의 基礎가 된다고 볼 때, 강사진과 교육자

들이 짧은 期間이라 할지라도 最善을 다해 前進과 創造를 期約해야만 할 것이다.

첫날인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기술심의회 의장 이남석씨의 태권도에 의규범으로 부터 指導者교육은 시작되어 초빙강사인 유봉호씨의 時事問題에 對한 교양강좌로 오전 수업이 끝났다.

박해만씨는 오후 1시부터 100분간 용어해설을 강의하고 계속해서 4~5교시에 걸쳐 基本動作을 강의했다.

이튿날인 6월 25일엔 本協會 事務總長 嚴雲奎강사가 「협회현황」에 대해서 協會의 歷史, 協會가 하는 일, 그리고 協會의 계획등을 자세히 說明했다. 이어서 조중원강사는 「교육원리」 그리고 김인석씨의 「경기규정」 박해만, 이영섭 강사의 「품세」가 계속 되었다.

6월 26일의 태권도사(강사, 이종우) 체육원리(김지학)와 품세에 이어 27일에는 유근석씨의 「跆拳道人의 實質」에 대해서 그리고 이교윤씨의 심판규정과 심판실기 등으로 계속되었다.

6월 28일에는 태권도사, 응급처치(강사 김용서) 품세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6월 29일에는 김순배씨와 박해만씨의 감독아래 품세시험이 이루어졌다.

오후에는 一週間 습득한 학과시험이 있었는데, 경기규정으로서의 不戰勝 산출방법, 급강막기 해쳐막기 등의 기본자세와, 협회의 업무등 이른바 행정적인 면이 있었다. 오후 2시정자 金雲龍會長이 入場한 가운데 修了式이 거행되었다.

김운용회장은 김규 수련생에게 修了證을 강창근 수련생에게 자격증을 수여하고 나서, 「이번의 지도자교육이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여건하에서 시행하였으나 성실히 수업에 임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다」고 前提하면서 「우리가 조직을 정비하고 태권도現代競技化의 모든 규정을 제제화시켰으며 국기로서의 中央道場을 짓고 世界로 뻗어가는 시점에서 거듭 여러분의 노력이 礎石이 되어줄 것을 당부한다」고 격

려했다.

10기지도자교육 수료생 일동은 책상보를 기념품으로 국기원에 증정했다.



(박해만강사의 지도로 이루어진 품세교실)

다음은 10期 指導者者教育을 受講한 榮光의 얼굴들이다.

김영웅	조규일	조재휴	김진하	선상규	윤석태	최갑술	송복근	정진영	김영일
김홍호	김완희	안영기	유형완	이황구	황지성	이주현	원일명	박현주	김호주
서용출	윤성희	김동섭	박경준	홍원익	김영진	김연경	이 성	강신영	김종한
박제강	장승철	이기운	이용주	박상철	이운세	강익진	이승구	김종길	이완영
최재홍	이길재	신인철	갈진남	김봉기	김병민	이홍석	김 규	김두하	김운석
김용훈	타인창	김창수	김기정	김광배	장석기	박처보	최경안	박종명	박태선
김태원	박원우	엄홍섭	강희창	김명근	김선국	최상호	이석봉	이정우	홍낙원
김대식	송영길	이현권	이완기	이영철	김홍규	한인수	이준호	윤창석	조성찬
이용복	조용철	권경옥	임두원	박해봉	박성찬	김수일	김종태	장인규	권문경
윤학덕	김창수	이충구	최대영	문성기	신영익	김종원	김상섭	윤창국	백승호
황인섭	문유곤	강동기	김인규	조상현	강성민	김춘택			

For the subscribers on abroad each foreign countries, please send us your application according to the following information as below.

Korea TaeKwonDo Association, 19 Mu Kyo Dong Chung Ku, Seoul, Korea

(one copy: 70¢)

postages	for one copy	one year term	
1 Block	(\$ U.S.) 0.80	(\$ U.S.) 3.20	China, Hong Kong, Macao, Ryukyu. Japan.
2 "	(") 1.0	(") 4.00	Alaska, Burma, Cambodia, Guam, Laos, Malaysia. Vietnam, Philippnes. Midway, Singapore, Thailand
3 "	(") 1.50	(") 6.00	Near East Asia, Pakistan, India(except the areas included in 1st, 2nd and 4th zone) Canada, Hawaii. Australia.
4 "	(") 1.80	(") 7.20	Europe, Central America, South America, West Indias, Middle East Iran, Iraq, etc.

大統領下賜旗爭奪

第9回 全國團體對抗 跆拳道大會

The 9th Taekwondo Championship for the Presidential Flag.

今年으로 9회를 맞이하는 大統領下賜旗爭奪全國團體對抗戰이 7월 18일부터 3日間 國技院에서 서울新聞社主催協會主管으로 열렸다.

全國에서 고등학교생부 16개팀 (104명), 일반부 및 대학교합 17개팀 (123명)이 참가한 이번 9회대회는 軍部팀을分離한채 實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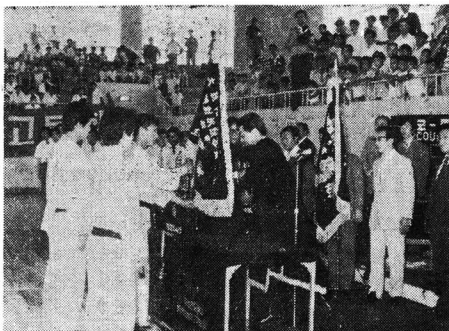
尹益均 서울新聞專務理事가 代讀한 金鍾

圭大會長의 開會辭에서 『9年前부터 이大會를 마련해 固有한 跆拳道의 認識을 넓히고 靑少年들에게 올바른 武道精神을 高揚시켜온 것에 기쁨을 느낀다.』고 말하고 『跆拳道는 勇猛, 禮儀, 敬양, 忍耐의 武道로서 오늘날 世界의 스포츠화되어 오늘 試合이 열리는 이 國技院을 世界跆拳道의 本山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今年부터는 이大會가 名實共히 現代世界競技의 하나로서 個人的 技量을 다룬 總점으로서 團體의 優勝을 가리는 올림픽방식을 채택하여 宗主國跆拳道의 發展을 꾀하자고 밝혔다.

이어 金雲龍 名譽大會長은 激勵辭를 통해 『跆拳道가 國民學校教科書에 채택되는 등 國內으로 名實共히 國技의 기반을 다지고 世界스포츠화한데 대해 宗主國의 跆拳道人은 祝祭氣分에 사로잡혀 자만에 빠졌을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할 일과 갈 길을 생각하고 그 實踐에 獻身해야 할 것이며, 복귀가 가면을 벗어 던지고 그 挑發이 戰爭狀態에 까지 들어가 있는 이때에 國力培養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大統領께서 下賜하신 勳章기를 다루는 이大會는 今年으로 아홉번째 이며 그 두번을 이 國技院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最善을 다해 跆拳道의 技術을 다루고 스포츠 神을 드높이기 바랍니다.』고 激勵했다.



<염예의 大統領기를 수여받는 경기지부 B팀>

全國으로 實力의 平準화가 期待된다는 것을 立證할 수 있었다.

특히 마지막날 벌어진 決勝戰 一般部 8體級은 宗主國跆拳道의 技倆을 滿都의 跆拳道맨에게 보여준 高기 連續이었는데 비김으로 한 延長戰 必승이 세계일이 나 되었다.

일반부 프라이급의 김인성은 연대전까지 물고가며 덕차기를 명증시키는 등 날세고 정확한 발차기를 구사했으나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때맞춰 反擊을 거듭하는 明知大의 손태환과 비겨 끝내는 추접매하는 不運을 맞



경기지부의 이기강 협회장은 매일 경기장에 나와 선수들을 격려했다. 뒤는 한 재수 선수

보았으며 웰터급의 최권성도 경기지부 A팀 유명함과 맞붙어 始終 우세한 열차기로 相對를 위협했으나 끝내 추첨패하는 不運을 안았다. (表紙寫眞)

이번 새로 채택된 단체종합 득점에서 경기지부 B, A 팀은 나란히 1, 2위를 하여 이기상 최장과 더불어 보인 內實과 團合의 結實을 맞보는 감격의 순간을 갖었으며

大會史上 하나의 大記錄을 作成했다. 한편 고등부에서 는 1971년 설립된 체육고등학교가 관목의 發展을 보여 우승기를 앓았다.

이번 시험은 技倆과 경기규정의 이해 등에 있어 진 일보를 보였으나 기본기와 기초체력에서의 균형이 아직 問題點으로 남고 있다.

다음은 이번 시험의 우승자명단.

個人戰 優勝者

고 등 부

일 반 부

			우 승			준 우 승			우 승			준 우 승		
핀		급	윤	창	옥	이	길	홍	최	주	성	박	건	수
푸	라	급	하	석	광	박	오	성	손	재	한	김	인	성
반	탄	급	안	대	준	최	종	복	박	수	복	이	철	하
페	터	급	최	재	천	주	상	현	이	문	회	황	승	주
라	이	급	이	문	회	이	영	식	이	문	기	조	대	식
웰	터	급	유	하	영	이	종	관	유	영	합	최	권	성
미	들	급	박	남	진	박	정	환	윤	기	원	서	명	수
헤	비	급	최	상	진	조	규	대	성	기	홍	홍	재	삼

단체전 종합전적

고등부

우 승 서울體育고등학교
준우승 천호상업전수학교팀
3 위 남산공업전수학교팀

일반부

우 승 경기도지부 B팀
준우승 경기도지부 A팀
3 위 명지대학

◇ 表紙의 말 ◇



한 여름의 陳痛을 겪은 가운데 發行된 十三號紙의 表紙는 최권성 대우 영합의 「뒤돌려차기」의 競技場面.

第九回 大統領 下賜旗爭奪戰의 決勝戰 光景이다.

이제 跆拳道는 山間의 村老에 이르기까지 擊破나 示範 또는 품세에 이어 競技의 興味를 이야기 하기까지 널리 알려지고 있고 유렵의 跆拳道人들은 跆拳道競技가 유렵에서 열리기를 願하고 있다.

世界를 向해 불어 닦는 跆拳道의 熱風이 올림픽競技場까지 휘몰아치기 바라며 이날까지 最善을 다하자.

제5회 외국인 및 여자부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The 5th Annual Foreigners and Women T.K.D. Championships

Foreigners Display their Skillful Taekwondo Techniques

지난 6월 22일부터 이틀간 國技院에서 열린 駐韓外國人 및 女子部 跆拳道選手權大會는 國內跆拳道人들에게 外國人의 跆拳道熱과 國技跆拳道가 女性들에게까지 廣範圍하게 擴大되었다는 確證을 보여주었다.

美二師團의 헨리·에머슨 司令官을 비롯해서 그 以下 全兵力의 熱情的인 跆拳道熱과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外國人들의 熱誠과 女子部의 괄목할 만 한 發展은 注目의 對象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었다.

The 5th Annual Foreigners and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was held at Kuk-ki-won, Central Taekwondo Gymnasium in Southeastern outskirt of Seoul on June 22-23, sponsored by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A total of 68 foreign Taekwondoists and 45 female Taekwondoists including one American woman participate in this championships.

At the opening ceremony, Un-yong, Kim president of K.T.A. and W.T.F. said "Today, we will have the chance to witness the competitions among those who have come as foreigners to Korea and have began to learn the spirit and the arts of Taekwondo, I sincerely hope that when you leave Korea and return to your home country, you will not leave behind what you have learned here but that you will carry the spirit of Taekwondo with you and continue to improve your skill in it and through your learning of Taekwondo, you will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good relations between our countries."

Pierre Landy, French Ambassador to Korea, had a congratulatory address as follows, "Taekwondo is making its way in my own country and it is spreading over many places in the world. Thus to be a martial art, Taekwondo nonetheless become an instrument of peace and understanding. I wish that all participants in this meeting should be inspired by that very spirit that will guarantee their personal and collective



Congratulation
address by
pierre Landy

success and bring rewards to the efforts of president Un-yong, Kim and all those who works at K.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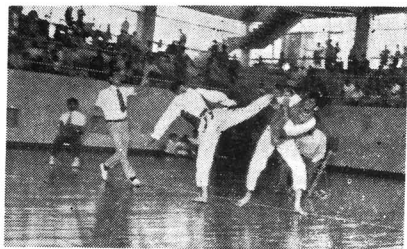
Representing all participants Smith Donald, 1st dan of black belt, 2nd U.S. Infantry Division, had an oath of fair play to the president Un-yong, Kim.

Dignitaries attending the opening ceremony include Un-yong, Kim and Pierre Landy(French Ambassador), Pham Xuan Chieu(South Vietnam Ambassador), Oscar Rasmussen(Argentine Charge d'affaires) R.K. Anand (Indonesia Charge d'affaires) Juergen Kleiner(German Charge d'affaires). It was also attended Gen, Henry E. Emerson, commander of the 2nd U.S. Infantry Division.

After 26 Namdae Moon primary schoolboy team's showing Demonstration, B Grade(from 3 keup to 1 keup) Wilborn and Spartlay competed at B coat.

All competitors showed their skillful play which learned at Korea and 20 members of U.S. 2nd Infantry Division Brass Band cheered up the games.

In Grade A(Black-belt), Jochime Hey(West-Germany) lost game at 1st round met strong Smith(2nd Infantry division) who won the first prize and in Grade C(7th Geup to 4th Geup) Donald Budecke (Canada) also defeated by Sylvester James(U.S.A.) who won the



(B Grade의 결승전 광경)

1st prize. Cause to divide by grade not weight, super heavy E.J. Brown attack speedy and hammer stretch to Rickey Terry(U.S.A.), Ben Ben and Lonurie J. Gibbon step by step, but at 4th round he was helplessly defeated by Burke Michael(U.S. Army) who won the 2nd awards at Grade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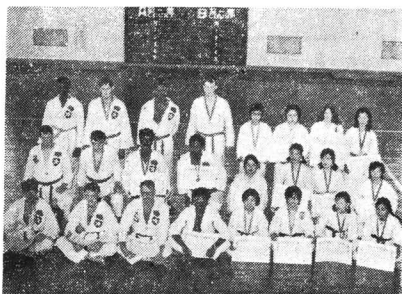
U.S. 2nd Infantry Division Taekwondist swept up most important titles.

In women championship Um, In-Sook won the first prize in Grade A and in Grade C, Susan H. Cole (U.S.A.), only woman as foreigner, won the first prize use her around kick and side kick according to height advantage.

"I was benefit of my 5 feet 5 inch height. I am taller than Korean woman and my round kick and side kick is easy to reach opponents breast and get point."

She works at 101 hospital as secretary and came to Korea to serve his husband who works at U.S. Navy. Two days competitions was closed at 23th June. Un-yong, Kim, president of K.T.A congratulate the medalist and presented the trophy each first winner.

Following is the list of 12 winners in foreigners and 11 Korean woman medalist and one American woman.



Group A (Gold) Donald L. Smith Jr.
(Silver) Georgy D. Hardee,
(Bronze) Ted Fields
 Terry Tokowitz

Group B (Gold) (Michael Derby
(Silver) Wayne F. Clark
(Bronze) Michael D. McCarthy
(Bronze) Sitney C. Francis

Group C (Gold) Sulvester James
(Silver) Burke J.-Michael
(Bronze) Jose A. Reid
(Bronze) J.A. Lamunyon

女子部 優勝者 名單

A級	1	엄	인	숙
	2	장	선	남
	3	정	경	숙
		김	인	수
		박	영	애
B級	1	김	대	복
	2	최	형	순
	3	서	현	주

C級	1	Susan H. Cole(U.S.A.)		
	2	이	화	경
	3	이	명	순
		김	경	신

제 1 회 전국국민학교 개인선수권대회

主催 : 한국국민학교 태권도연맹

The 1st national primary school Taekwondo Champion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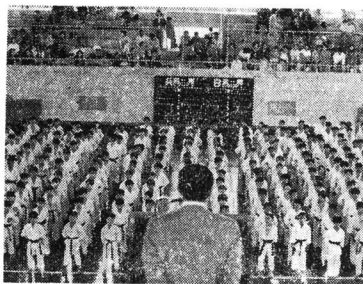
지난해 한국국민학교 태권도 연맹이 태동한 이래 그 첫번째 사업으로 주최한 「제 1 회 전국 국민학교 선수권대회」가 서울 영동에 자리잡은 국기원(國技院)에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대한태권도협회와 서울신문사의 후원으로 열렸다.

일학년 부터 삼학년까지가 A 조 사학년 부터 육학년까지가 B조로 나뉘어 벌어진 경기의 입장식은 5월 24일(금) 오전 10시 국기원에 서울 담십리 국민학교의 최진성(혜비급) 어린이와 683명의 선수들이 입장함으로써 흥건포 경기위원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로 개막되었다.

대회장인사에서 양대석 대회장은 『우리나라의 여러 어린이들이 우리민족 고유의이며 온나라 사랑의 운동인 태권도를 갖고 실력을 겨루게 된것을 보니 기쁘기 그지 없다』고 말하면서 『건강한 몸을 갖은 어린이가 공부도 잘 할 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학교를 대표하여 열심히 경기해 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국민학교의 어린이는 선수를 대표해서 『그동안 배운 태권도 실력을 발휘하여 정정당당히 겨루겠습니다』를 선언했다.

이어 10시 30분 부터는 B조 페더급의 홍상진(금화) 선수와 김영수(부평) 선수의 경기로 부터 대회 3일간의 우승자를 가르는 열전이 벌어졌다.



(대회를 하는 양대석회장)

한창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은 부드러운 몸을 이용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자신 기술을 다해 싸웠으며, 이기고 진 선수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는 따뜻한 마음씨도 보여 주었다.

이들은 힘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앞세워 경기에 임했으며, 학부모와 친구들의 응원도 아랑곳 없이 상대방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온 정신을 경기에 집중시켰다.

3일간의 경기에서 어린이 시범단을 갖고 있으며, 교장선생님이 직접 수련에 임하고 있는 남대문국민학교는 A조의 4해급에서 우승하는 저력을 보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울 어린이들이 우승을 차지했지만 멀리 충남예산에서 온 금오국민학교의 윤창기선수가 B조 미들급에서 3위를 차지했고 A조 밴텀급에서의 정부한 금오국민학교 이현희어린이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5월 26일 오후 5시 30분에 거행된 폐회식에서 양대석대회장은 우승자에게 일일히 메달을 걸어주면서 “오늘 우승한 여러분은 더욱 열심히 태권도를 수련하고, 우승하지 못한 여러분들은 더욱 열심히 싸워 다음 경기에서는 더 좋은 실력을 보여달라”고 격려해 주었다.

다음은 입상자의 명단이다.

제 1 회 전국국민학교 선수권대회 입상자

A 조

B 조

핀 판	1	조용운	서울공덕국민학교
	2	권재범	"
	3	염기훈	서울용강 "
	3	이선영	성남국민학교
홀라인 판	1	주신천	(경기)문산국민학교
	2	박중언	서울대림 "
	3	이석연	서울신림 "
	3	김지태	서울광희 "
벤 판	1	이재용	서울남대문 "
	2	이현희	(의정부)금오 "
	3	정주남	(의정부)중앙 "
	3	권상열	서울울신 "
페 판	1	박해경	(의정부)배영 "
	2	임봉덕	(동두천) "
	3	윤택문	(의정부)배영 "
	3	...	(의정부)경의 "
라이 판	1	장명삼	서울남대문 "
	2	최한철	서울금호 "
	3	계영일	서울창천 "
	3	이동림	서울신창 "
웰 판	1	신유식	서울용산 "
	2	박상호	서울남대문 "
	3	신민수	서울금호 "
	3	김관준	서울명지 "
미 판	1	박보은	서울남대문 "
	2		
	3		
	3		
해 판	1	이기철	서울남대문 "
	2	진호석	서울신창 "
	3		
	3		
핀 급	1	여덕수	서울본동국민학교
	2		
	3		
	3		
홀라인 급	1	윤상순	서울영신국민학교
	2	홍완식	서울재동 "
	3	백상기	서울혜화 "
	3	오정호	(의정부)배영 "
벤 급	1	유선섭	서울동명 "
	2	문형준	서울산정 "
	3	유중재	서울마포 "
	3	박응호	서울운신 "
페 급	1	한우영	서울갈현 "
	2	최충용	서울미동 "
	3	김상태	서울남대문 "
	3	송윤수	서울오류 "
라이 급	1	김동연	서울산림 "
	2	안명일	서울영본 "
	3	장종현	서울공덕 "
	3	이성행	서울신림 "
웰 급	1	전극철	서울후암 "
	2	김동진	서울신림 "
	3	이순규	서울혜화 "
	3	최 인	서울청과 "
미 급	1	박창서	서울우신 "
	2	정승준	서울영본 "
	3	박경환	서울한남 "
	3	윤창기	(충남, 예산) 금오 "
해 급	1	김민호	서울창덕국민학교
	2	최진성	서울답십리 "
	3	조선일	서울신석 "
	3	정승조	서울남대문 "

<경기상보>

제 3 회 전국스포오츠 소년대회

—The 3rd National Youth Sports Festival—

금년으로 3회제를 맞는 전국 소년스포츠포럼 대회가 6월 4일 10시42분 최종주자 양재철이 봉송한 성화(聖火)가 타고르기 시작하면서 幕이 올랐다.

오전 10시 1분 시도선수단의 입장으로 시작한 이 나라를 짊어질 새 샅들의 힘의 祭辰은 박정희대통령 내외분을 모신 가운데 국기에 대한 경례, 국민교육헌장 낭독, 민관식 문교부장관의 개회선언에 이어 스포츠소년단 대기 계약으로 절정에 올랐다.

이어 지난해 우승팀인 충북, 충남, 부산의 순으로 우승기 반환이 이루어지고 박찬순양의 선수선서에 이어 各 種目別로 競技에 들어갔다.

태권도 경기는 5일부터 6일까지 國技院에서 열렸다.



各道에서 선발된 선수들은 그동안 쌓아온 기량을 世界跆拳道의 聖域이 된 國技院에서 아낌없이 발휘하여 구도의 熱戰을 벌였으나, 예선과 같은 하나의 雜番도 없이 통틀린 경기규정과 심판규정을 이해한 심판원과 코치의 資質向上으로 무난히 대회를 치를 수 있었다. 특히 高揚된 태권도 붐이 全國적으로 파급되고 저변 확대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력의 向上을 가져왔으나 특별한 유망선수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스포츠 소년대회와 국민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대회는 앞으로 경기력의 향상이라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으며 忠北과 같이 집중적이고 上下가 단결된 道가 예년에 이어 꾸준히 上位를 점한 것도 한 교훈으로 남을 만하다.

◀다음은 각도 대표선수와 전적▶

一位 서울 (864점)

二位 忠北 (818점)

三位 전라북도(792점)

제주도(9位 498점) 선 수: 文榮喆 崔鶴基 文柄熙 韓尙燁 金東勣 金日萬	부산지탈사(7位: 543점) 선 수: 尹勝柱 徐尙範 守永石 金大雲 金京圭 朴榮基 (우승: 하남급)	경상남도(10位 419점) 선 수: 黃正烈 鄭承植 孫起環 金萬根 田炳哲 鄭秉植 李聖烈
경상북도(6位 589점) 선 수: 金盛岩 鄭仁澤 朴大源 禹丁澤 金錫鎬 (우승: 마포구) 黃在申 尹泰元 尹昌鉉	전라남도(5位: 635점) 선 수: 梁水燮 金水權 金蓮珠 林錫賢 申正植 張三錫 張錫贊 金在根	전라북도(3位: 792점) 선 수: 房俊煥 馬成洙 金益均 田浩鎔 禹錫熙 蘇基炫 (우승: 월곡) 李淑淑 禹奎相
충청남도(11位: 275점) 선 수: 任用淳 박오용 趙慶衍 李祥欽 洪性春 표정택 崔明洙 金鍾男	충청북도(2位: 818점) 선 수: 朴用淳 崔潤基 安勝喆 金淳孝 金基俊 (우승: 부마) 李烈熙 崔炳國 馬相賢 배덕교	강원도(8位: 517점) 선 수: 金相恒 朴繼亨 田永敏 金奎在 李在應 朴相麗 김장운 李在福
경기도(4位: 648점) 선 수: 이준경 許光壽 이규남 金頌大 康敬日 정재설 徐昌洙 金相天	서울(1位: 864점) 선 수: 金相勳 (우승: 권역) 下水萬 李泰熙 姜賢一 尹珍善 金秉淳 韓金相 尹鍾仁	

<경기상보>

제 1 회 전국대학 개인선수권대회

The 1st Collegiate Taekwondo Championship.

지난해 한국대학태권도연맹이 結成된 以來 創設試合으로 마련된 이번의 全國大學選手權大會는 大韓跆拳道協會의 後援아래 선수의 참가수나 全國別, 그리고 大會進行等 가장 무난한 出發을 보여 來日을 밝게했다.

6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國기원에서 열린 본대회의 임장직은 金雲龍大韓跆拳道協會會長과 朴大善韓國大學跆拳道聯盟會長을 비롯한 內外 貴賓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오후 2시부터 國技院에서 열렸다.

朴大善大會長은 大會辭를 통해 『大學人의 肯持와 民族의 自負로서 國技 跆拳道를 通한 精神修養과 肉體 단련을 尤감없이 보여 來日의 國家를 짊어질 知性人들의 힘찬 도약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朝鮮大學을 비롯한 공주사대, 경남대, 포항산업, 신



대회를 하는 박대선 회장

학대, 원광대, 경남산업대학, 동아대학, 인천제전을 필두로 서울의 咸陽館大, 延世大, 서울대, 경희대, 단국대, 明知大, 홍익대, 경기공전, 동국대등 18개대학 116명을 대표한 延世大의 이종우는 『跆拳道精神아래서 知性人답게 正正當當히 싸울 것』을 선언했다.

예년에 비해 一般적으로 上昇된 기량으로 통일된 경기규정과 심판규정을 재빨리 體得한 이들 선수들은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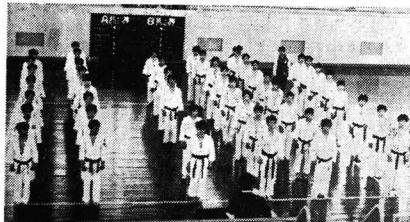
종 우열을 가릴 수 없는 接戰을 벌였으며 우승후보가 게임 中반에 脫落하는等의 熱戰을 전개했다.

來日의 跆拳道를 더욱 發展시킬 이들의 믿음직스러 운 경기는 明知大와 東亞大가 두드러진 進境을 보인 가운데 7일 오후 막을 내렸다.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중기부	우	승	준우승
핀	급	김성배(仁川體專)	오용제(延世大)
플라이	급	손태환(明知大)	이희정(仁川體專)
밴텀	급	김왕군(동아대)	이환선(明知大)
페더	급	원원(仁川體專)	장서희(延世大)
라이트	급	박원(仁川體專)	신승현(東亞大)
웰터	급	김무영(단국대)	최권선(成均館大)
미들	급	김태일(仁川體專)	김동기(仁川體專)
헤비	급	유상철(仁川體專)	성기홍(明知大)

고기부	우	승	준우승
핀	급	심형기(明知大)	이선구(서울대)
플라이	급	한유근(東亞大)	김인성(朝鮮大)
밴텀	급	이기환(明知大)	최종우(慶南大)
페더	급	장기환(仁川體專)	최재현(단국대)
라이트	급	이문기(明知大)	장기영(東亞大)
웰터	급	강난구(明知大)	유영한(仁川體專)
미들	급	김충근(明知大)	황진수(단국대)



(寫眞左. 폐회식입상자명단. 右 경기장면)



제55회 전국체육대회 서울特別市 豫選大會

Seoul City Preliminary tournament for the 55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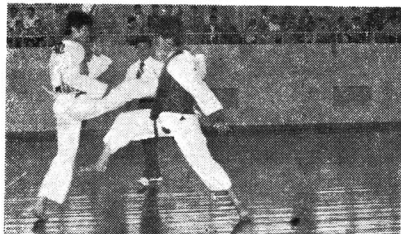
National Sports Festival

今年 十月 서울에서 열릴 豫定인 55回 全國 體育大會를 앞두고 全國各地에서 豫選大會가 활발히 行해지고 있다. 해마다 열리는 이 民族의 祭典에서 道民의 명예를 걸고 上位圈의 진출을 위해 총력전을 펴기 때문에 예선부터 붙들리는 경쟁이 일기 마련이다.

忠清北道跆拳道協會는 이미 5月少年스포츠大會에서 2位를 한 以後 6月初부터 代表選手를 選拔 강훈에 突入하고 있으며 京畿道팀은 5월에 一次, 7월에 二次로 選拔戰을 가져 一次에 選拔되고도 그간의 努力如下에 따라 二次에서 脫落할 수도 있는 強硬政策을 쓰고 있다

서울의 豫選大會는 7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市 體育大會와 接하여 국기원에서 열려 高等부와 一般部の 代表選手를 選拔했다.

實力이 엇비슷한 各 選手들은 全國의 覇者를 가려내는 一次關門을 通過하기 위해 열띤 競爭을 거듭했으며 得點이 交換될 때마다 兩 營團단에 喜悲가 交叉되기도 했다.



(成대의 최권성은 발차기가 유요해서 영예의 대표로 선발되었다)

高等部の 靑급에서 윤창욱(광성고교)은 악전고투끝에 決勝에 올라 박진수(성동공교)를 눌러 이겼으며 플라이급에서는 한석광(천호상교)이, 송정일(광성고교)을 눌러이기는 등 各學校에서 一體級식을 이기는 平行을 보였으나 수송전공이 페더급과 웰터급을 광성고등학교가 靑급과 밴텀급을 석권 互角의 勢를 보였다.

一般部도 參加者は 적었으나 그 技倆은 어느 選手權大會에 못지 않았다. 一般中技의 최권성은 끈질긴 공격으로 최급손을 밀어부쳤으며 高技미들급의 현창환과 고봉선은 당상막하의 熱戰을 보여 한번의 공격에 반드시 反擊이 뒤따라서 연장전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끝내 추첨으로 고봉선의 勝利가 確定되기도 했다.

高技웰터급에서 一回世界大會 代表選手였던 김철환은 급격히 成長한 허송과 맞붙어 뒤돌려치기의 묘기를 보이며 苦戰하다가 不意의 역습에 달려 거듭된 苦戰을 면치 못했으나 근소한 得點차로 승리 허송은 본루를 삼켜야 했다.



(웰터급의 김철환은 끈질긴 투지를 보인 허송에 고전했으나 결국 승리했다)

高等部

靑	급	윤	창	욱
플라이	급	하	석	광
밴텀	급	전	만	표
페더	급	김	광	삼
라이트	급	이	문	희
웰터	급	정	수	근
미들	급	김	영	환
헤비	급			

一般中技部

조	태	선
손	태	환
이	환	선
김	상	기
유	길	환
최	권	성
주	동	용
김	정	식

一般高技部

김	재	화
고	재	상
이	기	환
곽	판	식
김	철	형
이	칠	환
고	봉	신
안	장	식

特輯一回

아시아의跆拳道

Special Edition : (Republic of China, Japan, Indonesia, Khmer)

On the way of Developing Asia Taekwondo.



東南亞巡訪記의 連載三回를 맞이하여 이번호엔 創設되는 아시아跆拳道를 自說하는 特輯으로 꾸며보았다.

東南 아시아는 東洋文化圈이라는 大 범주 안에서 言語와 文化가 비슷하고 氣候와 風俗에 어떤 유대를 갖는에서 古來로 비슷한 武術이 歷史을 통해 交流 되어왔고, 이것이 相互의 發展을 꾀한 反面, 整理할 수 없도록 혼선을 招來한 것도 事實이었다.

韓國의跆拳道는 高句麗 時代부터 이 武藝를 創案한 우수성을 바탕삼아 찬란한 民族文化와 더불어 體系化하고 科學化했으며, 이런 事實은 一般人이라 하더라도 世界 最初의 金屬活字, 측우기, 거북선등을 創案한 民族의 資質에 비한다면 充分히 납득이 가리라고 본다.

대망의 1974년에 이르러 우리는 여기에 다시 西歐의 合理體制와 東洋의 精神的 求心點을 찾는 哲學이 對話해 나갈 수 있도록跆拳道를 發展된 一계단 위에 올려 놓았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아시아 태권도 선 수권대회가 開催되는 것이다.

비록 조그마한 出發을 期한다고는 하나, 이를 발판으로 우리는 未來를 設計한다는 重且大한 目的을 갖고 있는 것이다. 다음號까지 二회에 걸쳐 연재될 이 特輯을 눈여겨주시기 바라며 可能한한 客觀的인 立

場에서 記述된 特輯에 對해 보다 높은 次元의 高見을 提示해 주면 感謝하겠다.

(Republic of China)

自由中國의 跆拳道가 걸어온 길

Survey on Republic of China Taekwondo

中國 本土 福建省과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東쪽으로 200km 海上에 있는 約3百 6千km² 정도의 조그만 섬.

人口 約 1,500萬 人口密度 400人/km²의 失脚民들은 失地回復을 다지면서 年中 30°C를 오르내리는 섬 生活를 감수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와도 비슷한 狀況에 처해 있으면서도 바다 건너 두 곳은 7億의 同胞과 아시아의 1/3에 해당하는 巨大한 (지난世界大會에 三位的 自由中國) 大陸에 대한 鄉愁는 實로 엄청난 것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 오늘날 유엔총회에서의 地位問題, 스포츠 外交에서의 孤立—, 國家의 氣象圖가 날로 미묘해져 가운데 어쩌면 그들은 그들 民族이 만들어낸 「一騎當千」의 氣慨와 「百折不撓」의 忍耐를 다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端的으로 自由中國의 跆拳道는 袁國徵(陸軍中將, 自由中國陸戰隊訓練所長)을 會長으로 패기에 찬 陳良光 國會議員을 副會長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굳은 決意를 엿볼 수 있다.

自由中國 跆拳道의 오늘을 이룩한 使者 役割을 한 것은 지금도 그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盧孝永사범이었다.

1966년 12월 28일 盧孝永사범은 陸軍少領으로서 5명의 教官團과 함께 陸戰隊의 160名에게 跆拳道를 가르쳤다.

中國에는 이미 十八技가 國術로서 傳統化되어 있고 그들대로 功夫(쿵푸)를 發展시키고 있기 때문에 保守派들의 跆拳道에 對한 見解는 대수로운 것이 아니었다.

盧師範은 一次로 홍성인, 정영희, 이영환 二次로 김성규, 김기동, 三次로 손복규, 김기동, 정지수등의 교관단과 함께 태권도의 眞髓를 보이기 위해 身體의 構造, 힘의 集中力과 破괴력, 그리고 護身術에 대해서



주먹에 저린 피가 마를 날이 없이 每日 示範을 계속했던 것이다.

이 結果는 서서히 統一을 그리워하고 安保를 顯示로 삼아야 할 狀況에 처한 國民과 指導者에게 깊은 印象을 주었고 마침내 國土統一의 念願에 불타고 있는 蔣介石 總統앞에서 示範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이 示範結果 跆拳道는 가장 現代化하고 身體의 모든 機能을 百分 發揮한다는 結論에 到達—自由中國의 國民健康增進을 政策的으로 強力히 키우게 되었다.

이어서 1970年代에 들어와 활발히 海外活動을 벌이는 大韓跆拳道協會와 손을 잡고 世界化의 隊列에 들어서서 제—회 世界跆拳道選手權大會에 參加, 三位에 입상, 世界跆拳道聯盟 結成에 參與했으며, 今年 봄에는 陳良光 副會長이 來韓 戰力の 탐지와 그들의 訓練計劃을 세우는 치밀성과 意慾을 보이면서 最高段者가 四段에 이르렀으며 八十餘 道場에서 四十萬이라는 엄청난 태권도人口를 背景으로 호시탐탐 우승을 노리고 있다.

또 自由中國은 제—회국제심판 강습회에 李孝英사범을 中心으로 陳峰儒, 王源昌, 陳秋華 등이 參加 名實共に 研究하는 태권도의 자세를 보여 준 바 있다.

특히 自由中國은 跆拳道를 政策的으로 다루는 方便으로서 우리나라의 陸軍士官學校에 해당하는 陸軍軍官學校와 海軍軍官學校를 비롯하여 대한태권도협회의 몸세 겨루기등을 체계화시키고 있다.

아무튼 이번 아시아大會에 참가하는 自由中國의 跆拳道 選手團은 東南아시아 跆拳道의 發展의 한 規範이 될 것이며 宗主國 韓國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팀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KHMER) 第一回 아시아跆拳道選手權大會出戰 準備完了

「론놀」대통령 태권도 보급발전에 지대한 관심

KHMER preliminary tournament for the 1st Asian Taekwondo President Lon Nol support T.K.D. as a modern sports in KHMER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跆拳道選手權大會를 겨냥하는 피어린 國民의 結實이 드디어 꽃봉우리를 맺었다.

크메르 跆拳道協會는今年 6月 30日 오전 9時 올림픽 경기장 실내체육관에서 「제 1회 아시아跆拳道選手權大會」 開選手 選拔戰」을 開催했다.

入場式에는 前首相이며 國立銀行長이었던 「녹송」씨와 趙全(深全) 跆拳道協會長(陸軍准將)을 비롯한 協會 任員 그리고 김세원大使 等 内外귀빈이 자리한 가운데 7千餘名の 大觀衆의 歡呼속에 開幕되었다.

이大會는 大韓跆拳道協會에서 發送한 協會의 規定과 競技規定 그리고 「호구」를 着用하여 行해되었다.

協會長의 開會辭, 「녹송」씨의 祝辭에 이어 金世元大

實力때문에 심한 격차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南方人特有的 유연한 순발력과 순간동작으로 시종 機智에 찬 攻守를 거듭하여 觀衆을 熱狂케 했다.

이 시험은 選拔圈內에 들어가면서 本格的인 熱氣를 띄우기 始作했으며, 最終決勝戰도 우열을 가리기 힘든 좋은 競技를 보여주었다.

跆拳道普及의 歷史가 3년에 미치지 못하고 프놈펜이 中立國으로서 意外的 戰亂에 시달리고 있는 惡條件을 師範의 團合과 국가와 民族의 公지를 되살리기 위한 희생 정신으로 青春을 불사르고 있는 김세종, 김용현, 최정혁 三統士의 魂신으로 이제 1萬名の 跆拳道人口 55%의 有段者를 배출해 낸 크메르는 이번 아시아大會에서 意外的 伏兵으로 出現할지 攄난다.

金世鍾사범을 비롯한 김용현, 최정혁 트로이카의 활약이 보람을 찾게 될 이날을 期待해 본다.

또한 가지 時報는, 지난 7월 18일 오전 10時 태권도협회는 發足人事를 위해 접마문(城富所)으로 론놀(Ron-Nol)大統領을 禮訪하였다.

이 자리에는 協會에서 趙全(深全)協會長, 丁慶良(丁良)副會長, 方比洛(方比洛) 二副會長을 비롯해서 韓國의 김세종 三統士가 參加했는데 론놀大統領은 명에 跆拳道協會長을 기꺼이 수락하고 『協會發足の 기쁨과 韓國의 跆拳道發展을 위해 協會長을 中心으로 團結하여 사범의 지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라』고 訓示하고 『軍과 一般에 널리 보급하여 跆拳道精神을 高揚하여 國民의 情風에 앞장서라』고 指示하면서 金一封을 하사하여 격려했다.

크메르의 日刊紙 天報新聞(中國語版)과 리베브리경(佛語版)은 一面 痛으로 다루고 라디오와 텔레비에 放映되어 跆拳道認識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이제 크메르 跆拳道協會는 盤石위에서 出發을 기약하게 되었으며, 아시아大會의 활약을 눈여겨 본다.



(아시아선수권대회 크메르연선회 입장식)

使는 金雲龍會長이 보내는 「감사패」를 深全 크메르跆拳道協會長에게 증정했으며 金大使夫人은 호구를 技術審議會 「백률」議長에 傳達했다.

金世元大使는 「프놈펜跆拳道協會」의 發足を 격려하는 意味에서 55萬 越元 「프놈펜」貨를 태권도협회장에게 傳達하여 滿堂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연구시범이 끝나고 開幕된 競技는 平準化되지 못한

(JAPAN) 跆拳道의 猛熱颶風

TAEKWONDO Quick spread to the Japan Students.

康理俠 師範의 努力…… 드디어 結實段階에

東洋속의 異國!

模倣의 天才!

이런 單語로 集約시키면 讀者들은 좀 어리둥절할는지 모른다. 이미 人口가 1億3千萬을 突破했고, 現代의 鬼神이라고 불리우는 公害로 물과 空氣를 輸入해야 한다고 아우성치는 日本을 가본 일은 없으나 20世紀의 大戰後 한 「颶風の 眼」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그들의 地理的인 位置가 民族의 元祖는 南方으로부터 그리고 文化는 韓國으로부터 배워간 歷史가 잘 말해주듯이 이제 工業은 美洲로부터 배워오고 그들대로의 獨特한 政治를 加味하여 物質文明이 가져올 수 있는 豫想치 못했던 退路에 몸부림치고 있다.

純粹한 人間의 感性과 一部の 스포츠까지 商品化된 日本에 「人本主義」의 물결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어찌면 銳利한 歷史家에 의해 이미 豫見된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現代의 젊은이들은 질식할 것 같은 文明의 副産物(公害 Pollution) 아래서 신음하면서 「히피화」한 다든가 하는 否定的인 길을 걷고 있으며, 뜻있는 一部人事들은 輕視되었던 「人間本質」 또는 「傳統文化」 등의 源流를 더듬고 있고 意識의이든 無意識의이든 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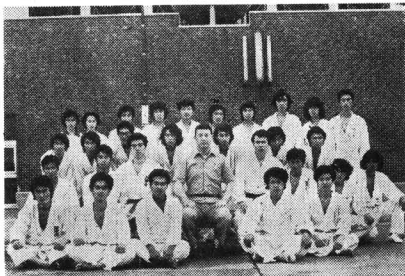
日本에 한국의 跆拳道가 實로 우연한 機會에 確固한 土臺를 구축하게 되었다.

再昨年 11月 大阪産業 大學의 武道 關係 學生有志가 지난 71年 結成된 大韓跆拳道協會 在日支部의 首席師範으로 있는 康理俠의 示範에 감탄하고 73년 5월에 産業大學에 跆拳道部를 設置하게 되었다.

74년 2월 8일에는 大學當局에 正式跆拳道部를 登錄 認可받았으며, 오늘날 馬昭場義(1944 工學部 交通機械學科)君을 主將으로 한 38명의 部員이 맹렬한 훈련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은 10월 18일 國技院에서 열리는 아시아 大會에 日本을 代表하여 參加를 서두르고 있으며, 그간의 歪曲된 兩國間의 理解에 보다 肯定的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들이 跆拳道를 修練하게 된 動機에 대해 『韓國固有의 武道를 日本에 普及시켜 스포츠를 通한 韓日親善을 보다 增進시키고 理解하는 데 있다』고 說明하고 있다.



(康理俠의 指導아래 修練에 熱中하는 産業大生 日本의 주축이다)

이들은 日本에 紹介된지 日淺한 태권도를 本格的으로 처음 修練하는 기쁨을 맛보고 있으며, 또 世界로 舞臺를 넓혀 純粹스포츠로서 굳건히 土着해가는 跆拳道에 발맞추어 나간다는 기쁨을 갖고 있다.

이들은 8월 27일부터 2週日間 合宿訓練을 통해 日本代表選手를 選拔하고 強化하며 아시아의 젊은이들과 跆拳道의 友情을 나눈다는 期待에 가득차 있다.

日本代表의 주축을 이룬 日本産業大學은 宗主國 中央道場의 修練, 康理俠師範의 근기로 上當한 實力을 쌓았다고는 하나 아직 우승전선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나 意外의 파란을 몰고 强者로 나타날 여지는 充分히 있으며 上位圈에 속하는 自由中國이나 싱가포르 등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일 것이 分明하다.

韓國跆拳道精神의 萌芽

Taekwondo Spirit emerging in Indonesia

인도네시아에 싹트는 태권도

피테칸트로무스·에렉투스!

1890년 東자바에서 發掘된 B.C. 50萬年쯤으로 보이는 Java猿人の 이름이다.

이로서 人類學者들은 이곳이 人類文化發祥의 한 基點이요 여기서 北上한 人類가 中國大陸에 新石器時代의 稻作文化(農耕文化)와 鐵器文化를 發生시켰으리라 보고 있다.

精良信仰等 獨特한 原始共同體社會를 이루워왔다.

1973년 7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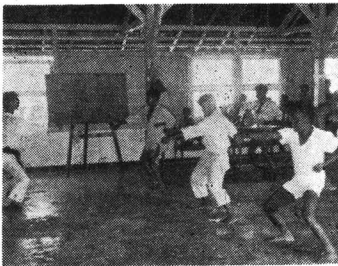
韓國의 南方開發株式會社 社員 한 사람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空港에 내렸다. 洪性平(HONG, SUNG-PYUNG) 協會 5段이며 1941년생인 이 친칠한 키와 이곳 住民들 보다 단단하고 뚱뚱한 체구의 사나이는 南카리만탄의 렐파카街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會社에서 근무하는 한편 틈나는대로 한국의 文化와 跆拳道에 대한 이야기를 퍼나갔다.

「우리들을 다루려면 우리 말을 먼저 배우라」는 自尊心과 오랜 外勢로 排他的인 이들은 이곳에 먼저 진출한 가라메와 中國系 幫우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한국의 태권도가 월남전에서 크게 활약했다는 것은 一部知識層이 알고 있었다.」

自國言語, 風俗, 文化를 갖는 아치에族 바타크族 순다族, 자바族같은 種族을 形成했고 이들은 B.C. 1世紀頃에 印度商人이 건너왔고 7세기에는 한수사王國이 分立, 11세기에는 獨立된 中央集權의 封建國家가 건립되면서 四面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民族답게 變化 많은 歷史로 점철되어 왔다.

특히 1959년부터 비롯된 네덜란드인의 진출로 인한 外勢의 진출은 1602년의 東印度會社로서 극에 달했으며 20世紀에 들어와서 自主에 온갖 몸부림을 친 끝에



드디어 1945년에 日本으로부터解放 1945년 8월 17일 스카르노와 핫타 兩人的 이름으로 드디어 獨立이 宣布되었다.

아무튼 東南아시아에서 面積 190만4345km², 人口 1億5千萬等으로 가장 큰 나라이며 首都는 자카르타이며 東南아시아 群島의 大部分을 차지하는 世界 最大의 群島國이다.

洪師範은 다행히 이곳에 먼저 자리잡은 시중산 師範을 만났으나 이상하게도 한국의 소식이 어두워서 아직 大韓跆拳道協會와 世界跆拳道聯盟과 긴밀한 關係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다.

洪師範은 시중산 사범을 만나 힘을 얻고 會社則의 協助을 求해서 跆拳道服을 바껴 입고 道場에 서게 되었다.

南카리만탄의 꼬다바루(新市街라는 뜻의 都市名)에 있는 警察署에 紹介하여 먼저 호신술로서 週一回 3時間씩 3部로 나누어 100명의 跆拳道員을 가르치게 되었다.

跆拳道의 指導를 눈여겨보던 이곳 警察署長도 드디어 道場으로 뛰어들었으며 기초동작으로 부터 시작 이제는 8패품세에 접어들게 되자 跆拳道가 人體에 미치는 健康의 增進은 勿論 精神의 修養으로서 沈着性, 忍耐力 그리고 胆력까지 갖추고 每事에 自身感을 차지할수 있게 되었다.

이에 熱狂한 南方開發株式會社와 인도네시아 有志들은 跆拳道를 政策의 政策으로 보급토록 決心을 세로이 하고 陸士, 官公署, 學校로 뻗어나가게끔 계획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싹트기 始作하는 인도네시아 跆拳道를 기르는 洪師範은 아니라 이번 제一回 아시아大會를 이들이 直接함으로써 느끼는 役割은 무척 크리라고 본다.

一九七四年 十月 十八日 國技院!!

Kuk-ki-won 18th October 1974!!

祝

第一回 아시아跆拳道選手權大會

The 1st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國技 跆拳道의 世界化…… 아시아 跆拳道人이 한 자리에 모여 그 힘과 技術을 다 함께 겨루는 꿈의 祭典이 드디어 現實化되게 되었다.

永遠히 體育史에 아로 새겨질 제 1회 아시아 跆拳道選手權大會의 創設日……

우리 民族 多함께 이 跆拳道史의 歷史的인 祝典에 拍手을 보내자.

1. 참가범위

아시아 지역내에 있는 국가 단위별로 선발된 대표선수로서 각 체급에서 1명씩

2. 참가자격

선수는 국기원 공인 초단에서 3단까지로 한다.

3. 경기방법

1) 각국 대항전으로서 체급별 일반 개인전으로 토나먼트식 경기로 한다.

2) 대한 태권도협회 경기규정 적용

4. 경기참가선수

경기규정 제 2조 4항에 의거 일반부 체급별 1명씩의 선수를 참가토록하며 체급구분은 아래와 같다.

권 급 48키로이하

플라이 48키로이상 53키로이하

밴텀 급 53키로이상 58키로이하

페더 급 58키로이상 63키로이하

라이트급 63키로이상 68키로이하

웰터 급 68키로이상 74키로이하

미들 급 74키로이상 80키로이하

헤비 급 80키로이상

1. Period

October 18 (Friday)~October 20 (Sunday), 1974

2. Place

Kuk Ki Won (Tae Kwon Do Centra Gymnasium)

3. Weight Classes:

Class	Weight
Fin Weight	48 kgs below
Fly Weight	48kgs~53kgs
Banham Weight	53kgs~58kgs
Feather Weight	58kgs~63kgs
Light Weight	63kgs~68kgs
Welter Weight	68kgs~74kgs
Middle Weight	74kgs~80kgs
Heavy Weight	80up

4. Scope of Participant

One contestant selected as delegate from any of 8 weight class by each nation.

5. Qualification of Participant

Grade of the contestant shall be the 1st Dan black belt through the 3rd Dan black belt authorized by the Kuk Ki Won.

第1回 아시아 選手權大會 豫想



競技分科委員長

金 寬 鎬

지난해 世界大會를 치렀다고는 하나 이번 처음으로創設되는 아시아大會의 競技를 미리 점진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이나 다름없는 어려운 일이다

年輪이 거듭될수록 各國의 競技力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며 競技力의 尺度, 個人의 能力, 發展相等을 比較 檢討함으로써 近似値에나마 接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跆拳道의 一大 祝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選手權大會를 創設하며 그간의 準備과 情報等을 바탕으로 多少의 궁금증을 풀어 보고자 한다.

豫想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跆拳道競技를 觀戰하는 興味와 特性에 對해서 잠깐 言及하기로 하겠다.

跆拳道競技는 武道인, 攻防術이니 또는 護身術이니 하고 불리고 있다. 跆拳道에 있어서 于先되는 것은 防禦이다. 相對에 있어서 不意의 攻擊을 어떻게 잘 防禦해 냈느냐 하는 것이 基礎가 된다. 이러한 防禦를 얻은 다음에 相對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安全한 作戰의 구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實際의 競技를 進行하는 過程에 있어서 이러한 攻防의 動作이 토막 토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連續的으로 이루어지므로 때문에 一般人들은 이것을 잘 알아갈 수 없게 된다.

即 競技의 흐름을 理解하기 어렵다는 말이 된다. 또 拳闘나 レスリング처럼 前面으로만 攻守를 하고 手만을 使用하는 것이 아니라 自身을 中心으로 空間的으로는 360度の 回轉半徑, 時間的으로는 豫測하기 힘든 刹那瞬間을 포착하기 때문에 여간한 注意力을 가지지 않으면 競技의 묘미를 느끼기에 힘이 든다.

以上 열거한 점들은 다음 機會에 좀 더 자세히 紙面을 얻어 具體的인 例를 들기라고 아시아諸國의 手準을 점쳐 보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上位圈에 떠오를 팀은 宗主國 韓國

을 先頭로 지난해 世界大會의 三位를 이룩한 自由中國, 今年 二十二名의 大規模修練團을 韓國에 派遣한 싱가폴등일 것 같다.

序頭에도 밝혔거니와 이번大會는 새얼굴이 많이 登場하고 또 其間の 年輪이 비록 짧은 期間이었다고는하나 參加팀의 實力이 急상승했으리라고 믿어진다.

프놈펜, 홍콩, 말레이시아의 사바, 필리핀, 일본 베트남, 괌, 오스트라리아 등의 參加國에 對한 情報은이 時點에서 正確히 파악하기 힘들다.

宗主國 韓國은 이들이 四面楚歌格으로 에워싸 勵志를 불사할 때 意外의 體力 소모와 放心의 虛를 질릴餘地가 전혀 없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찰나적으로 승부가 결정될 수 있는 意外性이 전혀 없지 않은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모든 運動이 體力+技術+精神力=競技力이라는 公式를 생각할 때 絶對의 優勝候補로 指目되고 있는 韓國 팀은 그야말로 跆拳道精神으로 싸울 것이 要求된다.

自由中國은 이번에 準優勝을 할 것이 거의 確實하다 노효영 師範의 努力과 陳良光 副會長의 熱誠은 거의 몇 體級에어나나 優勝을 차지하겠다는 執念에 불타고 있다. 陳副會長은 今年 벌써 세번째 防衛 戰力을 탐지하고 돌아갔다.

그다음 싱가폴팀은 많은 努力으로 그동안 꾸준히 實力을 向上했고 지난 五月 國技院에서 金容好 師範의 指導로 跆拳道競技에 開眼을 하게 된 것같으나 아직 優勝을 넘보기에 힘든 狀態이다.

그밖에 다크 호스로 指目될만한 팀은 큰돌大統領이 直接 名譽會長으로 진두 지휘하고 金세중 사범등 三統士가 활약하고 있는 프놈펜 팀으로 이미 七千餘大觀衆이 지켜보는 가운데 選拔戰을 마치고 出發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 팀과 함께 「意外의 소나기(스콜)」같은 攻擊을 퍼부을지 모른다. 여기에 日本은 강 정협사범의 指導아래 주축을 이룰 選手들이 産業大學生들이기 때문에 意外의 두뇌플레이로 파란을 일으킬지 모른다.

필리핀서 찾아오는 오스트라리아, 필리핀, 사바 등은 아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이준봉 박용만 김용호 사범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는 意味에서 격려를 보내야 할 것이다.

海外 跆拳道 指導師範 여러분에게

大韓跆拳道協會 會長 金雲龍
世界跆拳道聯盟 總院長

멀리 異國에서 「國技 跆拳道」를 世界의 스포츠로 傳播・普及하는데 힘쓰고 계신 跆拳道師範 여러분들의 勞苦를 致賀합니다.

跆拳道는 우리 祖上이 남긴 傳承文化 가운데서 가장 卓越한 遺産으로서 우리 民族의 剛健한 氣象을 鼓吹하여 祖國守護의 精神의 支柱가 되어왔으며, 오늘날에는 民族主體性 確立의 底力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跆拳道가 世界의 스포츠로 發展함에 따라 世界人類의 精神修養과 道德性을 高揚시키고 自我確信의 氣風을 振作시키는데 貢獻한 段階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미 大韓跆拳道協會는 跆拳道 宗主國으로서의 面貌를 一新하고 使命完遂에 힘써왔습니다.

1972年 11月 30日, 150萬 會員들이 渴望하던 跆拳道中央道場 「國技院」을 竣工하여 跆拳道人의 搖籃을 마련하였으며, 1973年 5月 25日부터 27日까지 第1回 世界跆拳道選手權大會를 「國技院」에서 17個國의 選手들이 參加한 가운데 開催하여 跆拳道에 대한 認識을 全世界에 새롭게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世界 各國의 選手가 우리말로 우리 固有의 武術競技를 벌이는 것을 보며 우리가 跆拳道의 母體이며 本領임을 自負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跆拳道를 世界化하여 國威宣揚은 물론 世界를 우리의 품속에 끌어넣겠다는 雄志를 펼쳐 나아갈 自信을 갖게 되었습니다.

大會가 끝난 다음날인 5月 28日에는 「國技院」에서 世界跆拳道聯盟 創立總會를 가지고 20餘個國이 加入함으로써 跆拳道를 世界的으로 組織化 하고, 會員國의 跆拳道 行政을 一元化하였으며 科學的인 技術開發과 競技規定을 研究・檢討하는 등 跆拳道의 全般的인 問題에 一大轉機를 마련하였습니다.

1973年 12月 1日에는 跆拳道 昇段審査 單一化制度를 公布하여 世界 跆拳道의 殿堂인 「國技院」의 이름으로 段證書를 發行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跆拳道 品勢編인 敎本, 跆拳道 영화, 跆拳道 紹介冊子(英文・獨語・스페인語・佛語版)를 發刊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跆拳道의 科學化와 組織化에 힘써온 우리나라 跆拳道人의 不斷 努力으로 이루어진 結實이며 特別 跆拳道가 全世界에 傳播・普及되어 眞正한 意味의 스포츠로 發展하고 相互善隣의 架橋가 되고 있음은 海外에서 跆拳道 指導・普及과 스포츠를 通한 外交使節로서의 使命感을 가지고 活躍하시는 여러분의 獻身的 努力의 結實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跆拳道는 跳躍과 雄飛를 위하여 알찬 內實을 期하는 데 모두가 다 같이 힘써야 할 때입니다.

이에 大韓跆拳道協會에서는 一線師範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定期的으로 師範들에 대한 精神教育과 技術教育을 實施하여 秩序確立과 새로운 指標設定에 힘써왔습니다.

1974年 5月 15일부터 18일까지 3日間 第1回 國際審判講習을 11個國에서 47名이 모인 가운데 開催하셔서 國際競技로서의 發展을 위한 발판을 굳게 하였으며 앞으로는 海外에서 地域別로 國際審判講習과 품세의 강습을 計劃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國技院」에서 第1回 亞細亞 跆拳道 選手權大會를 10月 18일부터 20일까지 開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今年에 들어와서 싱가포르・日本・말레이시아・우간다・홀랜드의 選手團들이 跆拳道 宗主國인 韓國의 「國技院」에서 修練을 쌓았습니다.

世界聯盟・會員國들의 要請에 의하여 第2回 世界 跆拳道 選手權大會를 1975年 9月 4일부터 7일까지 「國技院」에서 開催키로 하여 이미 大會豫定日字를 各國에 通報한 바 있습니다.

協會와 國技院은 그 間に 이루어져온 海外師範들의 昇段問題와 資格證 문제등 行政인 諸般支援에 最大限의 努力을 傾注할 것을 約束하면서 海外師範 여러분의 私心 없는 積極인 參與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러분께 어느 個人의 私設團體가 아닌 우리나라의 그리고 우리 民族의 그리고 여러분의 協會이며 總指揮塔인 大韓跆拳道協會・世界跆拳道聯盟・「國技院」에 언제든지 서슴치 마시고 建議하시어 跆拳道의 百年大計를 세우는데 積極 參與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異域에서 手苦하시는 여러분 앞에는 險路가 많을줄로 압니다만, 開拓者의 피땀어린 熱과 誠은 榮光으로 昇華된다는 굳은 信念으로 그리고 우리 跆拳道 世界化의 旗手며 우리나라의 國威宣揚을 위한 外交使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더욱 精進해 주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健康과 榮光이 있기를 다시 한번 祈願합니다.

第二回 海外派遣師範 選拔試驗

The 2nd Selective Examination for Instructors
dispatch to the Abroad

Since last few years, Korea Taekwondo Association received many request from all over the world. For example, The government of United kingdom, Turkey, Iran, Egypt asked K.T.A. to dispatch Korea Taekwondo Instructor for promote their techniques and improve it's spirit. Step by step Taekwondo spread to the world wide as a modern sports and continuously become indigenous each nations.

Korea Taekwondo Association managed a selective examination for instructors to dispatch abroad annually under the regulations including thesis examination, poomsei, competition, Break, language, History and Commonsense.

This year term was held from June 3 to 4 at Kukiwon and selected four most excellent instructors.

The lists are at next page.

汎世界的인 현대스포츠로 着實한 成長을 거듭하고 있는 跆拳道가 世界人의 眼에 依해 그 認識이 날로 세로워져가고 있다.

宗主國을 찾아오는 푸른눈의 跆拳道人들은 異口同聲으로 有能한 韓國사범들에 依해 自國의 跆拳道가 發展하기를 期待하고 있다.

大韓跆拳道協會內的 技術審議會, 派遣分科委員會는 『跆拳道宗主國으로서 國威宣揚과 民族武藝의 스포츠로서 外交使節의 任務를 다하고 精神面에 있어 보다 優秀한 師範과 選手를 海外에 派遣하는 데』에 目的을 두고 있으며 그 選拔에 있어 i) 本會 會員으로 四段以上인 者, ii) 高等學校以上の 學力으로 英語 또는 當該國의 言語를 解得할 수 있는 者, iv) 指導者教育을 畢한 者로서 師範資格證을 保有한 者, v) 三級以上の 審判資格證을 保有하고 本會罰則에 該當되지 아니한 者를 對象者로 삼고 있다.

이번 시험은 世界 各國으로부터 답지하고 있는 師範

파견요청에 依해서 國家師範級으로 政府를 通해 온 公式要請만을 對象으로 삼은 것인데 對象國은 英國이 2名, 이란이 1名, 이집트1名 等이었다.

六月三日부터 四日까지 兩日間 國技院에서 열린 이번 시험은 派遣分科委員會에서 시험을 치루었는데 實技로서 격파, 겨루기 품세를 모두 實施해서 격파부분은 松板회전격파, 손날격파 등이 있고 팔괘와 고려 품세 그리고 1분 30초 3회전의 겨루기도 시행되었다.

六月 四日の 理論試驗은 技術一般과 常識一般으로 나뉘어 품세와協會동정, 跆拳道의 現況 등에 대한 시험이 있었는데 金雲龍會長은 特히 이날 직접 시험관으로 나오면서 英語와 常識 그리고 技術의인 問題까지 일일히 口頭試驗을 試行했다.

이번 시험에 合格한 師範들의 略歷은 아래와 같다.

김 희근(KIM HEE KEUN)

(37歲, 협회 六段, 豫備役 少領)

建國大學校政外科出身인 김희근사범의 出國對象國은 中東의 이란, 出國과 매맞추어 이곳에서는 제7회 아시아 경기대회가 열린다.

古代文明의 한 發祥國이며 石油의 나라로 알려진 이란은 特異한 宗教로도 특히 異探 롭다.

특히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좋아한다는 金師範은 72年 지도자교육원, 74年 코치아카데미 修了 同 3級審判자격을 획득했으며 軍隊에서도 跆拳道를 指導한 경력의 所有者이며 1968년에는 월남에 주둔하면서 軍關係의 跆拳道를 지도한바 있는 화려한 경력의 所有者 王室로부터 跆拳道에지 대한 關心을 갖고있다고 듣고 있는 이란은 風俗이 전혀 다른 점 그리고 言語가 장애를 줄것을 미리 감안하여 充分한 준비가 뒤따라야겠다고 신중함을 보이는 김사범은 金雲龍 會長님이 직접 시험관으로 나오신 國技院의 選拔시험에서 두어깨가 절로 무거워지는 使命感을 느꼈으며 七一年度 美國海兵隊에서 跆拳道를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분발하여 韓國跆拳道의 聲望으로서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호(Lee Moon Ho)

(28歲, 협회 五段)

成均館大學校 英文科를 中退하고 入隊 70年 除隊한 李 사범은 64년 3·1절기념 개인 선수권대회 重量級에서 우승한 이래 45회 전국체육대회, 한국우수선수선수발전, 일본과 건설했던 등 굵직한 타이틀을 아홉번이나 차지한 베테랑中的 베테랑이며 73년 1 제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는 한국 대표선수단 감독을 역임하는등 力量을 發揮해온바 있다. 1 회지도자교육을 수료하고 지금까지 서울文理大지도사범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이번 選拔對象國은 紳士의 나라, 英國, 끊임없는 습기와 그 有名한 傳統의 風習이 우리의 跆拳道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못 궁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李文鎬사범은 『跆拳道의 禮節과 優秀한 攻防에 對해 묵묵히 가르쳐 나갈 뿐』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李 復漢(Lee Bok Han)

(31歲, 協會 五段)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를 卒業한 이복한 師範은 공군대학에서 A.I.C.과정을 수료했으며 공군본부에도 근무한 바 있다.

今年 봄 空士 教授部 法學教官으로 있다가 대위로 轉役한 李 師範은 大韓通運에 있다가 현재삼협주식회사 근무중. 이 사범은 서울 大學에 在學할 때 태권도부를 창설한바도 있는데 법대 태권도 동문회의 회장도 맡고 있다.

今年 5月 5段으로 昇段한 이 사범도 英國으로 파견될 豫定이다.

李 師範은 『이번 派遣이 國家對 國家의 協約에 依한 出國이기 때문에 國家의 名譽를 결코 싸워야 할 使命感을 느낍니다. 아마 結果는 제가 얼마나 誠實히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는가에 대해 달려 있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FRENCH)

프랑스 태권도 선수권대회

FRENCH 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S

Sanctioned by French Taekwondo Association

1974 French 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s held at orsay city on 20th April,

This championships open annually since 1972.

At opening ceremony Marc Vigro president of French Taekwondo Association gave an opening address to eighty participants.



(프랑스全國태권도대회 입장식)

This championships divided into two parts as individual and team match.

All competitors display their skillful play which earned during training. All competitions conducted under the rules of Korea Taekwondo Association and World Taekwondo Federation.

At this game specially Kim Moon Kyung, Korea Consuler to French, Mayor of Orsay city and Madame Larcoste cheered up players at the end of the game.

Korean Instructor Bang' SeoHong, Song Chan Ho and Shin Boo Young from Germany work as referee.

At this Championships Centrol Francise Taekwondo club swepted up most important titles and closed almost midnight.

After the closing ceremony Korean instructors suggest an Inter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s between Germany and French.

(CANADA)

平和태권도 크럽上位圈에

Darryl Buddecke won the 1st prize

Some members of the Peace Taekwondo Club won the most important titles at B.C. Interior Martial art Championships Prince George, Canada on 18th May. The championships are graded into Black belt, Red, Blue and also white belt. Most people thinks that white belt's participation is problem. But Jim Cocker's view on the lower degrees is positive at the sight of popularization of Tackwondo in Canada. Canada Taekwondo is



(경기에 참가한 平和크럽의 태권도선수단)

now on the way developing.

Only Peace Taekwondo Club invited by this Martial art championships under the name of Taekwondo and fight really wonderful.

Especially Mr. Van Tassel awarded Sports Fighting spirit trophy. During the championships he continued fighting represent Peace T.K.D. Club even though his severe damage.

After this championships Jim Cocker, chief instructor of Peace Taekwondo Club said that "I'll try to my best to Promote Taekwondo in Canada as a world modern sports."

The winners of this Championships are, Darryl Buddecke, Harold Tritthardt, Frank Daichendt, Gunther Dertschal, Wayne Van Tassel, Frank Neubane, Darcy Schexars, Jeff Stromquist,

VENEZUELA—Hong-Ki, Kim

産油國ベネズエラの跆拳道열이



남아메리카 北部에 있는 共和國, 人口 千萬에 面積 912,050km² 首都 카라카스인 베네주엘라는 남아메리카에 위치하면서도 唯一하게 위도상으로 北緯 1°~12° 사이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김홍기 사범은 約三年前 이곳에跆拳道를 開拓하기 始作 또 하나의 「새로운 열풍」을跆拳道世界化의 里程에 紹介시켰다.

金師範이 自營하고 있는 跆拳道 體育館은 登錄人員이 450名, 毎日 修練生 約三百名이 神秘的 韓國文化를 배우고 있다.

이제는 助教 要員까지 養成시키고 있고, 이곳으로부터 60km 떨어진 港口 都市 “CUMANA”에 까지 손을 뻗어 3개의 體育館과 200名の 修練生을 確保하고 있다

跆拳道가 서서히 발판을 굳혀 감에 따라 公式機關인 州 警察에서 부터 州國立大學校에까지 修練을 要請해 오고 있다. 이를 계기로 金師範은 베네주엘라 跆拳道의 底邊을 더욱 擴大하고, 또 公式化하여 韓國의 跆拳道를 現代運動競技로 普及할 모부름을 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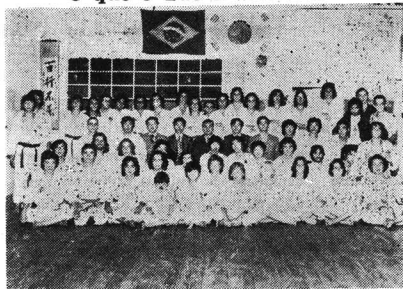
다만, 急變하는 跆拳道의 擴張을 도울 宗主國의 師範이 不足하여 年内로 師範 招請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접주의 4個都市와 學校體育, 軍 및 警察들과 아울러 正式 體育會로 國家體育會에 加入하는 날까지 金사범의 努力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BRAZIL—Sang-In, Kim

“TAE KWON DO?”

O que e Tae Kwon Do?



Há 1,500 anos aproximadamente, surgiana Coréia uma luta utilizada para a defesa pessoal do seu povo contra os ataques inimigos.

Esta era feita com o uso dos pés e dava-se o nome de “Tae Kion.” Com o passar dos tempos, estes movimentos foram sendo aperfeiçoadosse introduzindo-se também o uso das mãos, passando a chamar-se “Tae Kwon Do.”

Além dos benefícios físicos que o “Tae Kwon Do” traz ao atleta, auxilia também sua formação moral e espiritual, sendo seus principais lemas: Cavalheirismo, Auto-Confiança, Modéstia e Espírito Invencível.

Essa modalidade esportiva, hoje praticada em dezenas de países, especialmente nos EUA e os países da Europa, onde a prática da mesma foi introduzida nas escolas superiores do Exército e da Polícia como matéria obrigatória, além de ter sido usada na guerra do Vietnam e também por fuzilheiros navais Norte Americanos.

Atualmente, sob Direção do sr. Un Yong Kim, Presidente da Federação Internacional de Tae Kwon-Do, com sede em Seul, na Coréia, o Tae Kwon-Do está sendo difundido com grande vibração, a todas as partes do mundo, pelos professores internacionais.

(U.S.A.) The 1st AAU Taekwondo Championsh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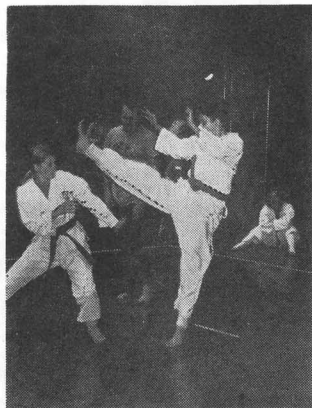
美國體育會主管 제 1 회 美國태권도대회

With over 250 competitors entered from as far away as Arizona and Oregon, the first AAU Tae KwonDo Championships held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n Berkeley furnished a full day of excitement for spectators with continuous action free fighting matches providing a steady flow of techniques. At the end of the day, Ernie Reyes was declared the first AAU TaeKwonDo Black Belt Champion.

The last match pitted Reyes against his old friend Donald Yi for the championship. After starting slowly, the tempo of the match speed up to a display of ability, quickness, and an arsenal of spinning back kicks and flying back kicks that left the crowds cheering for more. Throughout the black belt eliminations, effective use of kicks to the head was demonstrated repeatedly and rewarded with two points.

Matches were run under modified World Tae KwonDo rules with two rounds and no stopping to signify points scored. Corner judges tallied points awarded, while the referees ran the matches and awarded penalty points. TaeKwonDo rules allow attacks to all parts of the body with light controlled contact, except attacking the groin and back and hand attacks to the face which were ruled illegal. An interesting feature to the matches was the elimination of the tendency to stall for time. Competitors had to engage in fighting within six seconds of pausing and could not fall down, leave the ring, turn their back to their opponent for protection, or throw their opponents.

In the brown belt competition, Dave Solemani



The Competition scene of 1st AAU Taekwondo

and Chin Lee overcame the field to take the heavyweight and lightweight crowns, respectively while in the women's division, Joyce Sauvain, veteran of many tournament victories, bowed out to her sister Vicki for first place. Junior division winners Victor Davis, heavyweight and P Rhee, lightweight, topped a mixed rank girl and boy field to take their titles. In the PeeWee division, David Bragafought his way to the number one spot. Caston Fowler, Jimmy Brown, and Virgil Baker outlasted 150 other competitors in the men's white belt division to take their weight classes. In collegiate team competi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ta Cruz topped host U.C. Berkeley and Dominguez for first place.

—by Roger Jow.—

<ELSALVADOR>

The 1st ELSALVADOR Taekwondo Championship for Presidential Cup

제 1 회 엘살바돌 대통령하사컵 태권도 대회와
엘살바돌 태권도협회 소식

來年 9月 4일에 열리는 第2回 世界跆拳道選手權大會에는 또 하나의 跆拳道家族을 國技院에 맞이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병호 사범은 그간의 태권도 보급에 관한 공적으로 이곳 國軍의 날에 엘살바돌 大統領으로부터 功勞賞을 수여받았다. 한편 협회를 創設하여 世界跆拳道聯盟(W.T.F.)에 加入할 준비를 完了했으며 또 제 1회 엘살바돌 태권도대회가 協會의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이 대회는 특별히 大統領컵이 하사되었으며 二年連勝者에게 永久保存될 때 마다 새로운 컵이 하사되는 積極적인 지원을 約束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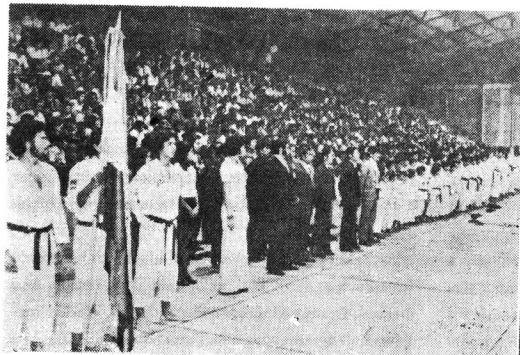
엘살바돌 跆拳道協會 任員名單

ASOCIACION SALVADORENA
DE TAEWONDO

會長 에프렌·테에다(Efrain Tejeda) 陸軍大領
副會長 알뒤르·사마요(Arturo Samayoa) 前노동청장관
理事 마누엘·퀸타네라(Manuel Quintanilla) 의학박사
理事 베르틴·마르텔(Bertin Martel) 의학박사
事務總長 리칼도·키린젤로(Ricardo Quiringuelo) 의사
技術고문 최 병 호(Byung Ho, Choi)
法律고문 카르로스·샤바리아(Carlos Chavarria)



8月 4日 陸軍의 날 記念式에서 엘살바돌 大統領(左)로부터 功勞賞을 받는 최병호 사범



第一回 大統領하사컵경쟁탈 엘살바돌 跆拳道大會 입장식과 우승자들

AFRICA 大陸에 핀 無窮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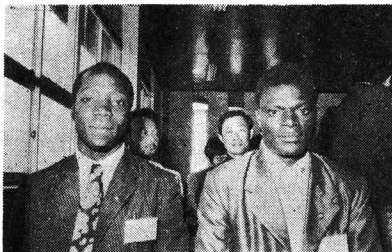
Oduto : We are Pioneer in Africa Taekwondo
Kitto

第一回 國際審判講習會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간다의 키토를 겨우 接見한 것은 10時 30分 文化호텔 「커피숍」에서였다.

그는 地球의 半을 돌아 아프리카 東海岸에서부터 異域萬里 KOREA의 國技院을 찾아온 것이다.

接見을 통해서 그 旅程 또한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刑務官學校에 在職中인 키토는 資料室의 百科辭典을 뒤져서 「태권도」를 알아 내고 다른 東洋武術과 比較한 뒤 跆拳道의 優秀性을 確信했으며 韓國政府와 協會 金 雲龍會長의 배려로 김남석사범의 과견을 얻어 修練을 始作.

跆拳道同好人이 모인 後에 協會를 구성 二年間의 豫備審査期間(Probation Test)을 거쳐 우레나라의 大韓體育會와 같은 우간다體育會에 正式加入, 跆拳道協會를



Kitto (Left) and Oduto (right)
at Kukkiwon lecture room

發足시키고 會長에 J.A.A Etima씨를 뽑아 제 1회 世界選手權大會에 參席했으며 이로써 世界跆拳道聯盟創設에도 힘을 더하고 榮光의 加盟國이 되었다.

328명의 修練生으로 시작한以來 2千五百餘 跆拳道人과 100名の 有段者를 배출 급성장하고 있는 우간다 跆拳道協會는 常夏의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最初로 跆拳道를 수련하고 또 最初로 國際審判강습회에 參석한 이 先頭走者(First-Runner)들은 아프리카에 핀 無窮花의 友情임에 틀림없다.

이들은 8월 26일부터 16명의 우간다 跆拳道人이 國技院에 來韓하여 修練에 임하여 低邊擴大뿐 아니라 競技力의 向上도 아울러 切實 豫定이다. 우간다 跆拳道人을 友情으로 받아들이자.

——편집실——

Interview with Mr. Kitto from the Uganda

(q) How did you start Taekwondo in the Uganda?

(a) First we should explain how did we know the Korea Taekwondo.

Here, Kitto and Uduto, we are working at prison's staff college and need some self-defense art to our students. Then we went to the research center and found oriental martial art in the encyclopedia. There are many kinds of martial arts in Asia. We are compared

all of them each other and sure that Korea Taekwondo is an excellent one. After that we have made up our mind to contact with Korea government to confirm what we had found out.

We asked to Korea government to send us taekwondo Instructors to learn it's techniques and spirit. And then, Un-yong KIM, president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and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accept our request and dispatched very excellen-

Instructor of Kim, Nam Suck. So we could start training as a form of self-defense art in the training staff college.

From this on the Korea Taekwondo has spontaneously spread to the Army, security forces, police very widely and faster.

(q) How many people start to learn Taekwondo at that time?

(a) About 328 people study taekwondo in same place at that time.

They are prison guards and officers. I think two thousands and five hundreds men study Korea taekwondo since 1969, and at least a hundred black belt holders are among them. Trainees are rotated at this school every one year term. Among of the students who trained and promoted through years and then be an Instructor for first commmer. I think it's very idealistic system. We are really thank you for Mr. Nam-suck Kim, and Korea Government.

(q) What do you think about the Taekwondo?

(a) As I have told you that we are very lucky to connected with Korea Taekwondo. At first, we have to say that we have good impressions about Taekwondo.

Supporting by Korean Government we start Taekwondo first time in Africa. Now we have great progress in self-defense art organized Uganda Taekwondo Association. During the training, we feel taekwondo help us not only improving health but also cultivate spirit. We are very passionatic people.

After study Taekwondo most of Taekwondo-students looks like and act very calm and generous. We think Taekwondo spirit is originated continuously training poom-se (patterns).

After that we could feel self-confidence and self-control, self-respect. We are really happy to know Taekwondo including self-defense art and spirit.

Now we are came from far Uganda to participate in the 1st International Taekwondo Referee Training Seminar.

Un-yong KIM, the president of W.T.F. and K.T.A. send an invitation to us and looks good care of us to stay at the Kuk Ki Won lodging room and support every thing. So we are the first man again in the Africa who get 3rd class of the International Tae-

kwondo Referee certificate.

The Kuk Ki Won is very beautiful place. I'll sincerely give back this honor to the president, Kim, Unyong.

(q) Would you tell us about the Uganda T.K. Association

(a) As you know we have N.C.S.(National Council of Sports) like K.A.S.A. (Korea Amateur Sports Association).

There is some conditions if we went admit N.C.S. as a new sports. For example 2 years probation test etc.

Uganda Taekwondo Association is quite same. We organized Uganda Taekwondo Association 1971 and send offer to enter the N.C.S.

By that we are agreed by N.C.S. and Government this year. Now we are put down our corner stone and try to act more widely. I'll introduce our executive members of U.T.A.

Chairman; J.A.A. Etima
Treasury; Mohammed Seourwagi
Secretary; Iwedde & Kitto
Coach; Kim, Nam Suck
Ass't Coach; A.F. odu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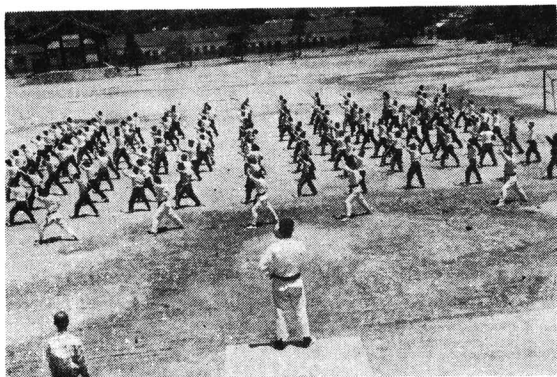
(q) Do you have any suggestion to the W.T.F. and K.T.A. to promote and popularize our Taekwondo as a World sports and be an entry of Olympic games?

(a) -Yes, we need more information from Korea Taekwondo Association. Please send us taekwondo magazines and some printing materials. We need guide of K.T.A. and World taekwondoist should work hard hand in hand with W.T.F. We have planning to come to Korea studing taekwondo. We heard about to construct Taekwondo college at Kuk Ki Won by Un Yong KIM. If it is possible, we are try to dispatch a Taekwondo group to the Taekwondo College.

Editor; Thank you very much to your sincerity and zeal for the Taekwondo promotion in Africa. I was deeply impressed by your Taekwondo spirit as a first runner in the Africa and contributions to the good relation between two nations.

Taekwondo as a school Athletics

學校體育으로서의 跆拳道



왼쪽 뒷모습의 교장선생님은 國技跆拳道를 배우는 학생을 바라보면서 固有무술의 發展을 حث해 한다.
교단위원 吳光雄 사범이 학생들을 指導하고 있다 —경복 私立中學校에서—

우리는 學校教育의 理想郷을 知育·德育·體育으로 생각해왔으며, 教育으로 人間에게 얻어지는 効果를 知行一致, 學行一致, 德行一致등으로 보아 자칫 理性의 作用으로만 흐르기 쉬운 教育이 人間生活에 그대로 現顯되기를 바래왔다.

이러한 理性과 行爲의 關係는 強健한 肉體의 健康으로 뒷받침된다는 생각으로 體育의 重要性이 教育에서 論議되어 왔을 뿐 아니라, 理智의인 연마조차도 健全한 肉體를 基盤으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平凡한 眞理가 되새겨지기도 한 것이다.

教育의 궁극적인 目標는 勿論 보다 나은 個人生活, 市民으로서의 資質向上등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時代的으로 個人과 市民을 包容하는 社會集團 내지는 國家安保에 대한 問題로 파급되기도 했던 것이다.

이런 這問의 事情은 充分히 教育에 있어서 體育의 重要性이 하나의 對峙를 이룰 程度로 重大하다는 것을 力說하고 남음이 있었던 것이다.

跆拳道가 體育의 一分野로서, 心身の 단면, 祖國安保의 體力養成, 精神의 修養과 民族魂을 되살리며 文化民族의 肯持를 向上시킨다는 것이 教育者들에 理解된 것은 한국근대교육사의 하나의 획기적인 일이라고 評하고 싶다. 이것이 事大主義요, 등잔밑이 어두웠다는 것을 우리는 더 以上 論爭할 必要가 없고, 더욱 跆拳道를 學校教育으로 定立시키기 위한 努力을 거듭하는 것으로서 近代 韓國의 精神面과 肉體面의 發展에 至대한 功을 세울 것이라는 것만을 거듭 強調하고자 한다.

이에 발맞추어 教材의 편찬과 普及에 全力을 다한 跆拳道人들은 더욱 분발하여 급속적으로 파급되는 跆拳道人口의 現況악과 해맞은 指導者의 育成과 教育方法의 向上등을 體系化하고 科學化하는 作業에 앞장 서줄것이 시급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뒤여야 하는 立場에서 있으며, 누가 더 먼저 열개보고 最善을 다하느냐에 얽매던 跆拳道 寶庫의 發掘뿐 아니라 國家의 安保에 直結되는 教育觀을 確立하는 지름길을 가는 것임을 銘心하기 바란다. 이번호는 學校巡禮와 一線指導者의 手記를 실었으며, 앞으로도 이런 精神아래 이 페이지를 割愛할 것이다.

(編輯室註)

<강 원 도>

춘천 국민 학교

배운것은 땀흘려 옮기는 어린이



20세기 초——그러니까 1901년 춘천보통학교로 비롯된 이 학교는 올해로 65회 졸업생을 배출한 뿌리 깊은 학교, 『올바른 마음과 강인한 체력위에 알찬 지식과 창의적인 기능을 지니고 스스로 갈살며 교장과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한국인의 바탕을 기른다』는 이 학교의 교육목표가 말해주듯 세칭 명문교의 압축을 제 거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일하는 어린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협회 4단이며 2기지도자교육수로, 1期 3급심판을 확보한 김홍중씨는 이 학교의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태권도 교육을 도맡고 있다.

『태권도에 오랜 동안 몸담아 왔지만 태극품새가 체육 교과서에서 채택된 것을 보고 우리 민족이 이제 자기것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았어요』라고 말하는 김교사는 계속 『어린이들이 자기가 배운 것은 실천하며 이기적인 행동에서 근면, 자립, 행동할 수 있다는 교육은 말로만 떠들어왔지 실제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태권도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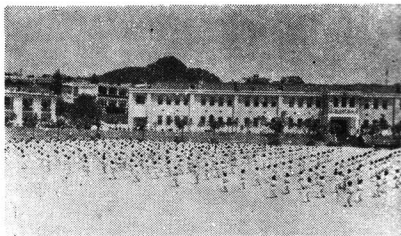
그러므로 최봉규 교감선생님도 「건강한 어린이(체육), 공부잘하는 어린이(知育) 선을 행하는 어린이(덕育)가 교육의 순서라고 생각한다」면서 태권도교육이후에 거둔 교육成果에 만족을 표하고 있었다.

3학년이상 2,400명의 어린이가 남녀 모두 받는 태권도 교육이 교풍을 세신했다고 믿는 춘천국민학교는 이제 태권도를 교기화한 보람을 찾고 있다.

<강 원 도>

봉의 국민 학교

태권도전당에 부푼 어린이들



1회 스포츠소년대회가 강원도에서 열린던 날!

춘천고등학교에서 보인 태권도 마스게임은 본 시민들의 감탄의 소리가 이곳 저곳으로 번져갔다. 이들의 시범 마스게임은 기본동작, 태극2장, 고려품새와 격파로 구성되어 강원도 체천에 꽃으로 불리게 되었고 올해에는 제 3회 문교부차관기생탈 전국교직원체육대회 개막식에서 보인 시범 태권도마스게임으로 「태권도 체육관」의 건립이라는 뜻밖의 선물을 민관식문교부장관으로 부터 약속받게 되었다.

이 학교어린이들은 태권도가 국기(國技)로 지정된 197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1973년도 까지는 4학년 이상만 시행하던 것을 74학년도에 들어와서 2학년 이상의 전교생이 태권도에 참여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국민체육으로 발전시켜 놓았다.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지도자의 손이 부족하여 세심하게 전교생을 지도할 수 없다는 문제점에 봉착하여 양과 질의 균형을 맞춰나가야한다는 점과 정신자세의 일면이 정식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아쉽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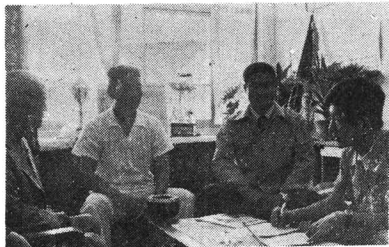
현재 3단이 2명, 2단이 28명등 608명의 유급유단자를 보유하고 있는 봉의국민학교는 백중주(협회4단), 장안기(협회4단) 두 교사의 땀 어린 배려아래 기량을 닦고 있다.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굳센 의지력을 기른다, 「아름다움을 숭상하고 예절바른 생활습관을 기른다」는 이 학교의 목표는 곧 태권도 정신이며 이 나라의 새싹들이 태권도 정신아래 교육되고 있는 대표적인학교의일별

<경상북도>

칠곡중학교

民族固有의 武術을 배우는 肯持



(左端이 손용갑 교장 先生님 한사람 건너 吳光雄 사범)

대구에서 釜山으로 가는 東南 國道! 경북 칠곡중학교로 뻗어간 8km의 새길을 달리는 직석한 學生들이 보이고 호르타기를 입에문 意志의 젊은이가 앞서고 있다. 學校 正門에 들어서면 백발이 성성한 人자한 老人이 이들을 맞이한다.

이미 六旬! 教育에만 몸마쳐 人間教育을 無言中에 實踐해온 손용갑 校長先生任은 “戰後世代” 또는 “新世代”라고 불리는 이들이 無定見한 教育觀에 농락되어 方向感覺을 잃을 것이 두려웠고 이로 인해 “장치기”라든가 固有의 文化를 開發하는데 남다른 觀心을 가져오든中 跆拳道가 자라나는 世代에게 民族魂과 肯持를 심어주는 標本이 될 수 있다는 確信을 갖던차 跆拳道精神에 투철한 吳光雄(協會 5段) 사범을 만나 오늘 的 칠곡중학교 태권도를 이룩해 놓았다.

1學年 全校生이 毎日 1時間, 2學年의 週2時間 3學年이 進級關係로 週3時間 교육을 받고 있는 이 학교는 따로 跆拳道部를 두고 있고 메스컴의 톱을 달리는 戰績은 說明할 必要가 없다. 戰績이 目的이 아니기 때문에 『한 時間도 吳師範은 늦는 법이 없읍니다. 화내는 일이 없읍니다. 출신해서 먼저 實踐합니다. 自己가 할 일을 모범으로 보입니다. 더 說明이 必要하겠읍니까?』 跆拳道精神의 살아있는 한 例—이 힘이 祖國近代化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힘을 더 할 것이며 來日의 跆拳道를 빛낼 寶庫가 될 것이다. 손용갑校長先生任과 吳光雄師範의 만남은 칠곡중학교태권도사의 記念碑가 될것임을 記者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忠清北道>

주성중학교

一校一技 跆拳道傳統의 學校



「깨끗한 學校」「깨끗한 마음」을 올해의 教育目標로 삼은 청주시 수동 367번지에 자리잡은 주성중학교를 찾은 것은 지난 6월 19일 市道支部取材의 마지막 날이었다. 1951年 창립된 주성중학은 忠北에서 우수한 體育施設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도 부러움을 살만했다.

一校一技의 方針에 따라 跆拳道를 校技로 選定한 주성중학교는 체육교사(忠北跆拳道協會理事 中高聯盟專務理事이며, 3期指導者教育修了)이며 協會5段인 金규완 선생님의 지도로 1學年 全校生이 60分 내지 120分의 跆拳道修業을 철저히 받고 있다.

여기에서 우수한 學生은 本人의 希望에 따라 特別修練을 받고 學校 代表選手로 발탁되어 跆拳道部를 構成하고 있다.

金규완 教師는 「學問의인 知識과 體力의 調和」가 教育의 理想의인 目標라고 前提하고 跆拳道人도 앞으로는 이런 자세로 나아가 균형있는 人間으로 成長할 것이라는 未來觀을 提示했다.

훌륭한 체육관 시설을 갖추고 있어 全天候跆拳道教育을 할 수 있는 利點을 갖고 있는 주성중학교는 지난 3월의 道교육감기생발전에서 6계급우승과 4월의 소년스포츠대회 예선에서 4계급을 우승시키는 막강한 힘을 보였다.

깊은 傳統과 정돈된 學校환경을 갖춘 주성중학교의 태권도는 秩序와 體系가 잡힌 가운데 安保體育 그리고 健全한 市民을 배출하는 투철한 教育觀을 갖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體力은 國力! 健康한 體力은 生産을 높인다

대구공업고등학교



김관의 校長(12代): 工場實習의 生産化가 學校의 當面目標입니다. 學生들의 實習이 製品化되어 最少限 學校의 소비재만은 이것으로 充足시켜보자는 것입니다. 저희學校는 또 世界技能올림픽의 프레스部分에서 입선 석군이 금메달을 획득한 榮光을 갖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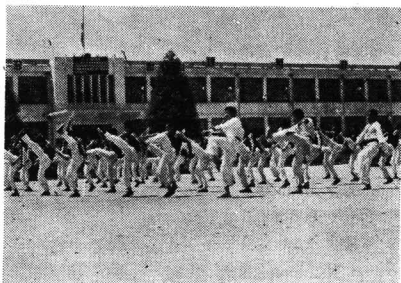
現代가 高度의 物質文明해 감에 따라서 저는 結局 人間이 機械를 造作한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健康한 體力은 生産力을 높인다』는 말은 單純한 眞理이며 科學立國입니다. 그러므로 지칠 줄 모르는 體力과 끊임없는 忍耐가 必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個人的 幸福과도 關係된 問題이지요.

다음으로 同席한 李賢朝師範(協會五段二期지도자교육, 一期三級심판교육수료)은 대구공고태권도부는 15년의 歷史를 갖고 있으며,

배출된 총유단자는 近 500명이 넘고 있고 現在는 在學生가운데 2단 25명 3단 25명 합계 50명이 있습니다. 校長先生任계서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가정이나 各 관공서에 기술봉사를 하고 있으며 跆拳道部員에게도 “나라를 위해 奉仕할 수 있는 精神의 함양”을 勸화해 주십니다.

65년부터 경복교육감기를 3년째한 傳統의 대구공고 팀은 卒業選手들의 취업으로 인한 戰力의 弱화를 면치 못하고 있으나 이 學校同門인 이사범의 熱誠어린 指導와 校長先生任의 격려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다

청주공업고등학교



教科課程의 60%가 實習이며 40%의 人文課程을 배우고 있는 청주공업고등학교는 남로 校勢의 忠實化를 꾀하면서 「유신課業을 수행하는 證견기술인 養成」을 目標로 하고 있다.

健康한 體力을 養成하는데 소홀하지 않는 한 方案으로 한창동교장선생님은 跆拳道를 全校生에게 실시하기로 했다. 때마침 이 學校體育敎師이며 忠北跆拳道協會理事인 鄭海烈(協會 5段) 先生任과 손잡고 72년부터 全體 中間體育時間을 新設하고 高等學校1學年부터 3學年까지 每日 20分씩의 跆拳道 基本 동작과 품세를 가르치고 있다. 73년도에 發足한 中高聯盟에 있어 鄭海烈敎師가 副會長으로 추대되어 忠北의 中高跆拳道普及에도 個人的인 情熱을 쏟고 있는데 벌써부터 忠北跆拳道協會와 손잡고 全國體典의 道代表選手를 養成하고 8體級中 4體級에 選拔된 淸州工高는 量的인 擴大가 跆拳道의 要式行爲내지는 形式的인 發展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깊은 배려를 보이고 質的인 面에서의 技術向上은 勿論 跆拳道精神을 존중하도록 철저히 훈련되고 있다.

跆拳道를 배우는 學生들의 熱意와 性品도 대단하다면서 鄭師範은 固有的 國技跆拳道가 無言으로 實踐되어 全國에 소리없이 뻗어나기를 바라고 있으며 跆拳道精神을 背面에 깔고 있는 淸州工高의 工業立國敎育이 祖國의 近代化에 기여하는 바 적지않기를 期待한다.

國技跆拳道를 大學教科課程에

淸州大學校

정돈된 山谷의 都市
淸州! 마치 山寺의
梵鐘소리라도 들릴듯
한 錯覺을 불러 일으
키는 아담한 市街地에
우뚝 솟은 淸州大學은
이 都市가 教育都市인
을 象徵해 주고 있었
다.

記者가 鄭甲淳 忠北
跆拳道協會長과 金龍
專務理事와 함께 淸
州大學을 찾아든 것은
市道支部 取材中이었
다.

權崙遠體育課長의
說明을 듣는 記者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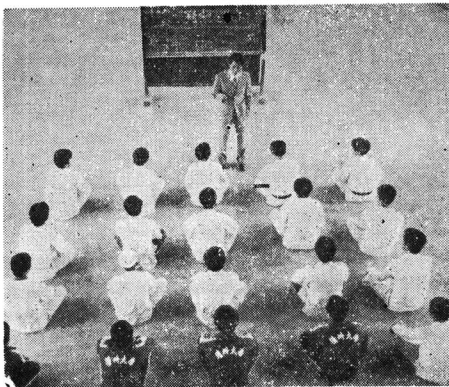
오랜 試驗을 겪어온 國技跆拳道의 傳統과 發展像이 어
떻게 結實되어가는가 하는 과정을 느낄 수 있었다.

1974年 淸州상과대학으로 開校式을 거행한 淸州大學
은 1951年 7월 淸州대학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기
까지 문학부, 이공학부, 상학, 법학과 교육학부를 갖
춘 知性的 殿堂으로 發展해오면서 忠北教育의 産室이
며 精神文化의 支柱를 自負해 오고 있다.

金俊喆理事長의 教育理念과 情熱로 꾸준히 成長해온
이 大學은 現在 鄭石換 學長의 教育理念의 具現이라는
命題아래 內實을 다짐하고 있다.

이 大學의 歷史와 함께 살아왔다고 해도 過言이 아
닌 權崙遠 教授는 忠北體育界에 至寶의인 存在로 알
려 질만큼, 體育精神과 體育發展이 몸에 배어있었
다.

權 教授는 우리나라 歷史는 一見 너무 文人中心으로
색여져 왔읍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읍니
다만 결국 人間의 思考作用도 健康한 身體에서 유래되



(跆拳道講義 理論을 教授하는 鄭甲淳君)

워보았읍니다.

때마침 1971年 跆拳道가 國技로 선정되고 그 競技方
式을 現代化 내지는 世界化한다는 消息이 報道를 통해
활발히 傳해지게 되어 우리 學校에서는 신중히 이것을
검토하게 되었읍니다.』

여기까지 말을 맺은 權教授에게서 記者는 理念없는
教育和 너무 얽매인 無氣力한 教育者와는 달리 信念
과 情熱로 新天地를 開拓해 가는 教育의 敎道者같은 모
습을 읽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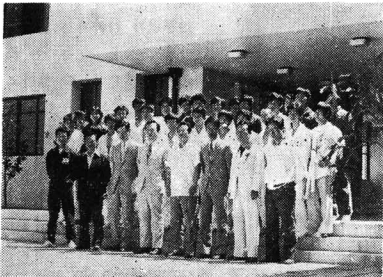
『跆拳道는 體育의 價値로서도 完全한 基礎體力을 要
求充足시킬 뿐 아니라 민첩성, 感應力, 忍耐力 그리고
闘志를 다 함께 갖춘 理想的인 運動인 뿐 아니라 精神
의인 素養의 啓發이라는 면에서도 大學과 特히 이나라
의 指導者의 位置에 서야 할 젊은이에게는 가장 有望한
種目임은 세상 강조될 必要가 없읍니다.』

이와 같이 評한 權教授는 그러나 全國의으로 跆拳道
指導者들의 자성이 좀 소극적인 것 같고 理論的

는 것이 아닐까요!
심지어 現代世界스프
츠도 作戰計劃 또는
知能的인 分析에서 이
제는 힘, 즉 體力을
바탕으로 한 지칠줄
모르는 激突이 우위에
서고 있을 程度입니다
우리 體育界도 이
런 精神아래 健全한
體育指導者의 양성을
目標로 하고 國家의
安保와 生産에 앞설
體力의 증진에 重點을
뒤오던 民族史에 입
각한 우리 傳統의 傳
承・發展에 焦點을 맞

研究가 더 持續的이어야만 할 것이라는 따뜻한 寸評도 잊지 않으면서 저희 學校에는 가장 훌륭한 교수진을 갖춘다는 의도아래 이미 축구의 趙成達 陸上の 장흥성 기계 체조의 이재광 핸드볼의 강인섭 등 국가대표의 중견들을 초빙한데 이어 새로운 跆拳道科目에 鄭甲淳 씨를 教授로 초빙한 것에 자부심을 갖었다.

『1973학년도부터 체육교육과에 정규과목으로 매학기 二학점씩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태권도를 校技化하기 위해 特活의 學點을 또 跆拳道로 統一시켜 지금은 2학년까지 총 10학점 그리고 졸업때까지는 16학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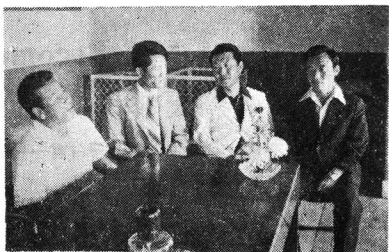
(學長님과 (左에서 네번째) 함께 本館에서)

태권도로 채우고 있으며 이론 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 실기시험은 승단심사로 代置한다고 밝혔다.

특히 1학년 전공필수의 6학점이 체육계론 2학점 특별학점 채점은 1학점 일반구기 1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이 태권도가 얼마나 거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鄭石煥學長은 跆拳道를 배우는 학생들과 포즈를 취해 주면서 『國籍있는 教育—國家에 奉仕될 수 있는 教育이 저희 目標입니다』라고 斷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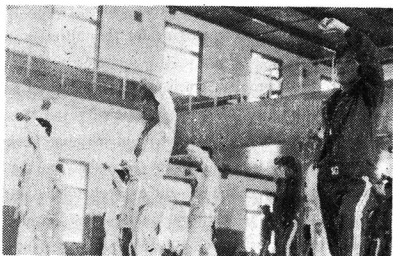
「教育時間에도 반드시 道服을 着用하고 몸세와 기본



(跆拳道를 채택하게 된 동기를 說明하는 權 主任教授)(左)

동작을 연마하여 理論的인 교육을 받는데 鄭甲淳교수는 하루의 많은 時間을 武藝圖譜通誌, 跆拳道敎本과 跆拳道誌까지 동원하고 研究하여 강의案을 作成하기에 餘念이 없다.

엘살바도르에 파견되었던 정만순 사범이 跆拳道部の 코치로 강의 時間에 助敎로 큰 도움을 주고 있는 淸州大學의 跆拳道교육이야말로 跆拳道歷史의 한 획기적인 발판이 될 것이며 跆拳道國技化에 기대하는 宗主國의 새로운 면모가 아닐수 없었다.



(跆拳道몸세 時間)

(45페이지에서 계속)

곽 기옥(Kwak Ki Ok)

(27歲 協會五段)

仁川工高機械科를 졸업한 곽기옥 사범의 出國對象國은 아프리카文明의發祥地인 이집트의 카이로. 韓戰 中東戰爭의 戰役으로 國際政治界를 장식하고 있는 이 나라는 中立國으로서 일탈의 不安感이 없지않다.

1960년부터 跆拳道에 投身하여 1971년 4段에 昇段했고 협회의 제1기 지도자 교육수로, 국기원 준공식에서 시범단으로 활약했으며 제5기3급심판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획득했으며 현재 선수 창설한 한영체육관의 師範.

곽사범은 選拔된 所感을 『來年の 世界大會를 앞두고 世界에 成長하는 國技跆拳道를 宗主國 國技院입장식에 敬양해야 한다는 각오가 되어있습니다만 最善을 다해 장애와 싸워볼 뿐입니다』고 밝히면서 굳게 입을 다물었다.



One Does Not Become a Master Over a night

太平洋— 건넌 跆拳道 師弟의 情

윤 현구사범—William Milewski—

1955年生의 碧眼의 美國少年이 故鄉인 Worcester Massachusetts를 떠나 太平洋을 건넌 韓國에 왔다.

韓國에 온 目的은?

跆拳道의 宗主國이기 때문
에——

윤현구사범이 太平洋을 건너 이륙해놓은 Massachusetts의 한 道場에 Lawrence Josti라는 美國人師範을 가르쳤고



(왼쪽이 윤현구사범 오른쪽이 윌리엄 밀레위스키)

이제 그 弟子가 韓國에와서 跆拳道를 배우겠다는 友情的 結實!

跆拳道가 精神과 肉體面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는 修練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누구도 하루밤에 숙달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外國跆拳道界의 초보자들에게 도움이 될 좋은 글이라 생각되어 여기 실는다.

.....(편집인 주)

To me Taewondo is a process of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ing which is unsurpassed by any other "Art" in the world. What makes Taekwondo so superior are its teachers and its students. They work closely together striving for the ultimate in human capability through the genuine spirit of the "Art."

Taekwondo requires much work, both mental and physical. Many years must be spent with diligent practice in order to achieve proficiency and those years are never lost and one never regrets having spent them. No one is incapable of learning Taekwondo because the teachers are experienced and have a time desire to help their brothers along on the path to knowledge. But, a teacher can only do so much, it is up to the student to work to the best of his other ability.

A true desire to learn must come from within, and to learn one must work diligently. Patience and strength of character are also very important in training. One does not become a master over night.

Words can't describe how to know and feel Taekwondo. One must experience that for himself.

I have been Taekwondo student in the United States and now I am in Korea, its homeland of Taekwondo. I encounter many difficulties, since I don't know the language and am not familiar with Korean custom. But my love for Taekwondo is greater than any difficulty that I can face.

Today Taekwondo is rapidly becoming the number one sport in the United States and all world. This was made possible only because of the dedication expressed by those involved. And to ensure further growth of Taekwondo we must continue to work together and help one another as we have been doing.

I have studied Taewondo for only two years, but I think I have learned much and I hope to learn much more in the year to come. My teacher Mr. Lawrence Josti in the United States and Mr. Hyun Ku-Youn in Seoul are both outstanding men and very good teachers. I can't express enough my thanks for what they have done and are continuing to do for me.

My only hope is that I am worthy to be their student. This is what I truly feel for Taekwondo and I hope that this brief essay will help all my brothers who study Taewondo.

대통령기 쟁탈跆拳道大會 觀戰 所感

金 桂 洪

(大學聯盟理事)

「國技跆拳道」格闘技의 호프인 태권도는 韓國 固有의 武道임으로 온 國民이 더욱 認識을 드높이는 가운데 스포츠 文化財로서 누리에 알뜰하게 꽃피울 것이 期待된다. 7월 18일 下午 2時 大統領 下賜旗爭奪 태권도대회가 현대 건축미를 자랑하는 國技院에서 수많은 愛好家들의 성황리에 吹奏에 맞추어 閉幕되었다. 金雲龍협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선수대표 선서는 건국에서 모여든 健兒들의 道服차림도 산뜻하게 메어플레이를 다짐하는 늑늑한 모습들이다. 公開行事로서 南大門국교 어린이들의 시범경기는 훌훌 메운 팬들에게 한여름의 더위를 잊게하고 테크닉과 유연한 몸맵시는 팬들에게 스포츠 교육은 어릴때 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마음 가짐을 새삼 느끼게 한다. 다시 네델란드 수련생의 異色の 인 시범경기가 환희에 넘친 拍手과 더불어 妙技百出! 마치 TV와 스크린에서 視聽하는 리드미컬한 스포츠모션은 정녕 武道이기 전에 藝術性을 지녔다고 하겠다 이들 宗主國을 찾아 연무수련 하는 앞날에 행운이 깃들기를 빌며 더욱 國威宣揚에 힘써줄 것을 바랐다. 오늘날 跆拳道가 세계적으로 普及한 可能性이 짙은 것은 그가 지닌 特殊性에도 原因이 있겠지만 온 몸의 部位를 動員한 利器로서 多樣한 플레이에 있다고 하겠으며 게임의 스포츠화 映像과 같이 스릴 緊迫感과 다이내믹한 동작은 팬들에게 情感을 느끼게 하는 데 要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競技는 A,B 양쪽 코오트에 나누어 靑紅色 호구의 몸차림도 가볍게 주심의 구령에 따라 서로 상례한 다음 2분간의 숨가쁜 게임이 계속되었다. 足技와 手技로 연결되는 이 게임은 아마추어답게 판가름 하기가 어렵다.

순간 想念에 잠겼다. 이른 봄 日本體大를 찾아 들었을 때 空手道部의 活動狀況을 엿볼 수 있었다.

經濟動物(Economic Animal)을 自認하는 그들이지만 모든 교육은 어느 때 보다 활발하다고 指導者로 부터 說明을 들었다. 軍國主義가 퇴색아날 것 같다고 묻자 그는 서슴치 않고 「그렇습니다」 답한다. 차야드르 2년간의 校內경기수 914게임을 分析한 結果 정권적르

기 60%, 앞차기 30%, 돌려차기 10%로서 돌려차기 으뜸인 한국과는 對照의 現象이다. 앞으로 兩國間에서 國際交流의 競技가 이루어지도록 마음 한구석에 바랬다 본교 선수의 게임임을 알리자 勝利를 다짐하는 拍手를 보냈다. 스리 라운드 戰績은 期待와는 달리 無勝負였고 計體量으로 運命을 가름하는 순간은 추첨으로 끝났다 敗者의 쓰라린 心情을 慰安하려고 다음 기회를 約束한다. 美國人 로이(Roy)가 상냥한 얼굴에 웃음을 띄우며 가까이 다가왔다. 「안녕! TV로 알았지」 메인스터디룸에 자리 잡았다. 매스콤 報道가 있을 때면 참석하는 그가 정녕 文化國民임에 틀림없다. 오늘날 선수들의 컨디션은 力不足이다. 父母들은 스탠드에 다소곳이 앉아 콜라 상자를 선수들에게 보낸다. 그들의 성의에 보답할 것을 다짐하며 훌을 나갔다. 다음날 새마을 奉仕隊를 出發시키고 국기원에 뒤늦게 到着하자 喜悲가 서로 엇갈렸다.

오늘날 孫子の 메어플레이를 불 心算으로 期待했는때 意外의 負傷을 당한 것이다. 이즈리친 老顔의 눈시울에는 눈물이 자시지 않았다. 獨白처럼 그는 傷處는 입어도 이겨야 할 게임인데 억울하다고 몇번이나 되풀이 한다. 擔當者의 心情은 몹시 괴롭기만 하다. 父兄들을 慰安하는데 안간힘을 기울였다. 바로 格闘技術의 어려움이 온 몸을 감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武道인이 되기 전에 먼저 人間이 되라. 현대교육의 方向성이기도 하다. 오늘날 多樣하게 발전하고 있는 스포츠 플레이는 高度의 判定法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팬들에게 信賴感과 理解度가 빠르도록 研究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現象力으로 모든 스포츠競技는 大眾속에 익트리 마련이다. 로이(Roy)도 팬의 立場에서 게임 끝맺임에 勝負를 가리지 않고 팬과 더불어 자 라운드별로 採點 또는 信號로서 判定하는 것이 좋겠노라고 한다. 다시 일본에서 ick복싱 審判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국기원을 나서는 길에 산돌바람은 유니폼차림의 선수들의 피로를 씻어줄듯 시원하게 불어온다.

정녕 七월은 태권도의 계절인가 보다.

눈보라 속에도 國技의 父情이

—金在香(父, 47歲) 金京珠(女, 光明中學) 父女의 이야기—

하얀 눈이 온 大地를 뒤덮는 겨울날이나 지루한 비바람이 끝없이 내리는 장마철에도 「시흥군 광명리」에 있는 國民學校 맞은 便에는 三輪車 한대가 서 있다.

저녁 일곱시부터 두 시간 정도—

이 三輪車는 지난 二年 동안 이곳을 떠나 본 일이 없다.

이 車의 主人이 貨物運送業을 하는 金在香씨이며 車가 머물러 있는 건물의 이층엔 跆拳道를 익히는 어린이들의 氣合과 발을 구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國技를 기르는 한 아버지는 自身の 生業도 中斷한채 한 딸의 成長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여자가 跆拳道를 이토록 熱心히 한다는 것도 神奇하졌지만 아버지의 이 精誠도 보기 드문 것이다.

이런 솔한 精誠들이 모여 跆拳道는 國技로서 더욱 받들음하는 것이며 民族魂으로 昇華해가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 ☆ ☆

金在香씨는 全南 長城에서 3살때 上京 6·25사변이후 23年間을 지금의 京仁中間地點인 시흥군에 살면서 슬하에 1男4女를 두고 있다.

그러던 지난 71년부터 次女인 京珠嬢의 下學時間이 늦기 始作했다. 夫人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在香씨가 다그쳐 묻자 『跆拳道場에 틀러 구경을 하고 온다』는 것이었다.

跆拳道를 해보고 싶어하는구나? 하고 아버지는 『그러면 道場에 나가 보겠느냐?』 짐짓 떠 보았다.

이렇게 해서 京珠는 좋아라하고 道場에 나갔지만 第二의 故郷이 된 客地에서 딸을 키우는 父情은 착잡했다. 「기껏 두달이면 그만 두겠지?」

「역센 사내들이나 하는 跆拳道를 제집아이가 견디어 날까?」



(中央이 아버지 金在香씨. 左가 二段 金京珠嬢)

곳은 일도 가리지 않았다

이것이 大見해 아버지도 남몰래 自己 일을 쉬고 三輪車를 세운채 딸애의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 딸도 두달이 지나고 찬 겨울이 街路樹의 모든 잎들을 떨어뜨릴 때도 꺾이지 않고 跆拳道를 계속 修練했다

이 때부터 아버지도 跆拳道求景에서 딸애의 모습을 影像처럼 뇌리에 담기 始作했다. 그리고는 스스로 修練은 하지는 않았지만 完全히 跆拳道에 一家見을 이루게 되어 버렸다. 이를 따라서 딸 京珠는 6級, 5級…… 1段이 되었고 六級審査를 볼 때는 거꾸기로 相對 사내 아이를 「따운」시켜 素質이 있구나 하는 자부를 가졌다.

드디어 漢城女高에서 있었던 昇段審査에서 품세와 겨루기를 異色の인 女子인 點에 박수를 받으면서 드디어 黑帶를 매게 되었다.

이때부터 아버지는 더욱 確信에 가득 찼고 3年동안 딸애와 함께 道場에 다녔던 自身을 보람차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京珠嬢은 今年 2段에 昇段했으며 昨年 시흥군 교육감기 쟁탈때 남자애들을 제치고 웰터급에서 우승했다.

지도사범인 김용화 6段도 이들 父女의 熱誠이야말로 사범인 자기를 감동시킬 정도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國技의 꽃으로 피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또, 아버지는 딸이 『跆拳道 國威宣揚에 앞장설 때까지 事故없이 技術을 연마 하기를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今年들어 跆拳道가 國技가 되었는데 애가 배워 놓으면 동생(사내아이: 當時 4살)도 배우기 쉽고 時代도 달라졌으니 팬 참겠지!」

하는 온갖 생각을 하면서 주의깊게 京珠를 관찰했다.

그러나 딸은 밥도 잘먹고 더 明朗해졌으며 다른 애들보다 부지런 해지고



오스트랄리아의 國旗가 國技院에

—One More National Flag to Kuk ki won

李 俊 봉 (오스트랄리아 師範)

西紀 1770年 英國인 J. 쿠크에 依해 發見되어 流刑地로나 알려진 不毛의 大陸—오스트랄리아.

1803년에 들어와 겨우 移民이 始作되어 오늘날 人口一億三千萬, 面積 770萬415km²의 巨大한 땅덩어리—그리고 지금은 文化의 大陸의 한 자리를 차지한 嚴密한 意味에서 설.

나는 지금 여기서 “알차기, 열차기, 주춤서기, 팔째 일장” 등 跆拳道배우기보다 어려운 한국말 구령을 들으면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문득 지난해 이맘때쯤 서울남강 중학 英語教師로 在職한 當時 한국보이스카우트지도자 代表로 日本을 訪問했던 記憶이 되살아난다.

정식회합이 끝나고 나서 長技자랑이 있었다. 司會者는 한국 보이스카우트 대장의 特技를 보여달라고 紹介했다.

나는 가라테를 뽐기는 日本 少年들앞에서 용약 도복을 바뀌었고 나^가 “跆拳道”의 자세를 취했다.

觀衆들은 어리둥절하고 기가 질린 表情들이었지만 나는 품세로서 “팔째” “금강” “십진” 등을 그리고 몇가지의 격파와 모기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말로만 들던 태권도를 실제로 보고 놀라움을 禁지 못하던 表情이 지금도 파도 물결위에 어리어 온다 北九州市, 福岡市, 東京市, 靑年들의 歡呼하던 모습들이……

그해 가을 卽 1974년 9월 14일 오후 2時 드디어 祖國을 등지고 넓은 大地 호수땅에 내린 것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린 어지러움이 아직 가시기도 前에 어떻게 알았는지 T.V. 라디오, 신문기자들이 모여 들었다. 어리둥절한 여유도 없이 國技跆拳道를 普及한다는 작으로 인터뷰에 응했더니 이번엔 시범을 보여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고생한 보람은 있어서 시범은 意外의 큰 效果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여러 東洋武術을 보아왔지만 跆拳道의 威力를 보고 새삼 놀랐다”

“몇명의 가라메인을 단숨에 죽일 수 있느냐?”

—한국태권도는 싸우는 기술이 아니고 精神修養과 自己保護를 위한 武藝이다.

“당신은 世界 몇번째 順位에 屬하느냐?”

—나보다 훌륭한 태권도인이 너무 많아 헤아릴수 없다.

“跆拳道는 道術도 부릴 수 있느냐?”

—跆拳道는 合理的인 스포츠다, 卽 世界의 人種 地域을 莫論하고 男女老少 特性에 맞게 수련할 수 있는 武藝로서 우리 民族은 二千年前부터 이것을 修練해 왔다. 나의 오스트랄리아 訪問 目的은 우리의 固有文化 가운데 하나인 이 運動을 現代 競技로서 또 精神修養과 體力增進을 겸한 運動으로서 普及하기 위한 것이며 兩國間의 理解 增進에 있다.

“韓國에서는 어린이들도 跆拳道를 하는가?”

—國民學校로부터 大學校 女子로 부터 할아버지까지도 즐겨한다—

이튿날 新聞은 정갈 우스운 것이었다. 시범사진과 함께 “세계 제1인자태권도인이 호주에 나타나다” “이 춘봉이라는 이 사나이는 12명의 가라메인을 단숨에 처치할 수 있다.”

후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나라 사람들의 스포츠에 대한 熱意는 거의 狂의이다. 水泳, 테니스등은 世界의 頂上을 유지하고 있고 또 축구등도 靑壯하다.

그러므로 이런 흥분된 記事도 可能했으리라고 納得이 가게 되었다.

이 나라에는 이미 十年前에 日本의 가라메와 中國의

國術 등이 들어와普及되고 있었다. 이때를 前後해서 한국의 노계형사범은 유도사범으로 들어와 태권도를 보급하기 시작했고 이를 필두로 오영열, 조영래, 강규석 사범들이 힘을 합쳐 完全히 跆拳道 붐을 造成하고 跆拳道의 優秀性을 認識시켰다.

나는 跆拳道의 現代 競技化가 이런 結果를 가져왔다고 믿고 있다. 跆拳道는 古代의 遺物이 아니요 充分히 未來의 歷史에까지 適應할 수 있는 素地가 마련되어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런 與件아래서 지금 나는 南國의 太陽아래 비치담을 흘리고 있지만 이것은 分明 幸運兒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南오스트렐리아의 州廳 所在地인 “아델라이드”市는 女人의 이름을 딴 人口 140萬의 아담한 都市로 이곳에서 네번째로 큰 곳이다.

나는 이곳에 우리의 國技 跆拳道道場을 建立한 기쁨을 갖은 것이다.

낮에는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大學에 강사로 나가서 週二回씩 60名의 수강생을 지도하고 오후와 아침은三百名에 이르는 태권도수련생을 또 가르친다.

이곳에 처음 到着했던 昨年만 해도 가라테니 쿵푸(功夫)가 全部인 줄 알던 이곳 住民들은 이제 코리아의 跆拳道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동안은 정말 짧고도 긴 時間이었다. T. V. 放送局의 示範, 公園에서, 海水浴場에서, 또 學校를 巡廻하며 示範을 가졌다.

跆拳道道場!

이제는 이 곳 사람들도 跆拳道가 무엇인지 점차 그 認識度를 넓혀가고 있다. 世界에서 가장 自由를 사랑하고 또 즐기는 巨大한 性 住民인 이들은 이제 上級者들이 초보자들에게 道場의 規律를 가르쳐 나가고 있다.

그들로서는 낯선 무릎으로 꿇어 앉기, 앉구비, 뒷구비하는 한글 口領!

市內를 外出할 때도 트레이닝복을 입고, 등에는 “TAEKWONDO” 가슴에는 “태극기”를 달고 無百의 宣傳을 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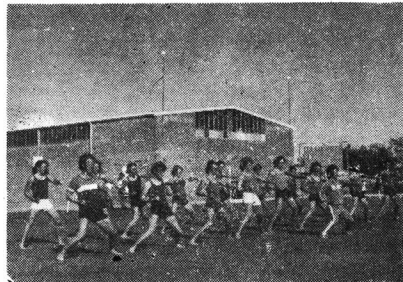
나는 海邊의 일렁이는 波濤가 검붉은 太陽에 고기치느리며처럼 뒤쳐이는 光景을 바라보고 있다.

『마른 精神아래 眞實을 다하면 神은 報答을 내린다. 中路에 끼어드는 피로움, 난관, 장애등을 얼마나 길게

받아들이고 包容하고 또 싸이는가 하는 것이 問題이다 주위에 구애되지 말고, 스스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開拓하는 길엔 꼭 그만쯤만의 열매가 맺는다』

跆拳道誌 十二號紙에 “이 슬픈 大地에도 햇빛이”라는 불우아동들의 태권도교습기사를 읽었다.

아! 어느 位置에 처해서던지 굴하지 않고 人類의 別이 되고자 하는 셋별같은 祖國의 어린이에게 나는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적은 돈이지만 150\$을 祖國에 보내기로 결심했다.



Wester Minster大學 강의장면

나는 돌아가야 한다.

修練生들이 기다리는 道場으로—

그리고 아시아 大會가 열리는 國技院의 廣場으로—

그리고 또, 跆拳道가 있는 一도 開拓한 世界의 여러 곳으로—

그리고 祖國의 품으로—

이제 남은 唯一의 일은 이미 계획된 方向대로 호주의 사범들, 선배님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오스트렐리아태권도협회회를 세우고, 國家를 代表한 이 自由人들이 國技院에 모이는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오스트렐리아 선수들이 그들의 국기를 가슴에 달고 국기원에서 또 어느 나라의 태권도인과 마주보며 人類의 未來를 向해 불태우는 志士들의 鬪志를!

註: 이충봉 사범이 보내온 金 150\$은 東頭川에 所在한 再建中學校 學生에게 跆拳道服으로 지난 6월 15일 傳達되었다.(編輯室)

(隨想)

거리의 詩人들

—「슈베트」의 連歌曲 『겨울나그네』의 피나레를 장식하는 “거리의 老樂士”에서나, 「차이코프스키」가 그의 交響曲 6番 “悲愴”에서 使用한 主題音樂에서나 우리는 가슴 깊이 젖어오는 人間性에 哀愁를 느낀다.
形言할 수 없는 이 共感의 거리에 오늘은 어느 詩인이 또 어떤 글을 남기고 사라져가는 것일까?—

梁 鐵 薰



Y어!

오늘 나는 實로 우연하게 그대가 보낸 “석장의 葉書”를 받았다. 아마도 그 便紙가 한꺼번에 내게 到着한 것은 그대의 不規則한 生活탓이거나 나의 여행을 즐기는 病맛일지도 모른다.

그대가 보낸 便紙는 나를 不安하게 만들었다. 그대는 무엇인가 不吉한 豫感에 사로잡혀 있는 氣分을 주었다.

그대는 가끔 M洞 酒店에서 소주를 마시고는 마치 풀없는 냇가에서 헤엄치듯 삭막한 사람의 물결에 섞여 “共同墓地 갈단 말야! 共同墓地!” 하고는 씩든 오징어를 배뺄곤 했었다.

그대 나는 이렇게 위로하고 싶어졌다.

“왜 그대에게는 自由가 있는데, 그대가 살 곳을 選擇하지 있는가?”

“왜 그대에게는 情熱이 있는데, 그대가 사는 곳을 改善하려 하지 않는가?”

“왜 그대에게 주어진 生命은 高貴한 것인데 그것을 批判하여 終局에는 쓸모없는 不平의 集積으로 비참한 最後를 맞이하려 하는가?”

그러나, 나는 위로 할 수 없었다.

무엇인가 나의 良心이랄까? 自激之心이랄까? 하는 것이 입을 잔지럽히고 있었으니까—

그대는 J市에 가 있었구나!

그리고, 내게 便紙를 보낼 수 있도록 安靜을 찾았구나!

그대에게 무엇인가 나도 이 삭막한 市街에 피어나는 人間愛를 돌려줘야지!

I. 都市를 떠나면서

점심時間!

太陽은 캐스의 오염속에 호빛이 빛나고 빌딩이 들어선 골목엔 한숨의 그늘이 길었다.

그림자와 陽光이 얼룩진 거리엔 대낮임에도 형광등을 밝혀야 하고 가게들은 울긋불긋— 그 옛날 슬펐던 뼈에로의 치자 같은 벅타이를 내진다.

世人の 눈이 너무나 활아버려 색이 바래버렸을 것 같은 그 타이들은 부지런히 뒤바뀐다.

크기가 바뀌고 무늬가 달라지고 또 어제의 자리와 오늘이 진열이 바뀐다.

한 사나이가 안개속의 太陽처럼 호빛한 눈으로 그 안을 바라보고 있다.

一分! 一分!

그 사나이는 진열장속을 요정의 對活를 바라보듯 夢
靨하고 及其他 스스로 幻想의 王子가 되어버린다.

하루의 生活!

새끼의 밥과 交通費와 茶값, 월부, 税金, ……… 그
의 머리는 어지러운 그네처럼 수관속에서 돌고 비뚜러
진 입에서는 한숨인지 웃음인지 모를 탄식이 새어나온
다.

그가 몇푼의 돈을 내고 그 主人公이 되었을까?

靈魂을 팔아버리고 이제는 뼈가 가벼워 걸을 수도 없
는 슬픈 짐승이 보이면서도 딱히 들어갈 수 없는 진열
장속의 過去를 아직도 바라보고 있다.

거기 夕陽이 되고 또 밤이 되어 불빛이 더욱 환해질
때 狂亂하는 네온위의 별들은 울고 있다.

Ⅱ. 空 港

활주로만이 뻗어있고 無限한 하늘이 펼쳐진 送迎臺
에서 女人의 호느낌이 애처롭다.

港口!

물결이 있고, 뱃머리가 視野에서 눈물의 안개와 더
불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뱃고동소리에, 갈매기
울음에, 파도소리에 울던 時間은 이제 젓트機의 爆音에
휩싸여 버리고 허전한 활주로 위에, 또 하늘 위에 구
름조차 無心하다.

아! 이 無限한 사막처럼 삭막히 펼쳐진 現代여!

Ⅲ. 눈 물 (Ⅱ)

바깥 世上에 나가면
그렇게 할 일이 많은 것도 아닐테
나를 지치게 합니다.

目的없는 걸음이니—
덧없는 社交니—
結論없는 論爭이니—
나를 피로케 합니다.

끝목마다, 不滿과

失望과

시름없는 어제가 겨울 窓

성에처럼 돌아나선
人間의 表情을 얼구어 버립니다.

한잔의 술도,
한술의 밥도,
나를 취하게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거리에서
나는
짐으로 돌아가기 始作합니다.

볼때지 못해 추운 房
반겨줄 이 없는 쓸쓸한 房!

거미가 기어다닐만큼 검은 내 房은
그러나,
방탕한 친구가 돌아왔다고 밝게 웃는 것처럼 보입니
다.

외로운 겨울 밤!
이 房에 누어 흘리는 나의 눈물은
金鋼石처럼 별빛에 반짝 어리웁니다.

☆ ☆ ☆

Y여!
요즈음은 윈 일인지 잠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分明 업속한 것이다.
이 심각한 고뇌의 生活은 그지없이 明朗하고 肯定的
인 것이어야 한다고 나는 믿고 있다.

思考가 많을수록 行動이 더디고, 行動이 앞설수록
失手를 저지르게 마련인 것이 人間이어서 우리는 “中
庸”도 배우고 때로는 理智가 위다, 또는 行動이 먼저
다 하는 부질없는 論爭도 한다.

요즈음 人間의 內面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 볼수
록 生命의 神秘와 人間性의 高貴함을 느낀다.
부질없는 思考나, 知性的 빠짐이나 虛榮이 얼마나
이 自然을 훼손하고 있는 가를 뼈저리게 느낀다.

Y여!
어느 時代이건—모든 人間들이 얼마나 人間답게, 또
自然 그대로 살기를 갈구했는가가 重要な 것이라고 나
는 느낀다.
우리 이 날을 위하여……………

木手

鄭仁英

겨울이란 木手에게 배고픈 季節이다. 비탈에 의지한 아파트의窓들은 西北風에 벌고 연탄불은 아궁이에서만 땀돈다. 어머니와 네살배이 딸은 아랫목에 쭈그러앉은 채 누빈 이불로 어깨를 감추고 만삭이 된 아내는 슬며시 자리를 떠서 부엌도 돌아보고 장독도 들춰보지만 딸은 모두 먹어버렸는지 언제나 입을 봉하고 있다.

내 糊口가 되고 있는 木手란 대저 家具木手와 大木으로 불리우는 建築木手로 兩分된다. 基礎를 파고 門틀을 세우고 지붕공사로 大木의 일이 끝나면 창백한 얼굴에 五尺三寸 정도의 작달막한 家具木手が 나타나 이리저리 자를 맞춰보곤 여인처럼 가냘픈 손으로 끝질을 시작하는 것이다. 겨울이 닥치면 家具木手들은 그들의 工房으로 돌아가 야고를 쪼이고 풀칠을 시작하지만 우리들은 꼼짝없이 드러누워 명하니 천정의 무늬만 헤아릴뿐 도리가 없다. 아침을 열한시에나 마치고 저녁을 다섯시에 치우면서 밀린 노임을 받아 낼 궁리가 고작이다.

1. 겨울 날

이런 겨울을 두터워하며 바삐 돌아가던 11월 22日は 나는 金득수를 만났다. 독립문에서 汶山통일로로 이어지는 國道는 李朝시대에는 서대문밖으로서 朋나라로 통하는 길목이었다. 적은 고개 둘을 넘어 말을 기르던 驛村洞이 있고 또 박석고개를 지나 把發馬를 屯쳐놓은 곳이 지금의 舊把發이다 이곳 도로변이 요즘은 신흥주택지로 번모해왔고 나는 줄곳 여기에 밥줄을 대고 있었다.

갑자기 땀하니 광목포장이 들쳐지더니.

「위대 바에를 다 다니누면?.....」

金득수는 술잔이 출렁거리도록 내 어깨를 치고는

「목욕탕 주인집 갈때가능가?」

「글쎄? 올해는 이걸로 시마이(끝내기)제?」

「노임은 다 받았능가?」

金득수는 술잔을 받으면서 탄소리를 지꺼렸다.

「거참 딱한번 종네 집에 바쿠(車輪)가 붙었구면 그태!」

主人은 무엇인가 흥이났건지.

「해해—쿨리기만 하다마다요. 이놈을 처억 끌고 爆炎之天八月中에 냇가에다 발쳐노면 龍宮가는 토끼보고 名勝寺刹 찾아가면 金剛力士 부릅뜨고, 道路邊에 내놓으면 一級要地 찾아하네! 税金받으러 찾아오면 막걸리집 갈구른다—허허 설설 도망감나마요」

원 수도다 스텝다.

「시끄럽구면, 술이나 한잔 주요!」

「김장판도 어영구영하느니 참말로 큰일이구면!」

「때되면 다 어찌는 수 있겠지!」

「어이—참 일하나 안혈랑가? 거참 묘한 일꺼리기는 현디—」

「도둑질 빼놓으면 안할 수 없지」

「그게 좀 뭉뚱하디나께.....」

金득수는 작두기를 하나 우적우적 씹었다.

2. 十一月 二三日

어제밤 金득수가 말은 일운 함께 하기로 했다. 후시겨울을 낼 연탄이라도 얻으리 모르니까.

우리는 배스정류장에서 내려 바람막이를 찾아 한마디씩 나누었다.

「거—高技士있잖아? 왜 말어 秘書官동생말어.....알것능가? 年前에 헌집을 하나 샀느디 이걸 헐어분자베.....을 겨울이야 붙장 다 왔으니 기초하고 벽돌이나 쌓을면 무슨 수가 있나비여. 노임은 연내로 준다니께.....」

나는 공포를 뜨겁지 않도록 돌려 잡았다.

「현디—이놈의 세상이라니 어제밤에 가보니께 집은 거미줄이 짙 들어칸 廢家인디 육식혈놈의 거뿔뿔이들

이 들었드란 말여……」

나는 담배를 손으로 부비꼬며 땀더름이 금속수를 노려보았다.

「캐리지 말드라고, 宋씨 시켰으니 알아서 하겠제…」

우리는 도리없이 군침을 삼키고 길을 건너 市場다리로 나갔다. 이곳은 다방도 아니요 정류장이나 투전판도 아닌데 언제나 이 時間이되면 허름한 사내들이 모여들기 마련이다. 나도 수년간 이들과 아울러 할일 없이 하루 해를 바쳤던 적이 있었다. 금속수는 그들중 심통 좋은 人夫 셋을 손가락질하더니 함께 냇가를 따라 남서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약 5분 지나니 웬 祭閣이 나타나고 그 동성이름 널자 잡자기 平原이 툭 터져 나타나는데 정녕 水色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의지한 남향으로는 동성이따라 계단식으로 가즈르면 집들이 들어섰는데 왜 그런지 산만한 기분을 주었다. 나는 壽命을 타고난 人相을 대하듯 한눈에 이 집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동쪽으로 문설주만 남긴 대문옆에 방금 쫓겨난듯한 거렁뱅이 빛을 달아낸채 뻗한 남쪽 뜰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눈에도 스무평 남짓한 본체는 유리창을 다 메어낸채 벽지만 메마른 바람에 필적거리고 수북히 쌓인 마루 먼지 위로 드문드문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있었다. 그사이 불행한 할머니와 부인네와 갓 젖을 땀 두어린 애들은 추위로 이를 맞닥드리면서 거리를 헤매고 있을 家長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도 보낼 수 없는 처지였다. 부인은 도리없는 불행속에서 파괴될 집을 추스려보려는 집념에 붙타고 있었으나 내 아랑곳 할 바는 아니었다. 기왕 지붕밀을 떠났고 이제 허가장을 내세워 힘어버리면 그만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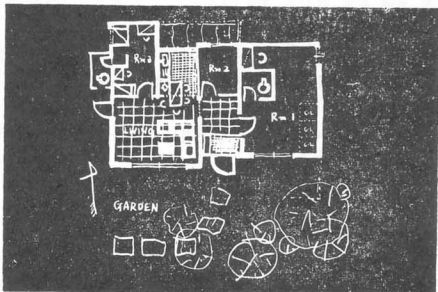
「허허—혼이 나갔는가비여. 사다리—가져오드라고 사다리—그리고 여봐 宋씨는 이 사람을 뒤통으로 돌리고 개와장 던지곤 깨지잡게 쟁드라고 잉! 뎡기(페인트)만 칠하문 싹 아다라시(新品)로 뉘것인게!」

나는 뉘것으로 돌아 잡담 제하고 사다리로 올라갔다. 狂風이 치마를 들치고 뻗 불어케졌으나 등을 돌려 피해버렸다. 한장한장 기와를 벗기면서 집을 짓는 것이 직업인 나는 그것을 허물어버리는 것이 길가에 버려진 저 아낙의 치마를 들치는 것만큼 느껴졌다. 그러나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무게의 기와작을 일정한 방향으로 던지다보니 만사를 잊어버릴 수 있었고 의외로 일은 빨라 석양무렵에는 지붕틀을 일부 메어 모닥불을 지피

면서 기와밀의 판자들을 뜯어낼 수 있었다.

어이—이건 웬 떡이여 육박하는구만, 四分(十二mm) 합판아니여 이거 참만하디, 조심조심 뜯으라꼬—요놈을 뺄들리론 일당은 조이 나오겠네!」

또 똑같은 크기의 합판을 메어내며 上檼위에 버티고 선 나는 잡자기 신들린듯 묘한 느낌에 빠져들여갔다. 꼭 어디서 본 것 같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내 몸 안에서 살아 움직여리는 것같은 骨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윽고 여항에 물이 차오르듯 바닥으로부터 창틀위로 어둠이 잿아들고 매신 모닥불 빛이 새어들도록 나는 해괴한 이 전들의 잔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현



판으로 들어오면 반으로 갈려 오른쪽은 방인데 그것이 다자로 되어 가운데 목욕탕을 품고 底邊은 문을 열고 옷장이나 화장대정도 들어앉았있었고 中央에는 아직도 불박재작이있어 거기서 무슨 공부나 했는지 싶다. 또 그윽변이 틀림없이 침실이있을게다. 어찌나 친근한 느낌이 드는지 이 침실 크기는 직사각형꼴인데 마치 벗어놓은 남녀의 의복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주그려 앉으며 거실과 주방과 그 뒤로 방이 아직 둘이나 붙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 방들은 門을 마주하고 있어 자박끼리는 물론 응접실 부엌 거실까지 연락되어 있었다.

「어이 딱질러 한잔 하키여!」

금속수가 먼지먹은 소리를 지른다. 정신이 들자 쓴웃음이 나왔으나 망치로 上檼의 못을 빼어 아래로 내던지며 뛰어내렸다.

「上檼술이 머 이리 시시하노? 돈 8백원 받고 지금 댁시냐 말지요?」

하고는 인부 하나가 상량을 발로 툭차버렸다. 마침 거실 창을 넘어오던 나는 상량위에 단단히 붙들어뻬 木합에 눈이 멎었다. 나는 더욱 기이한 생각에 사로잡히며 상량을 가로 깔고앉아 불빛에 어울리는 사내들의

명암을 노력하며 술잔을 비웠다.

3. 그 날 밤

헤어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쩔쩔 함을 꾸서는
넣었으나 이상한 흥분은 감을 길이 없었다. 괜히 낙선
필줄 알면서도 주택복권을 사본다든지 또는 오늘저녁
집에 돌아가면 옛적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갑자기 거금
을 들고 기다리리라는 기대와는 좀 다르게 이 상자는
내 인생에 커다란 실망을 줄것만같은 기분이었다. 집
안에 들어서자 먼저 식구들이 잠들기를 기다려서 번소
에 가느라 몸을 한번 뒤쳐어 불을 켜고는 그것을 열었
다. 먼저 종이 색은 매캐한 냄새에 뒤이어 나온 것은
어이없는 中板二節 정도의 도면이었다. 이 도면의
빈틈은 깨알같은 글씨들도 적혀있었던 모양인데 먹펜
으로 쓴 부분을 제하면 모두 산화되어 판독할 수 없었
다. 다만 두서너 통의 편지가 거기 동봉되어 주인공들이
廢家의 내력을 더듬을 수 있었다.

『相日 君！

……………이제야 본격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군 !
나는 인간자체라는 것을 자연과 分離해서 생각해본 일
이 없네. 그것은 오직 宇宙內 따름이네, 인간이 이 세
계의 일부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곧 우주 하나가 있을
뿐이라네. 그러므로 인간도 집도 또 세계도 하나의 우
주라는 말인데, 기이하게도 서양철학자들은 별치 해를
바라 우주를 보고 글방에 들어와서 그것을 종이 위에
 옮겨놓네만 나는 이렇게 나누어보지 않고 인간이 결친
의복정도도 주택을 생각하는 것인데……』

나는 이 평범한 廢家와 이 소리가 그 어떤 연관 하
나라도 갖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사진으로 보니 남창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쪽 인왕산으로 해가 뜨고 서오능으로 해가 지니 너는
물위 의자에 앉아 天心을 들여다 볼 수 있겠구나』

그만 실망을 준 도면 뭉텅이를 땡겨쳐 버리고 싶었
으나 호기심이 도면을 들리지 않을 수 없게 했다.

『……………답이라고 하는 것 즉 울타리 또는 地境은 그러
므로 인간이 임의로 정할 바 못된다 생각한다. 자연이
준 人間經營의 범위를 또한 교도소의 담같은 철책으로
막아버리고 그 안에 폐쇄되어버린다는 것은 마치 누에
가 명주의 집을 지어 그 안을 스스로의 棺으로 삼는다
할진대 다만 無益한 집이 누에고치의 대신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인간이 스스로 자연과의 인연
을 끊게 되는 것을 表證한다는 것이 내게는 참을 수
없는 갑갑증을 준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피난처라

든지 인간생존의 보호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아무리
생존이 경쟁이라고 한대지만 무미한 전쟁이 아닌바에
야 채택은 不要한 것이다. 매문은 그저 그 사람의 거
처를 알리는 것이요, 답이란 大屠가 채전을 상하지 않
고 家細事가 밖으로 내보이지 않을 정도면 된다.

그러므로 네게 충고하고 싶은 것은 내 生과 우주와
또 이웃이 다 하나일 수 있고 그 조화를 이루도록 해
야한다. 도시는 계획이나 통제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모든 시민—사회—즉 인간의 총의가 스스로 開花함으
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아래서 지어지는
집과 그저 지어지는 집은 외형은 같을지언정 그 뜻하
는 바가 다르니 이것으로서 인생을 헛되이 살았는지
아닌지를 가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

그 뒤로도 상당한 분량이 細事가 적혀있음이 분명하
였으나 술기운과 막 다수어진 육신은 어느덧 잠기운에
젖어들어 버린 모양이었다.

4. 十一月 二三日 十一時

나는 겨울이 와버린 사람처럼 十一시에 눈을 떴다.
그리고 어젯밤의 도면이 그대로 땡겨쳐진 것에 소스라
쳐 놀랐으나 집안 식구들은 눈을 반짝 거리면서 가장
이 일거리를 하나 마운줄 알고 생기에 넘쳐있었다.

밝은 더없이 푸른 하늘 밑으로 거대한 포복을 두른
듯 도심의 껍스가 이론 회색층에 덮이고 그 아래 만지
면 부스러질 것 같은 잿빛 뿔뿔들이 찌푸리고 있었다.
나는 아침상엔 결눈질도 않고 도면을 제껴 보았다. 그
첫장엔 案內圖와 배치도가 있었을 것이며 두번째장 평
면도엔 예의 그 글씨들이 박혀있었다.

『현관 入口→마다름 골목, 내부로 들어가면서 문
은 닫혀진다. 갑갑함→그리고 거실, 확 띄어진 창
(창으로 바람이 들어온다. 天氣의 부드러움 四季의
변화 →通風, 建築物의 부식방지 및 인간의 심폐기
능, 햇빛이 스며든다. 四季의 太陽 각도, 그리고 引入
點, 熱源이 되는 外氣의 따스함, 전조, 위생. 그리고
……. -전망, 美의 관점, 아—자연의 아름다움이며—
달려가고 싶은 충동이며→경관) 창—그 앞의 의자,
안락함. 맛은편의 벽—혀물어버리고 싶다. 아니다 거
기에 그림을 놓자, 그리고 음악과 어린이들의 웃음소
리—하하하……』

나는 도무지 呪術에 홀린듯한 기분이었다.

『은둔—周易? 陰陽—人間的 內部 구조. 불을 때고

밥을먹고 고래를 지나 구들을 덤히고 내장을 지나서
外氣를 따르는 순환? 亞字房이란 무슨 형태? 그리고
여기에는 무슨 참고의 표와 文獻이 있고 또 圖面이 붙
어있는 모양인데 종이 붙어 도무지 알아 볼 수 없었다
그렇지! 문득 이 집의 구들을 조심스레 뜯어보면 알
겠다는 메 생각이 미치자 이 廢家에 대해 서있던 흥분
이 전신을 휘감았다. 그러면 혹 이주인의 행적을 알고
좋은 일거리라도 생길 듯 싶은 격동을 감출 수 없었다.

5. 그 날 오후

木手! 내가 어떻게 해서 톱으로 썰고 대패로 밀고
팔로 다듬어 못을 박고 그것으로 목숨을 유지할 쌀을
구해 왔는지 몰가해 하기만하다. 이 문제를 누가 풀것
인가? 그것은 나 아닌 어떤 천재라 해도 좋고 경제학
자라고 해도 좋다. 아무튼 나로선 모를 일이다. 그렇
다. 다만 얘기하는대로 먹줄을 치고 비뚤어지지 않도
록 톱질을 하노라컨 식구도 있어버리고 나도 있어버리
고 나는 스스로 톱이 되고 나무가 되어 스스로 썰고
썰리워져 왔으니까—그리고 돈이 생기고 그것으로 족
하였다. 지금까지 지어온 百여동의 집들이 물속에서
해업치듯 환영을 만들면서 그 하나하나의 力事가 그렇
게 절박하고 담과 사라진 아우성으로 완성되었으면서
또한 이런 명정한 背面도 있었나 하는 의아를 종래 버
릴 수가 없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일을 맡을가 노심
초사했고 또 맡겨진 일은 노임을 메울까 고심 했으며
이것이 끝나면 ❶ 최초의 초조감에 빠져 들어 갔었다.

6. 아내의 비명

속이 쓰리고 눈가끝이 끌어당기는 듯한 아픔으로 심
란해 있을 때 문득부엌으로부터 꺼져드는 듯한 비명
이 들렸다.

「으—으으읍—」

마치 그 소리는 열번의 호홉을 마셔버리고 스무번의
내뿜기를 그쳐버린 듯 했고 허공의 공기를 두손에 쥔
채 거기 의지해서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나는 벼락
을 맞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오랜동안 있
었던 아내의 고통이 내게 읊아온듯 몸을 부르르 떨었
다. 어머니가 새파래서 뛰어들고 겹걸에 눈을 뚱그렇
게 뜬 계집에는 악물쓰며 울어댔다. 무엇인가 독을
넘은 물결이 이 방을 삼켜버린 듯했다.

나는 무의식중에 아내를 끌어올리고 들쳐업었다가는
안아 보고 마침내 부축을하여 까마득한 비랑 계단을
비껴 걸으며 내려가 큰 길 측매에 기대었다. 놀란 이
웃 아낙네가 붙들어서 택시를 타고 우리는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내는 칸막이 건너 처치실로 사라져
버리고 옆집 아낙네는 이것으로 틀림없이 살았다고 작
정을 하고는 나를 썩건기리며 노려보았다. 나는 평소
말을 먹어버린 아내와 옆집 부인과의 차이를 생각하며
피익 웃었다. 경황중에도 치료비를 준비해야한다는 생
각이 들었지만 이 아낙네는 밀린 팔래와 울어제칠지도
모르는 아기와 남편의 저버림등으로 보낼 시간을 없애버
린 것에 화를 내고 있을 것이다. 그러자 아까의 편지



「—도시간 계획이나 통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쑤시민의 總括의인 목표를 지향하는 총의로써 이루어
진다.」……는 말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쳐갔다.

「아이구예 여기서 뭘하능가 잉! 일터를 말도 없이
안나와 부른 어쩔거여 잉!」

난배일이 금목수가 들어선다. 그는 옆집 마누라를
책려보더니

「그래! 일도 중학제만 큰일날뻔 해부렀네! 재연장
시골서는 방구석에서도 쑥쑥 잘도 뿔아내는디 꼭 병원
신세를 지야능가? 팬스리 간만 풍만해져갔구서니……

「아니 基順이 아부지는 먼 소리를 그렇게 해요? 턱
없이(이유없이) 서울로 끌어다가 이 고생을 시킴서 아
이구—기가차서—아이구」

하고 막 싸움이 일어날 판이다. 좀 잦아들기는 했지만
아내의 간헐적인 신음 소리는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
며 싸우는 사람들의 목소리 사이를 지나 어느 하늘로
사라졌다는 또 되돌아왔다. 간호부는 현미경속의 병균
을 노력보듯 안경아래서 우리들을 노력보고 있었다.
나는 터질것 같은 갑갑증에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금목수가 엮구리를 빼르더니 門을 밀치며 나를 끌어내
바람을 피해 골목에 마주섰다.

「그 숙없는 여편네들이야 애 낳는것 하나밖엔 잘난것
이 있잔디? 혹시 안가? 아들이나 하나 낳지?」

「아들???」

「그건 그렇고요」

「그건 그렇고요?……」

「큰일 나부렀네——빌어먹을 늬의 집이 그 꼴에 단
단하기는 대포로 때려도 안나가겠네 이잉! 허 미친늬
들 문막은 모두 일곱자 닷푼에 틀은 두치 오피쉴 켜
지붕틀에는 콩크리트를 배압 짜리 틀듯 뿔려왔체 천장
은 이문합판을 붙이고 벽들은 에누리없이 두장씩 겹쳐
쌓구만, 아마 기초도 두지허졌체 석을 돔들——倉庫속
에서 자손만대 살걸로 작정을 했나비여 작정을——」

나는 목목히들다가는

「문틀이나 틀어 팔아묵제」

이로써 금목수와 헤어졌다.

7. 初 雪

금목수가 화를 낼만하다.

모든 집장사들은 집의 평면은 물론이고 구조체까지

도 성냥갑 올리듯 한다. 한자의 기초를 덜 파면 그만
큼 능숙한 기술자인 것이다. 高技士?? 이 말만 들어
도 그 집은 판하다. 금목수는 녀자 기초를 일단 파고
허물고 다시 두자를 메워 다져서 거기다 礎石을 쌓아
야 할 판이다. 이미 초장군은 그에게 영하의 겨울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木手—廢家— 이 밤중 안에 밤을 길 없는 노임— 그
리고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채 해온 아내의 해산! 나는
한참이나 어둠속에 별처럼 솟아나는 불빛과 고개를 움
추린 행인들과 어두운 골목길을 노려보다가 큰길로 나
와버스를 탔다.

역촌동에서 내려 뱃가를 더듬어 갈 무렵 소리없이 첫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어느 詩人이 말했는가? 이제 인류가 망할 때
불로 망할 것인가? 물로 망할 것인가?

나는 이 내리는 눈속에서 거대한 榮華의 역사들이
속절없이 시간의 潮流속에서 스러져갔는가를——그리고 인
간의 힘으로도 내리는 이 무한대의 눈을 어찌할 수 없
다는 것을 다만 패자속에서 움추리고 이 눈발을 지붕
이 이겨내주지만 기다린다는 것을——

나는 이 집을 설계한 사람. 이 집을 경영했던 가난
한 주인을 그려보았으나 그들은 이 속절없는 인간세상
의 어느 곳에 이름없는 생을 영위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문설주에 기대어 이 廢家를 의지하던
거지들도 어느 하느님의 배려속으로 사라져버렸는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지붕이 반쯤 벗겨지고 동쪽의 일부가 헐려진
廢家만이 묵은 인간을 연상케하며 눈보라속에 악을
쓰고 있는것 같았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골목을 뛰어 나오며 미끄러
지며

—곧 눈이 멎겠지? 그리고 녹을거야! 아마 아내가
지금쯤 아들을 낳았겠지! 아들을? 아들!

혹 내가 이 아들을 기대하는 것은 내 막막한 운명
을 목수의 겨울을—廢家를 허물고 高技士를 만나는 것
을 이 아들에게 빼어달거버리고 싶은 욕망에서나 아닐
까? 숨어버리고 싶고 이제는 미칠듯이 내리는 눈에
떨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소리쳐 보았다.

「相日哉……… 相日哉………」

외침은 헛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지고 거리의 가로등
만이 노여움에 떨며 노력하고 있는 듯했다.

연재 2

태순양

최경철



《提言》

跆拳道誌의 나아갈 길

U.W.K.

우리跆拳道誌는 人類文化의 모든 歷史가 記錄에 의해 保存繼承되어 왔듯이 우리의 國技인 跆拳道의 發展過程을 記錄保存하여 後世에 傳한다는 歷史的意義와 國內外 跆拳道人의 對話의 廣場이 되고 있다는 現實的 意義를 가지고 있습니다.....

(金雲龍會長 新年辭에서)

跆拳道가 國技로 制定되고 國力의 伸張과 더불어 國內의 內實과 世界化라는 命題를 띠고 힘차게 發展의 고동을 울렸던 1971年 3月 胎動을 始作한 跆拳道誌는 其間 3個月 12號誌를 꾸준히 發刊하였다.

第1回 世界跆拳道選手權大會의 福中속에서 7·8號가 合本하게 되었던 일을 제외하고는 大體의으로 原稿의 內容, 增面, 部數의 擴張等 꾸준히 發展해 왔다고 評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그러나 跆拳道의 發展을 目標로 한 「跆拳道誌」의 發刊은 적지않은 問題點을 안고 있다.

첫째, 空間의으로 宗主國跆拳道의 全國網과 世界의 各國이라는 엄청난 量을 커버해야 한다는 點과,

둘째는 時間的으로 3個月에 한번씩(季刊) 發刊되어 새로운 消息의 傳達이 通信網에 뒤떨어진다는 點이 있다.

그러나 이 두 問題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跆拳道가 世界의 스포츠化에가는 理論의 定立, 歷史의 整理, 跆拳道의 消息等이 格別한 要件을 갖추어 編輯室에 到達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다시 풀어 말한다면 跆拳道는 어느 한 사람의 專有物이 아닌 것이다. 跆拳道 愛好家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思考하고 整理하여 共同의 보조를 갖추어야 할 問題이다.

金雲龍會長의 新年辭에도 밝혔듯이 跆拳道誌는 「跆拳道人이 만나는 廣場」인 것이다.

全國의 그리고 世界의 跆拳道人들이 活動하고 創造하는 努力은 스스로 整理되어야 하며 整理된 思考는 비록 完成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과감히 發表하고 修正을 받는 자세가 要求되는 것이다.

이런 思考와 意見이 모이고 討論이 거듭될수록 跆拳道

道는 山積한 試練을 이겨낼 강한 推進力과 底力을 갖게 된다는 점을 全國 跆拳道 愛好家들은 銘心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當否하고 싶은 精神이 있다면 每事를 파악하고 觀察할 때 肯定的인 자세를 부각하고 싶다. 即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 그릇된 정보보다는 잡지는 점, 또 잘 되어 나가야 할 (改善)점, 希望과 所信에 차고 不掘의 意志를 보일 수 있는 점——이런 觀點이 보다 發展된 跆拳道의 來日을 위해 바람직하며, 우리의 모든 희생과 熱情이 跆拳道의 發展이라는 共同目標에 있음을 밝히두고 싶다.

原稿처럼 쓰기 어려운 것이 없다고 하나, 個人의 生자로 글쓰는 것처럼 人間生活에 有益한 것이 없다고 믿는다. 思考한다는 것은 發展의 基礎가 되는 것이며, 思考에서 나온 行動은 반드시 社會發展에 기여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記錄하고자 하는 意圖를 順爲대로 나열한다면 그 原稿는 編輯者에 의해 整理되고 編輯되어 우리 跆拳道史의 한 基樞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史實을 記錄하고 原稿를 쓰고 적극적으로 參與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당부하고 싶고 이것이 가장 重要한 問題라는 것을 強調하고 싶다.

아무리 名文이라 할지라도 跆拳道人이 아닌 사람의 손을 빈다는 것은 수치이며 튼튼한 礎石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서투르나마 眞實과 精誠과 實踐이 必要하다.

이번 6月 本誌 編輯室은 全國의 市道支部를 對象으로 現地取材를 강행했다. 이 意義는 編輯者가 直接 實態를 파악한다는 이외에도 全國의 어느곳에서는 國技로 成長하는 跆拳道의 참모습이 올바르게 傳해지기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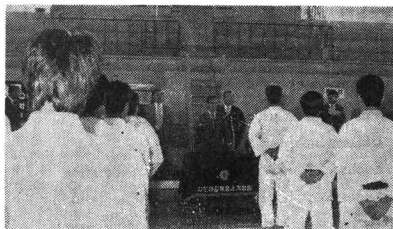
다시 먼저 지적된 世界의 跆拳道를 廣域 跆拳道誌에 收容한다는 問題는 各國의 跆拳道協會 報道책임자나 師範들이 自國語記事를 보내주고, 이를 모니터내지는 특과원의 形式으로서 世界跆拳道칼람을 만들어준다면 우선 기갈을 면하지 않을까 한다.

다음의 時間的인 問題는 行政上의 애로가 없지는 않지만, 이제 跆拳道誌가 隔月刊내지는 月刊으로 發行될 때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 念願을 이룩하고 國技로 成長한 跆拳道誌가 跆拳道歷史의 記錄뿐 아니라, 發展의 母體가 되고 他體育誌에 앞서 體育誌로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날이 到來하기를 祈願해 본다.(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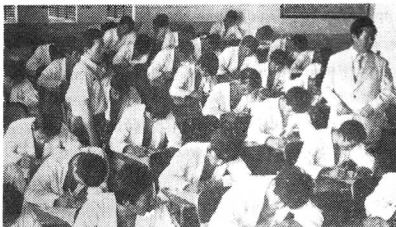
<協會 動靜>

- ★ 5월 27일 指導者 補修教育
場 所: 國技院
參加人員: 62名
- ★ 5월 24일 國民學校個人選手權大會
주최: 한국국민학교태권도연맹
주관: 대한태권도협회
양 대석 국민학교연맹會長的 식사로 개최된 시합은 김 의찬의 673명이 참가 A조 편급의 조 용운등 7명의 우승자를 내고 26일 폐막(記事 本文)
- ★ 6월 2일 제27회 소년부 승단심사대회가 國技院에서 열려 601명이 참가 송 중훈外 549명의 유단자를 배출.
- ★ 6월 4일 海外派遣師範選拔시험이 국기원에서 열린다. 英國, 이란, 이집트를 對象으로 18명이 참가 판 기옥등 3명 합격
- ★ 6월 5일 제3회 스포오즈 소년대회 양 영섭의 87명이 참가 편급의 김상훈(한영中)등 7명의 우승자를 배출.
- ★ 6월 7일 각관시도지부 각연맹 실무자회의가 업무규사무총장의 주재아래 국기원 회의실에서 개최 안전 1) 행정지시 사항 전달
2) 2/4분기 보조금 지급
참가인원: 전무이사급 이상 22명
- ★ 6월 8일 제1회 전국대학생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개최, 박 대선 대한연맹 회장의 개식사로 시작, 허욱(서울대)의 18개교 116명이 참가, 김성배(인천체전)등 14명의 우승자를 내고 폐막.
- ★ 6월 22일 제5회 주한외국인 및 여자부 개인선수권대회가 로날드·버베키(카나다)의 63명 참가 여자부는 장선남의 44명이 참가해서 각각 3개부로 나누어 경연. 12명씩 입상자를 내고 폐막.
- ★ 6월 23일 미8군 제2보병사단 헨리·E·에머슨 사령관은 태권도에 기여한 다대한 공이 인정되어 김 윤용회장으로 부터 감사패 수상.



(指導者補修教育에서 訓示하는 殷雲奎事務總長)

- ★ 6월 24일 第十期 指導者 教育
참가인원: 김 규의 105명
장 소: 국기원
- ★ 7월 5일 제45회 全國體典 서울市豫選大會 開催 국기원.
송상원(동대문상고)의 243명 참가 최권성(成大)의 21명의 우승자를 選拔
- ★ 7월 7일 제28회 소년부 승단심사대회. 498명이 참가, 강 명구의 435명의 유단자 배출
- ★ 7월 18일 第九回 大統領下賜旗爭奪 全國團體對抗跆拳道大會.
학생부 16개팀 104명
일반부 17개팀 123명 참가(詳報: 本文)
- ★ 7월 26일 西獨下院議長이며 世界跆拳道聯盟 副總裁인 배오·와그너씨가 국기원 訪問, 金 雲龍總裁와 現案問題 協議.
- ★ 7월 29일 技術審議會 全體會議 開催.
(案件) 第一回아시아選手權大會 準備節次討議.
- ★ 8월 3일 駐韓外國人 指導 師範교육(국기원)



30회성인심사 이론시험 장면(4歲以上)

NEWS ON TAEKWONDO

★ May 27

Instructor's supplementary training course was held at the Kuk Ki Won and 62 instructors were participated

★ May 24

The First National Primary Schools Taekwondo Championship,

Sponsor: Korea Primary Schools Federation

Supervisor: Korea Taekwondo Association

started with opening announcement and congratulatory message aired by Mr. Yang, Dae-suk, President of Primary Schools Federation and ended with awarding 7 specified weight classes of prize-winners out of 673 participants.

★ June 2

The 7th Junior's Promotion Test held at Kuk Ki Won and 549 were passed the test out of total 601 applicants.

★ June 3

The Competitive examination of selecting instructors for dispatching to the foreign countries as England, Iran and the United Arabs were proceeded at Kuk Ki Won.

Four instructors were passed the examination out of 19 competitors.

★ June 5

The Third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was held at Seoul and 87 players were joined including Mr. Yang, Yung-sung.

The prizes were awarded to Mr. Kim, Sang-moon, Han-yang Middle School, and other winners belong to different classes in respectively.

★ June 7.

A meeting for the executive Officials of main Gymnasiums with their branches of federations and regional branches have been held at the Kuk Ki Won. The subjects were 1. Instructing administrative affairs

2. Distributing the 2/4th aid funds.

Participants were all together 22 officials

★ June 8

The 1st Collegiate Taekwondo Championship was held on this date to begin with opening address delivered by Mr. Park, Dae-sun, President of Federation. 116 players from 18 different Universities were participated and 14 winners were awarded beside Mr. Kim, Sung-Biae, (Inchon Physical College)

★ June 22

The 5th Annual Foreigners and Women Taekwondo Championship being held at the Kuk Ki Won. 63 foreign players other than Mr. Ronald Buddecke (Canadian) and Miss Chang, Sun-nam with other 44 Korean women took part in the Championship.

★ June 23

Maj. General Henry Emerson, Commander of the 2nd Infantry Division US Army, has been presented the Certificate of Appreciation by Mr. Un Yong Kim, President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in acknowledgement of his outstanding contribution to the promotion of Taekwondo.

★ June 24

The 10th Instructor's Training Course has begun on this date. Instructor Kuy Kim and other 105 instructors were joined for the purpose of training.

★ July 5

Preliminary Tournament for the 55th National Championship was held at the Kuk Ki Won. Mr. Song, Sang-hun (Dong-Dae-Moon Commercial High School) and 243 players were attended, and Mr. Choi, Kwon-sung with 21 other winners were chosen to be the representatives for Seoul to the 55th National Games.

★ July 18

The 9th Taekwondo Tournament for Presidential Flag held at the Kuk Ki Won.

104 players from 16 different schools and 123 from 17 different adult team (see the page 29) were participated.

(Continued to page 103)

在日支部 黃七福會長 一時歸國

「第一回 아시아選手權大會」에
誠金 五十萬圓 寄贈

지난 1971년 結成된 대한태권도협회 日本總本部協會——正式名稱 在日支部——의 會長을 맡고 있고 在日 居留民團 大阪支部長을 兼하고 있는 黃七福씨가 7월 16일 一時歸國 協會를 訪問했다.

黃會長은 祖國이 毎日 이 다크도목 發展하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感銘을 받았으면서 또 祖國의 發展相이



(日本跆拳道現況을 이야기한 黃會長)

海外에 傳해지고 國際的인 地位가 向上됨으로서 60萬 교포사회에 미치는 影響이 크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제 韓國民의 한사람을 자랑하게끔 된 現實을 滿足하게 생각하지만 날로 심각해가는 統一論에 대해서 좀 더 굳센 民族觀을 가져야한다고 主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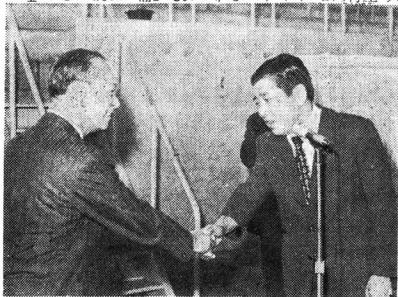
그런 意味에서 在日韓國人 二世들에게 祖國을 깊이 심어 줄 수 있는 教育이 重要視되며 跆拳道를 그 하나로 普及시키기로 하면서 우려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가라데」의 發生國인 日本靑年과의 感情對立을 유발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意外로 成果가 좋고 또 日本人들도 純粹스스로즈 精神에 입각한 跆拳道에 關心이 많아 民間外交와 民族魂을 심는다는 一石二鳥의 效果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優秀한 跆拳道의 足技가 크게 알려지고 있으며 純粹한 스포츠 精神 아래 이루는 精神修養과 함께 跆拳道가 世界스스로즈化 되는 과정이 알게됨으로써 더욱 公告한 지위를 굳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金雲龍총재의 個人的인 희생과 艱辛적인 努力에 一助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希冀으로 적은 돈이나마 誠金을 내겠다고 말한 黃七福會長은 五十萬圓을 全跆拳道人의 祝典이 될 제 1회 아시아選手權大會에 희사했다.

羅英德 自由中國大使
親筆揮毫國技院에 寄贈Envoy Loh Ying-teh donated a marble
monument to Kuk-ki-won

지난 8월 3일 外國人指導師範素養教育이 이루어지고 있는 國技院에서 羅英德 中華民國大使는 金雲龍世界跆拳道聯盟 總裁에게 「**精健爲雄**」이라는 代理石 현관을 寄贈했다.

높이 1m 30cm 幅1m80cm에 3cm두께의 臺灣特産 大



(國技院에서 현관贈呈式)

理石에 羅大使의 親筆揮毫는 健康을 쌓아 英雄이 되라는 뜻으로 灰色板위에 金泊으로 새겨져 있다. 일찍부터 韓國跆拳道의 發展을 눈여겨본 羅大使는 國內의 總體의 團結을 꾀하고 世界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것에 友邦의 한사람으로서 크게 感銘을 받았으면서 6個月前 이 글을 증명하게 했었는데 輸送途中 破損되어 지연되었다는 後日談도 빼놓지 않았다.

贈呈式에서 羅大使는 『自由友邦인 韓國의 國技跆拳道가 世界化하고 또 自由中國에 技術을 普及하여 國民體位の 向上과 統一의 一念에 불타고 있는 自由中國民의 精神의인 자세에 큰 도움을 준 것을 感謝히 여긴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兩國間의 友好에 조그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意圖에서 이 적은 精誠을 드리게 된 것이라고 動機를 說明했다. 世界跆拳道聯盟 金雲龍總裁는 『友邦 自由中國의 跆拳道가 날로 發展해가는 것을 마라보며 기쁘기 그지없다』고 謝意를 表하면서 『앞으로 跆拳道世界化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자』고 答했다.

羅大使의 揮毫는 國技院의 北쪽門위에 걸려 兩國間의 跆拳道友好를 길이 記念하게 된다.

金 雲 龍 會長 外國人 指導師範 素養교육에서 講演



第一回 아시아 選手權大會의 創設을 앞두고 동분서주하는 金 雲龍會長은 8月 3日 10時半부터 國技院 講議室에서 外國人을 指導하고 있는師範들의 精神教育에 직접 參與 강단에 섰다.

10時 30分부터 40分間에 걸친 강연에서 『全國의 跆拳道人의 團合은大統領께서 1971년 3월 20일 跆拳道를 國技로 定해주시 以來 눈물신 發展을 거듭하여 國技院은 完成하고 各種 規程의 現代化와 未備된대로 태권도 敎本을 發刊하여 技術上의 統一을 期해 제일회世界選手權大會와 國際審判講習會를 발판으로 世界化에 拍車を 加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의 할 일은 實로 막중하다』고 前提한 후,

『外國人들을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들은 각인이 모두 民間外交使節이라는 긍지를 갖어야 한다』고 격려했다.

『이곳에서 받는 指導者教育은 곧 時間이 호를수록 쌓이고 보태서 跆拳道大學의 設置에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自覺해야 한다. 特히 여러분이 細心한 神經을 써야 할 것은 철저한 教育과 昇段審査規定의 준수』라고 밝힌 金會長은 이제야말로 이룩만의 宗主國에서 벗어나 內實과 團合을 期할 때이며 그러므로서 世界에 國技跆拳道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力說했다.

이점은 海外에 있는 사범들에게도 마찬가지이며 그들의 굳건한 精神자세와 跆拳道精神의 一致가 이번 열리는 아시아大會와 來年の 世界大會에 차질을 招來하지 않고 中斷없는 前進를 거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嚴雲奎事務總長은 協會現況에 關係 「協會의 歷史, 實務, 未來觀」을 펼쳐 보였다.

金 雲龍會長은 아시아大會 創設準備 외에도 各種 大會의 독려 데오 마그나 世界跆拳道聯盟副總裁의 禮訪을 받는 등 바쁜日程을 보내면서 3日 오후에는 7회 태해한 아시아대회 학습훈련소인 태능을 찾아 金一封을 傳達하여 격려하기도 했으며 來年の 世界大會에 앞서 今秋世界一週여행을 할 豫定이다.

慶北跆拳道協會 후원단체

木 曜 會



國技跆拳道를 發展시키려는 움직임이 全國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요즘 跆拳道人의 自發的인 努力뿐 아니라 이를 후원하는 社會團體가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

京畿道協會의 李起祥會長도 이를 이미 構成했고 江原道에서도 申喆均會長이 이를 이끌고 있는데 慶北의 경우는 가일층 組織의이고 完全한 運營을 하고있다.

慶北支部 會長인 趙肅樂 檢事가 직접 會長이 되어 副會長에 李鴻鍵(대동모터 代表) 崔龍燦(제일모직주

식회사 대표)씨를 추대하고 총무고문에 宋正鎬(대구 지검 검사)씨를 추대하여 每月 2번째 木曜日에 모임을 갖고 있다.

이 목요일의 事務室은 慶北跆拳道協會內에 두고 跆拳道發展을 위해 社會各界의 影響力, 善導와 經營支援에 이르기까지 모든 努力을 아끼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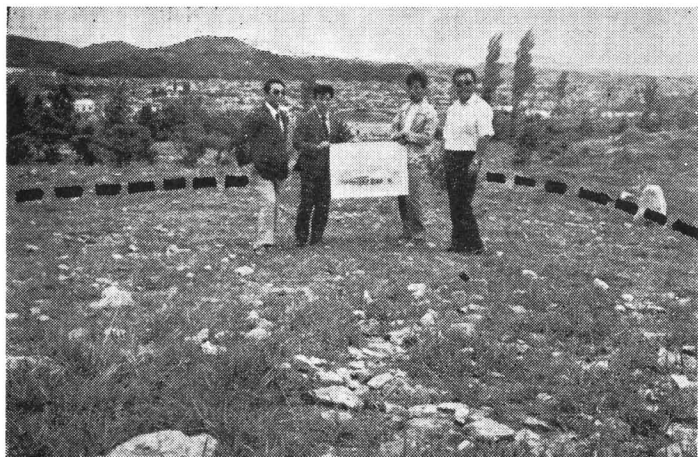
慶北協會는 시험에 앞서 木曜會 會員을 초대하여 경기의 해설과 示範을 펼쳐고 보다 뿌리깊게 跆拳道를 보급하기 위한 協力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다음은 會員 名單

下 延 煥	蔣 濟 榮	孫 承 祿	白 潤 基
李 基 榮	崔 益 三	金 奉 制	姜 大 尙
朴 再 東	崔 淳 格	車 完 鎔	崔 慶 浩
權 海 植	金 相 德	姜 大 烈	趙 鍾 翊
金 文 上	田 衡 圭	金 東 星	徐 相 哲
李 興 搭	金 溶 寬	洪 載 善	金 相 俊
鄭 賢 杓			

(寫眞은 총무고문 宋正鎬氏)

二十萬 慶北跆拳道人의 꿈 實現段階에 慶北跆拳道센타 建立계획 實現段階에



<跆拳道센타가 들어설 곳을 說明하는 최규열 전무이사(右端) 점선안이 태권도 부지>

二千年 歴史속에 꾸준히 숨쉬어 온 國技 跆拳道가 비약의 1970年代를 맞이하여 國內의인 統一과 體系化, 國外的으로 世界跆拳道聯盟의 結成으로 世界스포츠化를 促進하게 되었다.

國技院이 中央道場으로서 永東 山頂에 우뚝 그 모습을 나타내어 世界태권도의 聖域이 된 것은 雄辯으로 이를 立證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跆拳道를 國技로하고 있는 宗主國 韓國으로서는 內實과 資質向上이 누누히 強調되어 온 터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國內跆拳道人은 이곳에 모여 競技를 치르고, 指導者教育을 받고 審判教育을 치루었으며 改善된 環境下에서 競技力의 向上, 跆拳道 精神의 統一을 눈으로 보고 또 行動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刺激은 드디어 國內의 全跆拳道人을 自覺시키고 서서히 浮上하는 隆基現象처럼 「하면된다!」는 自身感을 불러 일으켰으며 各道支部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모여 우리를 發展시킬 장소를 만들자!」는 信念을 굳히게 되었다.

金雲龍 會長의 보이지 않는 努力! 國內跆拳道人이 드디어 剛合을 實踐에 옮기겠다는 熱意! 이곳에 우리 跆拳道의 밝은 來日이 있는 것이며 慶北에서 제일 먼저 키워온 불씨를 드디어 烽火처럼 대명동 마루에 햇불로 올리게 되었다.

記者는 市道支部의取材를 위해 高速버스 정류장에서 三德洞으로 向하는 택시안에서 文化放送의 1時뉴스를 듣고 있었다.

『다음은 스포츠 뉴스.....』

跆拳道人의 오랜 宿願이던 跆拳道센타의 建立이 具體化되었다. 오늘 慶北體育會가 밝힌 바에 의하면 跆拳道를 비롯해서 弓道와 競馬場을 대구시 대명洞에 건립하기로 確定하고 市로부터 地地를 確保했다고 發表했다. 이로써 跆拳道센타의 계획은 具體的인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李鍾昊 副會長과 崔圭烈 專務理事는 이 報도의 始末을 묻는 記者의 質問에 이렇게 答했다.

『金雲龍會長님의 努力으로 永東山頂에 國技院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跆拳道世界化의 깃발이 그 지붕 위로 펄럭일 때 저희들은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跆拳道의 世界化!

跆拳道의 內實化!

國技院의 그 엄청난 作業은 全 跆拳道人에게 「하면 된다」는 信念을 불어넣어 준것이 더욱 크다고 저 個人은 생각합니다.

우리 慶北跆拳道協會는 이런 精神的 背景에서 이 꿈을 實現시킬 時期가 到來했다고 믿고 跆拳道競技, 昇段審査, 指導者講習會와 各種研究會, 特別修練示範會를 갖을 跆拳道殿堂의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殿堂이 들어섬으로서 精神的인 統一뿐아니라 全 跆拳道人의 總和團結을 공고히 하고 跆拳道의 研究室資料室 合宿施設을 갖추으로써 劃期的 發展의 土臺를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慶北跆拳道協會는 이런 취지아래 跆拳道센타의 設立을 계획하고 다듬고 다시 修正하기를 거듭하면서 센타의 부지問題 建立基金問題, 運營問題, 設計등으로 예기치 못했던 난관에 거듭 부딪쳐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주저 앉아 있을 수만도 없어서 研究된 資料를 設計의뢰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73년에 一案과 二案의 두개의 設計를 경북 태권도협회 實質的인 理事會겸 후원단체인 木曜會에 提出케 되어 8월 31일 오후 7시 정식으로 2案이 採擇을 보게 되었다.

영남대학교 김형상教授의 二案은 총건축비 38,396,000원의 규모로서 鐵筋콘크리트組로 構造를 세우고 콘셸트막달링(Shell構造) 지붕을 씌운 經濟的인 設計인데 平面積 485坪에 200평의 競技場을 中心으로 四面의 觀客席에 二千名의 觀衆을 收容한다는 基本계획으로 짜

여지고 있다.

관람석 아래部分(中下層)은 事務室, 會議室, 研究室로 慶北跆拳道協會도 이곳으로 옮겨가며 또 샤워실, 탈의실, 식당등 選手 후생시설로 짜여져 있다.

外形은 國技院의 形態를 따를 수 없어 가장 經濟的인 半圓筒型의 一見 無味한 듯 하지만 内部만은 韓國의 情趣(귀니식)를 물씬 풍겨보겠다는 意慾이여 特別 正門에 많은 神經을 쓰고 센터가 完工되면 정식명칭도 金雲龍會長게 받아오겠다는 계획으로 있다.

다음으로 크게 問題된 부지 問題는 前記의 報도와 같이 대구시 대명동 1구의 500평이 이미 確保되어 한층 활기를 더우게 되었으나 實質的인 建築費問題가 애로로 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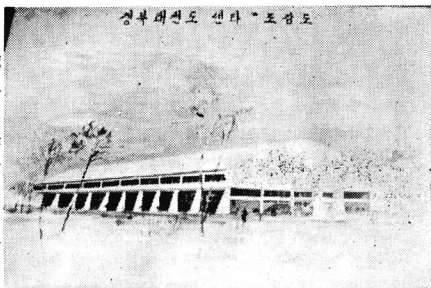
慶北道知事의 確約에 따른 스포츠 公園造成의 일환책으로도 도움을 받고 있는 이번 계획은 75年度 全國體典을 目前에 두고 시급한 着工이 豫想되고있는데 豫算上의 애로에 봉착하고 있다.

道費補助 고문단의 현금, 자체경비의 念出에 關한件 등이 모두 산적한 課題로 남아있는 慶北跆拳道協會는 十一月初로 着工式을 잡아놓고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아직 確固한 展望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 어느때보다 이 歷史的課業을 爲해 舉道民의인 協助을 아쉬워하고 있다.

慶北跆拳道人들이 쓰다듬듯하는 確定된 地地를 물리보며 記者는 崔圭烈專務와 같이 基本資材만이라도 確保된다면 어떤 난관도 이겨내나자는 全跆拳道人의 작사가 이 센타建立의 瑞光으로 받아들였다.

「하면 된다」

이들의 意志와 지밀한 계획이 서로 헤어져야하는 일이 없기를 期待한다.



경북태권도센터 입면도

제 1 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

第一回亞細亞跆拳道選手權大會

THE 1ST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입장권 (TICKET)

일 반 600원 (1 \$50C U.S \$)
군경·학생 400원 (1 \$ U.S \$)
단 체 300원 (75 \$ U.S \$)

예매 (RESERVATION)

신세계 백화점 정문입구
미도파 백화점 정문입구
종 로 백화점 정문입구



場 所 :

国 技 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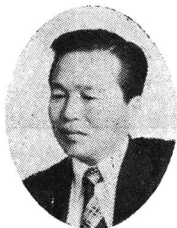
日時 :

一九七四年 十月十八日~二十日
(October 18 to 20 1974)

Reportage on regional branch Taekwondo Association

宗主國跆拳道發展을 위한 礎石

Corner-Stone as a Home of Taekwondo



現地取材의 인터뷰에 應海俊 申喆均 江原道會長(左)과 趙南樂 慶北會長(右)

跆拳道의 世界스포츠회!

宗主國跆拳道 發展의 産室!

이 두 가지 問題가 머리를 꼭 메운채 記者는 京春線의 기동차에 앉아 있었다. 十二號 跆拳道誌를 내고 난 피로와 反省이 아직 幻影이 되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고, 4日 동안에 4個道を 주파한다는 장막관념이 긴장시켰으며 저지않은 경비를 투입하면서 最初로 실시하는 現地取材는 그 만큼 生생한 現實이 담겨야 하고, 또 跆拳道誌가 實로 여러분의 雜誌라는 親密感和 적극 이 跆拳道의 廣場에 모여야겠다는 自覺을 유도해야 한다는 임무도 있는 것이었다.

밤의 턴넬을 뚫고 기차는 흥내에 달았고 새벽공기를 가르면서 뱃스는 원주를 거쳐 무지한 太陽아래 中央線을 그리고 비네리는 대구와 고속도로위를 또 신신히 달렸다.

돌아오고 나서 자리에 앉은 記者는 走馬看山格의 取材에서 얻은 敎訓이 적지 않음을 느꼈다.

跆拳道가 그 옛날 우리 民族史를 통해 그랬던 것처럼 어느때보다 急迫한 祖國의 現實에서 花郎의 精神아래서 總和一體를 向해 躍進하고 있다는 것이 그 一感이었다.

具體的으로 跆拳道는 웅장하기 기릴 데 없는 國技院뿐 아니라, 江原道 山골짜기 地方의 中小都市에서 男女老少할 것 없이 사랑받는 國技로서 활발하게 뻗어나가고 있었으며, 이들은 自身의 보다는나 生活向上뿐 아니라, 祖國의 建設은 내힘으로 한다는 自立과 自發의 힘으로 奮起하였다.

또 한가지는 國技跆拳道가 世界로 발돋움하여 國力과 함께 우리의 文化가 世界에 알려진다는 肯持에 가득 차 있었으며, 宗主國으로서 이 優位를 견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自覺에 가득 차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否定的인 面도 없지 않았으나, 이것은 언젠가는 克服 改善될 問題이지 決코 悲觀的인 局面은 아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跆拳道의 底邊擴大는 實로 汎國民의인 汎社會的인 것이며, 民族의 基盤으로 부터 서서히 隆基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各道跆拳道協會는 跆拳道의 技術向上과 各行政體系의 統一 위에서 보다 創意的이고 自主的이며 自助的인 자세로 轉換하면서 宿題를 갖고 있음을 想起해야 할 것이며, 十五호로 巡禮를 마무리 지을 때 다시 이 問題를 舉論하고자 한다.

(編輯者 註)

合心과 汎道民의인 跆拳道 普及

江 原 道 跆拳道 協會

1965년 2월 1일 초대회장 안 태섭씨와 전무이사 이 환수씨를 중심으로 發足한 강원도 태권도협회는 “跆拳道精進의 한해”로 삼은 一九七四年(신철군 四代會長을 맞아 어느 道보다도 熱成의인 跆拳道 發展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특별히 느낄 수 있었다.

六月의 짙은듯한 더위속에 春川을 찾은 記者를 만나 『過去의 跆拳道界는 歷史와 發展과정이 깊고 多樣한만큼 擧道の인 協助에 보이지 않는 不協和會이 일었다』고 前提하고 『그러나 江源道跆拳道協會는 今年들어 眞正한 태권도정신과 국기로서의 全國民의 精神의 基盤을 이루고 있다는 大義名分아래 총화적인 團合을 이루기로 했다』고 조용조용히 말을 옮겼다.

1974년 서울法大卒業 1966년 春川市長 67年 江源道內務局長 69年 民主共和黨事務局長등의 官職을 역임해온 申會長은 內性的이면서도 強한忍耐과 實踐을 所有한 印象을 느끼게 했다

『跆拳道人도 維新精神아래서 國民의 一員이라는 自覺을 다지고 이에 발맞추어 나가야할 것이라는 보다 大國의인 前提아래서 지난날의 인식을 刷新하고 運營의 調和를 꾀하는 것』이 當面問題라고 말하고 『跆拳道精神을 花郎道의 호국정신에 歸—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跆拳道를 汎道民의으로 普及 發展시켜 體育과 知育이 調和를 이룬다. 동시에 底邊擴大에서 비롯된 技術의 發展이 江源道跆拳道와 나아가서

한국의 태권도의 경기력向上 국위선양에 이바지하는 過程을 밟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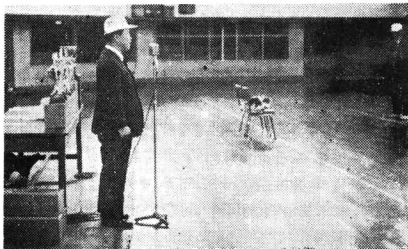
이에 對備해서 今年 여름에는 江源道內 指導者教育을 유익하기로 하고 江源道內에서 最初로 열리는 이 指導者教育이 지난날의 병폐를 씻고 새 出發을 다짐하는 一大 轉機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展望했다.

同席한 이 회철 專務理事는 跆拳道協會가 비약적인 發展은 이론 七〇年代에 國內의으로는 國技院의 승단심사단일화를 이룩했고 철저히 指導者의 實質上과 均等한 質을 이룩한것이 가장 획기적인 일이라고 同調하면서 새로운 跆拳道史를 엮듯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指導者들의 跆拳道觀이 정설하다고 강조했다.

萬一, 跆拳道가 그 技術이나 精神面에서 統一體系화된 各 級段과의 差를 바로세우지 못한다면 不幸한 結果를 招來할 것이라고 前提하면서 『우리 道는 그런 意味에서 申詰均會長 아래 三名의 副會長과 十五人の 理事會를 구성했는데 그 가운데 大部分이 社會 各界人事들로서 每月 定額 定額모임을 갖고 會費를 各출하여 이것으로 기금을 늘게하고 있으며』바로 이런 熱意에서 우리는 더욱 發展된 來日의 跆拳道를 기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江源道跆拳道의 技術向上을 위해서는 汎道民의인 跆拳道普及도 一次의으로 重要한 것이겠지만 技術向上과 質의인 수확을 견우기 위해서는 官主導型의 國民學校 跆拳道普及過程에 있어서 좀 더 自律的인 跆拳道人들의 積極적인 참여를 꾀하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江源道跆拳道協會는 1965년年度 초대회장 안태섭씨를추대하여 發足한 以來 춘천시 낙원동 92번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금년에는 좀 더 具體적으로 자체사업을 위해 제1회 강원도협회주최 도내 중고체전등을 창설함과 동시에 餘地의 강원지역시합과 지도자교육 유단자강습 會員教育등을 실시하고 있다,



跆拳道精神的 體質化
跆拳道技術의 科學化

慶 北 跆拳道協會

초여름 장마비에 흠뻑 젖은채 中央線을 내려 다시 영천에서 대구로 가는 高速버스에 오르면서 記者는 歷史와 社會라는 것이 學窓生活에서와 같이 直線의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實感했다.

모든 事物은 그 나름대로의 個性이 있는 것이며 個性의 總體가 하나의 歷史의인 特性을 規定해 낸다고 볼 때 慶尙北道 跆拳道協會는 分明 優秀한 個性들이 理想의인 調和를 이루고 이에 依해서 合理的인 協會의 運營과 跆拳道의 發展에 泊車를 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大田으로 가는 추풍령을 넘으면서 다시금 떠오르는 것이었다.

6월 18일 대구지점 제2부장점사실로 조용락 會長을 訪問했을 때도 비는 아직 내리고 있었다.

조용락회장은 반갑게 자리를 권하면서 『우리는 한걸음 나아가는 跆拳道를 이루자고 합니다. 前進한다는 것은 勿論 現實에 忠實함으로써 스스로 前進하는 것을 意味합니다』 法曹人다운 明哲한 論理를 차분한 목소리로 展開해 가면서 『우리는 태권도의 刷新에 대해 전임會長으로서 부터 努力해 온 結果 이미 큰 成果를 보았으며 1973년 7월 16일 11대 회장으로 취임한 以來 조직장은 會長團으로서 해야할 일과 실무진들이 해야할 일을 단합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趙會長은 『우리는 國技跆拳道를 明實共히 韓國의 跆拳道로 土着시키고 國民의 열로 昇華시키는 勿論 國民의 한사람으로서 跆拳道世界化에도 一助를 加해 宗主國 跆拳道人이 해야할 일을 하는 것이 慶北跆拳道의 나날 길』이라고 단단히 指標를 밝히면서 『當面問題로 우리는 資金의 圓滑을 기해 自立하기 위한 경비의 急出에 머리를 짜내고 있다. 여기 非競技人으로서의 私見을 말한다면 좀 더 競技를 역사이듯하게 이끌고 시합전에 격파나 綜合품제 등을 삽입하는 方案은 어떤지』 答을 주었다.

권 규열 專務理事는 이 問題에 대해서는 경북태권도

협회 회장단에 대한 說明이 必要하다면서 『慶北跆拳道는 趙會長 以下 社會各界 28名の 顧問단이 精神의인 問題뿐 아니라 每月會費를 각출해 跆拳道發展에 기여하고 있다』고 說明하면서 『木曜會라는 이 團體는 비록 跆拳道를 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지만 熱意가 대단하다』고 說明하면서 시합전에 『새로운 판중 確保는 勿論 顧問단을 위해서 경기규정 해설, 시범등을 하고 이를 각 테레비放送과 보도기관의 協助로 質量面的 上昇을 기해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북跆拳道協會는 가장 알찬 사무실을 三德洞에 마련하고 顧問, 회장단, 실무진의 行政運營과 경기에대한 규정철, 공문철, 및 경리장부들이 가장 완벽하게 갖추어진 道支部이기도 하다.

경북체육회에서는 이에 대해 우수상을 수상하고 부상을 수여함과 함께 도체육회에 이 行政關係綴을 展示 他的의 모범이 되었다.

傘下에 김천, 안동, 포항, 상주, 선산, 예천, 금릉지부가 設置되어 있는 慶北跆拳道協會는 인가와 인가신청중인 193개 도장에 13개 縣下, 5관구사령부, 경북경찰국 등 4개의 경찰서도장등 특수도장을 포함하여 73년 말만 200곳 이상의 도장을 집계하고 있다.

금년들어서는 慶北協會는 6월중 8회도교육감기 중고대회, 제3회 대구시교육감기 단체인 7월에 제2회 화강기쟁탈 시도대항전 8월의 제2회 도지사기쟁탈대 회동의 급직한 시합은 勿論 光復節을 기해서 협회장기 쟁탈 단체인을 開催할 계획으로 있다.

뿐만 아니라 4회의 승단심사와 지도도 교육 및 각종 全國규모에 대비한 합동훈련 및 합숙훈련에 열을 올리면서 경북 태권도회관의 건립에 총력전을 하기로 결의를 다지고 있다.

굳은 땅에 물이 고이듯이 경북 태권도회회는 誠實한 努力으로 세운 內實위에서 全國跆拳道人의 단합을 호소하고 있다.

跆拳道中興의 陳痛

忠 清 南 道 跆拳道 協會

비를 내리며 記者를 땀던 대구하늘은 이튿날 맑게 개인 채 大田으로 가는 高速패스를 재촉했다. 全國을 縱橫으로 묶은 經濟建設의 첨병인 高速公路는 그러나 지금의 目的地인 大田의 傳來的인 經濟觀念을 깨트렸다는 世間の 評도 없지 않았다. 이런 問題는 비단 經濟뿐 아니라 行政과 教育, 文化의 모든 面에 派及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면서 잠깐 출음에 몸을 맡겼다.

黃昏이 어두운 大田거리에서 느낀 斷想은 果然 嶺湖南의 갈림 길이던 鐵馬時代의 봄비던 印象과는 거리가 먼것을 느끼게 했고 그러나 이런 問題는 時間이 지나면서 大田의 性格을 再定立시킬 때 아울러 새로운 發展을 期約하리라고 믿어지는 것이었다.

忠南跆拳道協會는 道支部가 갖을 수 있는 취약점의 하나로 각 임원들이 地方에 散在하는 問題點을 갖고 있다. 다른 支部나 他競技聯盟과 같이 社會人事를 會長으로 추대하지 않고 自體內에서 跆拳道의 發展을 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現會長을 맡고 있는 노일환씨가 公州大學에 在職中인데다가 連絡이 잘 되지 않은 關係로 現임원들과 나눈 대화에서 大田은 前述한 바와 같이 大田의 特殊性에 따라서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려 한다는데 그치는 印象을 받았다.

지난 4월 1일부터 대전철도국교양소에서 2차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4월 10일부터는 한국노총 忠南協會長기생탈전을 충무체육관에서 개최하여 312명의 初, 中, 高, 一般이 參加한 盛況을 이루었다.

忠南協會는 또한 공주체육장과 忠南교육감기생탈을 7월 중에 충무체육관에서 開催할 계획을 세워 빈번히 技勇을 겪으면서도 傳統을 이어오고 있는 忠南跆拳道協會의 새로운 기틀을 세우고자 하고 있다.

1962년 6월 25일 창립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손희영, 이종균, 박용동, 고인환, 노일환등이 이루어지는 歷代 會長과 한용석, 박창락, 강정구, 김용걸 등으로 이어진 전무이사와도 아직 忠南跆拳道의 뚜렷

한 進路를 밝히지 못하고 있었다.

『너무 잦은 人事의 移動도 單時間內에 相互의 意見交換과 또 능률적인 一面을 이룩했는지 모르나, 그와 함께 初志一貫하는 精神의인 根源을 갖지 못한 短點도 아울러 露呈시킨 것 같습니다.』

忠南跆拳道協會의 金容杰專務理事는 現在로서는 跆拳道가 나갈 수 있는 大要를 推進해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뚜렷한 國家觀에 입각하여 國技跆拳道를 普及시켜 나간다면 大國의인 見地에서 이런 問題가 解決될 것이라고 展望하고 있다.

이에 의해서 忠南跆拳道協會는 跆拳道普及을 日目標로 내세우고 지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中高, 3월 30일과 31일간 국민학교등 첫단계로 교과과정의 품세를 교사들에게 강습회를 갖았다. 市內중고교 42개 곳에서 41명. 國民學校 70명의 교사들이 참가하는 盛況을 보였으며 학교측은 충남태권도협회가 제공한 忠實한 教材로 협회제정품세의 進행을 教育하는 熱意가 있었다 한다.

이와함께 忠南跆拳道協會는 道內의 跆拳道有段者和人口 집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熱意를 보이고 있고 各級學校와 公共團體에 파급시키는 努力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公州師大와 忠南대를 비롯하여 고교와 국민학교에까지 학교우수팀을 育成하도록 勵進하고 있다 이로서 未來의인 계획과 過去의인 傳統이 만나는 時點에서 忠南跆拳道는 하나의 실미리를 發見할 것이라는 展望을 엿볼 수 있었다. 다만 道 內外의 與件의 呼吸을 맞추어 갈 수 있는 指導者의 資質向上을 도모해야 하는 問題가 김용걸전무이사 가장 우려하는 것이 될 것이다.

忠南大田의 跆拳道는 發展한 祖國과 跆拳道世界化가운데서 하나의 시련을 겪고 있으며 꾸준한 努力과 傳統의 힘으로 굳건한 基盤을 마련하리라고 믿으며 萬一 이런 여건을 갖춘다면 全國土의 中部에 위치한 地理의인 役割을 重要시 하게되리라 믿는다.

우리 모두跆拳道의 깃발 아래서……

忠 清 北 道 跆拳道協會

6月 19日 밤 10時 淸州로 들어가는 高速公路路邊은
울창한 街路樹의 터널로 뒤덮이고 드문드문 별빛이 떨어지는
우아한 분위기였다.

全國을 一日生活圈으로 묶은 高速公路를 따라서 江
原道, 慶北, 大田, 淸州를 四日만에 주파 市道支部 및
學校와 기타의 取材를 곁들이면서 우리의 跆拳道界도
日日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의 跆拳道 깃발아래, 團合
되어 가고 있다는 確信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낮모를
승개과 함께 달리는 高速巴士의 快速前進이 무슨 길조
를 豫見케 하는 것 같기도 했다.

原稿管理와 필립 및 資料를 整理하느라고 잠을 설친
채 깨어난 아침 이런 생각은 적중했다.

通行禁止가 없는 都市, 人口比例와 經濟開發이나 交
通面에서 他道에 비해 뒤져있는 內陸의 道 忠北은 그
러나 이 道가 주는 印象만큼이나 깃발 跆拳道精神이
體質化되어 있는 곳이 있다.

道支部를 紹介하기에 앞서서 忠北은 女敎師가 跆拳道
를 배워 學生들을 指導하는가 하면 盲人까지 跆拳道
敎育으로 再生의 기회를 나누고 있고 淸州大學은 體育
學의 專攻필수 科目으로 跆拳道를 採擇하는 등 앞장
前進를 거듭하고 있다.

鄭甲淳會長과 丁益鎮, 金鍾宜副會長 그리고 金龍 專
務理事 등은 입을 모아 첫마디로 『적어도 忠北에서 跆拳道
를 하는 사람이면 跆拳道精神이 끊임 없는 自己修
練을 통해서 相對方을 尊重할 뿐 아니라 相互의 理解
와 協助로서 祖國에 奉仕하는 國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며 『이것을 意識하는 것이 國技跆拳道
發展의 지름길』이라는 것이 우리의 所信이라고 말할
다.

가장 잘 만들어진 法文에 구멍이 있다는 俗談과 마
찬가지로 가장 高度화된 行政體系와 機構에도 허점이
있다는 論理는 全跆拳道인이 다시 새겨를 命題이다.

그것은 外形에 앞서 內面的 總和團結이 무엇을 意味
하는 가를 再考할 때 結局은 人間의 創造能力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 制度가 于先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
결」과 「키일게결」의 論爭에서도 뚜렷이 볼 수 있다.

이런 意味에서 忠淸北道 跆拳道協會가 가장 規範의
인 面을 보여주고 있다.

忠北은 跆拳道라는 깃발아래 一致하고 있으며 또 초
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籍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區分해 부르
기 爲한 姓과 이름에 不過합니다. 또 家門이라는 것이
있어서 善惡의 競争을 하는 口實 以上은 아닙니다. 좀
더 비유를 하면 新羅時代의 和伯別度가 忠北의 跆拳道
協會와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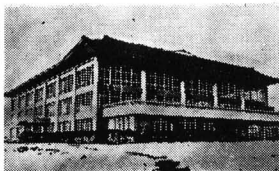
執行部의 構成에서 모든 行政系統, 經費支出, 行事
進行等이 이렇게 相互의 協助로 이루어지고 있다.

跆拳道가 國技로 또 이제세 世界의 스포츠로 발돋
올하게 되는 과정에서 忠北跆拳道協會는 草創期부터의
資料를 補充하여 小史를 整理하고 世界化의 발판을 꾀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忠北跆拳道協會는 世界化의 序章에서 跆拳道宗主國
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은 內的 統一, 團合, 競技力의
向上이라고 展望하면서 跆拳道가 스포츠로서뿐만 아
니라 國力의 바탕이 되는 體力의 向上 人格의 陶冶, 克
己로서 愛鄉, 愛族할 수 있는 社會의 情風과 改善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指標라고 鄭甲淳
會長은 다짐했다.

忠北跆拳道協會는 今年 여름 審判강습회, 9月에는
協會長旗爭奪戰, 10월 하순에 中高聯盟會長旗大會를
開催하여 中高聯盟을 궤도위에 올릴 뿐 아니라 同時에
11月 道內市郡對抗大會를 열 豫定이다.

協助와 團合으로 競技力向上을 꾀하고 있는 忠北跆
拳道協會의 來日을 期待한다.



國技院昇段審査 合格者名單

Promotion Test at Kukkiwon
List of those Passed.

심사에 응하는 태권도인과 지도자를 위해 당협회 기술심의회의 심사위원회 세칙을 연재한다. (二回)

審査委員會 細則 (前號에서 繼續)

第4條 審査申請要領 및 申請具備書類

- 第1項 世界跆拳道聯盟 傘下 國家單位 또는 地域協會에 査査施行을 要할때는 70日 以内に 本院에 査査 計劃을 通報하고 審査委員의 派遣 및 委屬承認을 받아야 한다.
- 第2項 應審者는 所定の 審査申請書(國技院 양식 1號)와 審査費 및 證明사진 (3×3) 3枚 提出하여 貳段 以上 應審者는 現 所持段의 段證書本을 願書에 添付해야 한다.
- 第3項 審査費 (十二號紙 페이지參考)

第5條 査査施行

- 第1項 査査執行員의 構成은 6人을 原則으로 한다.
(但, 必要에 따라 人員을 増減할 수 있다)
- 第2項 査査는 實技査査를 原則으로 한다.
- 第3項 査査施行要領은 아래와 같다.
가. 參段以下の 應審者는 品새 겨루기로 한다.
나. 四段의 應審者는 品새 겨루기 筆答試驗으로 한다.
다. 五段以上の 應審者는 品새 겨루기 및 委員會에서 提示된 論題의 論文을 提出해야 한다.
라. 四段以上の 應審者에 對하여 特技發表를 권장科目으로 한다.
- 第4項 施行區分

段	品 새		겨 루 기	其 他
	指 定	審査委員指定	時 間	
初 段	1	1	1分 30秒	筆答, 特技 論 文
貳 段	1	1	"	
參 段	1	1	"	
四 段	2	1	2分 2回	
五 段	2	1	"	
六 段	2	1	"	
七 段	2	1	"	"

第5項 服裝: 本院이 製定한 上下 白色道服을 着用하고 名種 마크 및 道場名稱 等の 附着을 禁한다. (續)

第26回 少年部 昇段者 (1974. 5. 5) (The 26th Junior Rank promotion Test)

〈소년부 초단〉 (1st dan of Junior)

백성일 姜聲旭 김재진 姜聲珍 백락훈

조용택 盧庚煥朴圭成 이시영 鄭好烈

이충강 이선용 이근동 이충구 金萬燮

李俊碩 黃宇煥 鄭太熙 芮昌燮 이성익

정원우	金文楨	백성열	김준범	李在範	김병훈	李成喆	陳相雨	洪榮基	허철
白樂天	조병환	金 一	정윤화	황경성	宋在根	Mark a. Page	安龍基	金賢洙	金賢洙
白樂一	康亨碩	黃世淵	李秀昶	邊揆大	이승수	신현준	이진희	이승재	李宜雨
鄭震敎	최수영	羅尙洙	尹相根	方昌旭	韓相燦	송상호	李昌宇	金憲晟	이진우
朴季書	辛承國	金寅謙	李贊永	손창현	李亨俊	李滌洙	趙祥準	하숙인	李相憲
申光熙	曹永光	崔盛旭	Richard Rodz		黃 振	정성일	김홍기	송왕중	李準祥
都昌成	金技洙	劉連根	趙炳植	李明鎬	이승한	이문식	金炳文	한안옥	박형근
朴鍾錫	유진호	金廷吳	李重憲	金廷吳	姜泰鎬	이우번	金道成	전순학	權宰弘
朴圭珉	李翰俊	閔明植	전윤석	명기동	李源宰	柳志炯	尹相鉉	김영배	金景旭
朴重彦	洪聖根	尹祥熙	金鍾仁	姜東日	박제형	金 石	황재화	朴英哲	이찬민
이섭주	김태남	金仁圭	한윤석	李興寅	羅起燦	全喜中	姜利具	姜利恩	崔秉德
池楨根	朴世鉉	徐漢星	김장현	김성운	고광운	李赫宰	姜智穗	서재식	김경섭
金倫會	李相權	이상철	이문순	손창현	金尙範	홍완식	Doron nutyati	Franklin J.	
林洪澤	金程秀	鄭求銘	金容一	鄭義庠	aderton	Tator Thomas	朴鎬山	이덕희	
安宗煥	黃善球	李炳國	신상옥	柳敎熙	정용식	安昌俊	李富烈	金泰善	宋俊鎬
이창호	鄭 憲	宋元錫	金致亨	金周星	承寅秀	尹贊豪	李丙喆	金雲培	金仁成
박성식	朴烈平	金珍燮	朴勇勳	李謹永	Sherly J. Aderton	金 水	李尙潤	강남신	
金東俊	權赫仁	정재화	金世均	윤지영	尹瑛熙	이병학	申奉重	崔在熙	金英南
李喆熙	황상우	尹冕斌	金學相	鄭銀榮					
李吉靚	朴天緒	金東豪	徐政虎	윤상준					
염기훈	윤준명	박상형	임용화	이석희					
박종삼	崔得星	朴珍珠	조정원	安秉一					
이재춘	金勇吳	최영부	孫昇台	신재덕					
李仁基	李相道	許榮逸	劉泳秀	金炳鎬					
許在濬	全暉浩	김희암	李光振	김은영					
정우용	朴鎭吉	孫長煥	宋在弘	河 英					
반종현	權大吉	金成顯	成珍鎬	李鍾烈					
裴東旭	具弘謨	李元炯	권영기	吳英國					
皮羽甲	이종국	安淳鍾	李揆浩	박문홍					
丁海元	高道永	李鍾讚	閔炳雨	河 應					
姜敬圭	崔龍顏	朴成喆	朴爽根	洪建源					
姜大成	이종승	李根夏	차재준	金泰俊					
金星勳	辛東周	李珍權	尹秀榮	尹垣哲					
이춘우	강동현	金學俊	李善弘	千義相					
김병웅	金大煥	송동호	洪于潁	金完吉					
崔賢鎬	金亨坤	吳重植	洪吉和	金容求					
李奎南	孫榮峻	金相植	金富源	이경수					
전경철	金興植	조관형	조희도	진경일					
白元根	양의열	金得基	朴 旼	안세화					
李相榮	金判俊	崔彰益	金 昊	李鍾泰					
金尙郁	裴龍勳	김원용	金靜雪	金龍範					
金龍台	鄭龍萬	張峻榮	尹楨燮	梁天宇					
禹宗均	全翼成	孫準模	李泰圭	張景碩					
朴準壽	朴煥成	姜漢相	鄭根和						

제27회 소년부 승단자 (1972. 6. 2)

(The 27th Junior Rank-promotion Test)
(1st dan of Junior)

<소년부 초단>

崔昌圭	曹圭烈	李基哲	최병민	장재수
金鴻萬	박응석	조요근	蕭喜澤	양희곤
宋永善	이장순	朴南稷	鄭明善	이경진
金成歎	박성웅	鄭承洙	진주화	李在相
孔宇正	朴玄逸	정유석	조성린	鄭然秀
申允植	金奉奭	朴鎭晟	金永宰	洪錫勳
李衡植	鄭永一	奉弼石	金承範	양재필
金南薰	太賢植	吳明哲	金燦武	李斗憲
李旭善	최상현	민용기	李文鎬	李哲熙
주원철	趙鍾勳	정성영	박상우	高相奉
韓成圭	沈炯輔	鄭明道	김현구	玉完洙
吳龍虎	최진원	張賢德	李民星	李 晃
윤영민	이재완	김원규	李遇勇	金永萬
윤병하	吳弘均	李鍾赫	吳成煥	문병신
이봉구	이용상	최진석	徐敏又	柳承烈
孔錫斗	徐興洙	金亨燮	金大寬	成始益
임종효	안희돈	조중현	김보식	朱昌圭
鄭相浩	李亨鍾	유명준	尹淳將	유정식
최용원	김인태	김형욱	배수철	尹允秀
金完基	李元九	이재원	金秀哲	李廷權
김범석	김정무	신준중	崔圭圭	姜炳秀

김성구	權泳宜	韓圭政	현원일	정규해	이효은	김광호	길기호	정보영	최재욱
李根茂	김진국	박재희	崔光旻	高承在	表貞泰	吳大鎭	車政國	洪哲杓	김일점
李龍基	李元相	陳建忠	李재虎	柳根熙	윤인규	이장욱	이정환	이희생	한봉진
韓成準	文濟亨	홍성대	김재모	金仁植	金龍顯	吳相雲	차영만	朴鍾範	김기만
金俊衡	배재호	朴榮和	趙成爻	金在宣	유동식	이희욱	김현수	유현기	황인식
朴永信	차희열	황국진	孫錫宇	金政湜	吳東根	朴台煥	김현태	俞元祚	김익식
임충성	李元相	尹洪晟	홍성표	鄭皓永	박재민	이창주	송남형	이영진	김태인
오한빛	김종걸	葵洙昶	김상우	金亨柱	이정민	김현추	김상호	이정모	고경안
金善一	배재호	염신호	尹正圭	박운수	임성춘	박형준	김용경	정성주	조원진
최정원	황이신	鄭源達	李鍾源	郭善天	최규철	윤석희	한재영	박갑호	박호근
박태원	李思榮	이민영	權玟承	권태정	박태진	배재형	염한식	장성정	주형희
朴 淳	박영일	우정훈	김형석	李豪根	최재원	김형석	전상혁	조용진	강영철
김용석	金哲洙	趙誠焄	명재훈	成赫濟	남승수	유종열	장지호	최완영	권성훈
임금국	朴珪奎	李璇九	朴亨根	李碩宰	박종진	박준영	이명진	이창원	유정현
柳基賢	김성남	李相培	趙洪來	윤태정	남상록	박영복	박성환	김원수	이응문
李永哲	李敬鉉	崔聖來	김현중	尹鍾聲	한정석	정진욱	윤준희	박준범	이정식
朴星淳	都京煥	김대진	차준원	太景燮	도경진	김현관	권영훈	오택수	김성룡
김재순	이두승	이준호	劉康俊	韓哲玄	Timothy D. Calver		최병철	허준행	신정교
김철승	고재욱	李奇性	李庸一	張珉碩	김승한	이호강	송종훈	고유화	박경배
金春華	金元會	李宰孝	김태신	尹相元	James K. Ruble		인수태	소재영	백광현
朴正祐	鄭在億	鄭太榮	李在熙	柳基榮	박진배	홍성표	박영서	문명숙	양영상
金道秀	金壽元	어범산	尹載弼	權玉官	김태용	구본진	공번준	임성한	부인형
趙鎬默	김유신	李珍山	전재양	成有敏	변재완	변한호	김성한	김유민	김지양
朴영철	朴陽奎	서성환	崔京奎	張南濟	라승철	국진성	조관영	박재서	조상현
김진수	尹炳道	李鍾哲	이종익	유진욱	안용주	이정호	정윤석	우종남	조범주
金慶旭	변정환	김경호	李德宰	崔元榮	이경훈	최진선	박종호	김재원	김재권
李知茂	金淙會	최 율	金彰浩	白明基	양정철	서 영	이홍식	김혁중	장진석
이문수	李起瑞	蘇智永	朴明根	金亨宰	신동원	강호진	백기현	민병목	노영천
김유승	최동수	鄭鎭榮	문상식	崔泰榮	윤철식	Jemane Ryan		김형철	배성준
이종인	韓成浩	James R.well		이정준	염상하	김상동	김동규	박영욱	이병호
韓昌東	金正浩	김한주	文京煥	박기태	박희정	문광식	박은규	이태하	이인재
박용완	金承徹	蔡敎尙	주 한	梁相熙	임규서	이현중	이재호	문종환	유광재
김윤식	文相輔	崔圭鉉	金敏洙	徐源俊	최동현	남상근	정세영	정민구	박상용
李熙鍾	朴喜永	金在鉉	宋河錢	李明燮	Joseph T.Ryan Jr		당병현	윤선태	최병욱
김용진	林聖哲	金鍾彬	李哲中	安正會	장운선	이상근	노광균	최성배	손호승
金龍鎭	김성우	張星燾	조영석	황진철	박서하	최태호	박보영	신진호	김형조
김정용	方昌煥	서병운	유학준	鄭哲鉉	이윤주	박성남	김효준	오병식	이원우
柳 美	강철규	張仁豪	金德勳	조우진	한민호	이시종	김효승	양병택	김진규
박영희	유승준	表克和	金仁圭	성해성	박영훈	김남훈	박성대	김영인	손승웅
張圭洙	황순용	鄭倫燮	金哲基	정상현	이강인	권순근	이진선	엄인웅	최윤명
유영진	민지영	조성찬	여경구	윤연수	안성철	유종호	한광희	이시우	김낙균
裴優洙	金周燮	劉永珍	宋在儀	馬明壽	김영삼	송상영	김형석	조성만	손상호
김재학	박찬규	이형기	김태영	양희동	김대휘	최원영	명창일	박태성	윤태경
金靑勳	劉承旭	박호용	정우남	李秀衍	최원주	장무영	유경식	강철홍	박성봉

제26회 소년부 승단자 ((1974. 5. 2))

〈소년부 2단〉 (Second dan of Junior)

천호진	배동서	이재근	박영기	김재민
김유진	홍순환	정대식	김동섭	정창석
정열태	이영철	어원	조상구	최휴정
정안태				

제27회 소년부 승단자 (1974. 6. 2)

〈소년부 2단〉 (Second dan of Junior)

박옥섭	윤찬중	박성호	김동욱	김창길
이포열	김상현	김용세	이승태	지창호
유성현	락윤창	김한노	이원석	정명호
이규승	서일수			

제58회 성인부 승단자 (1974. 5. 12)

(The 58th Adult Rank-promotion Test)

〈성인부 1단〉 (First dan of Adult)

고명성	이동인	김성암	이동근	김용덕
신용균	이민우	박상학	최민석	기성훈
박영기	이용기	이승철	김창식	김대균
최관성	신동면	타종주	최병선	이동운
김재훈	강원식	조왕기	김관호	박제영
서장택	윤영조	이양우	김재창	김현복
김용균	박득철	정인성	오세권	박사수
허명원	변용철	오화식	김대식	정만율
이경천	이홍주	배찬	김기연	서강록
서영석	한만우	박완재	이기환	진성수
김홍권	최광민	강영복	황규영	이강우
오정열	김태주	권태식	김동진	김영관
박순기	정재웅	박장하	김효수	이동윤
박정섭	김동일	조원복	노성국	차성주
김문권	장영배	김태영	홍성용	이상규
김경태	이천강	이진연	김준섭	설장환
이경구	서영석	이경상	조광선	황영근
장배순	송성호	김광현	서지수	이재봉
신창호	정병국	신현곤	전신걸	김경환

이종완	서정권	김중연	변종만	김진수
이준희	김연태	박수정	김경찬	한상천
배선현	박용찬	공홍진	유현실	김근
이종만	신수홍	변태환	박인진	김정복
최기윤	권태은	김영춘	문희종	최원익
이광우	한인철	조금만	沈鼎燮	박영철
김홍삼	윤기철	장순구	김재명	장명학
김성민	권오길	신효선	박준	박강용
조준열	하천기	김성욱	심명필	장종열
최광의	오재영	유현진	김원태	안노수
김용천	백남윤	김흥기	권승룡	강관준
한홍진	오원식	장용복	김도수	서성원
정병주	강구효	김현용	노정석	김인철
장해진	박지곤	송하용	고재원	이영호
안성수	박광범	송기정	장기호	강덕영
김주홍	강용자	김남오	문성만	최병호
고길원	강석주	유기호	이철재	권기호
박기원	양무웅	김영운	이광남	표순남
황인수	정인철	이철구	김귀남	김준호
은해출	박봉대	장정필	박수진	조상연
최규태	김명희	이찬규	김용남	승희도
김종복	박만규	고영수	최용배	김종호
이상훈	이효락	임택원	신민식	강동성
조재복	김제일	정연수	이학승	이오석
Truman J. best.		송금성	김승용	박원국
김용겸	이광호	이지희	홍성철	임효섭
오창민	김길호	김형모	홍인호	최윤철
박정복	손기수	윤인식	황주홍	김정희
김국모	최진태	김태진	황원호	김명환
김상일	홍순익	안효신	장영근	김광원
김용환	강홍록	송준원	이재욱	구인회
장영인	양유송	신원휴	김기순	신은순
Ursula Margret Morgeli			최홍배	송시영
최영준	최미자	한병숙	홍승호	노홍수
박장욱	김문심	이종애	전원희	양경수
유장현	한정희	조양순	최원택	이진수
한광우	김수현	이귀순	이애영	멀리순자

Carol hundsberg	Burglind Tolzke
Silvia Daniela	Make S. Wagner
Anthony Gewakos	David pierce Jr.
Duane Sandrin	John T. Heard
William P. Cvammings	Douglas Alan Nash
David m. Potters	Charles Elmore
Ernest a. Simmons.	Edward J. Babic

Kim B, Stargel	Robrt Alanvatilla.
John K. Jackson	Frederick S, Bomba
Nelson R. Borrero.	Quitugua Joe
Baker John E.	Gregory D. Hardee.
Levy Rebert, G	Irvin G, Darnes
Abney michiel K.,	David D, Harvay
Michael h, Humphrey	Adrian R, Lewis.
David Westling	Frngl L, Sallas
Allen S, Jackson.	Alfred a, Cecchetti
Willian Robinson	William a, Christion.
Josepl W, Wjkins	Paul a, davis
Joel Gary Hunter,	Dave Kim
Dennis E, D, James	Dennis michael mcgee,
Melvin Earl Walters.	Robert h, Binder.
Sabagala J, Philip	라승원 김중서

김대용	정병선	김영호	김복수	전 휴
윤순원	손종택	김탁원	김학욱	권병구
신동욱	조맹호	이석원	김정옥	이용희
도영수	원일명	김기정	한재웅	하명규
김영수	오재영	황용섭	고삼환	박정호
정진국	박중재	김춘배	이영구	

〈성인부 5단〉 (5th dan of Adult)

이소우	최영욱	민홍기	정용화	최성동
정석순	황지성	강희창	강종길	조강종
김송두	김연경	박정환	김중성	이준현
손창식	이종원	서병수	김종현	황석근
이기상	추광호	김일호	박각철	허인식
이금수	오완주	박종복	서경석	이기동
오운택	김민구	정구형	민영환	박원우
최학수	한완수	김태윤	정봉만	김계열
박석용	신창서	정태열	구경도	엄중식
윤수균	이복한	최대영	홍원기	최대택
김효열	이준호	황명용	임정호	

〈성인부 2단〉 (Second dan of Adult)

김민규	박준길	신현태	이용호	유영은
김종인	백진상	손경수	박방현	김호섭
유동선	강태봉	이동효	김영기	김기승
남판현	김대식	김용갑	고천용	박수용
권기배	박승덕	김상근	김병수	장기영
김승화	김덕기	박창호	이지호	이후만
시성구	차상희	박종기	서희관	지승원
김인철	유삼도	김영호	이송모	김정숙
김기중	이상국	방상오	최권성	김영진
전만표	정봉열	김진문	Peter Chie	
신기남	이양형	김동선	김광삼	박노성
홍상진	김재우			

제28회 소년부 승단자 (1974. 7. 4) (The 28th Junior Rank promotion Test)

〈소년부 1단〉 (First dan of Junior)

강명구	형원준	이준섭	김상철	서창우
박기정	정영근	김명환	최정훈	김현수
박종순	양재진	안규환	신현오	조배용
박상언	강봉석	최호선	조상범	최진혁
조현영	김의배	안정준	최종호	전강진
이상구	윤배근	Stephen scerbok		
윤광섭	최상태	한정희	김영호	김진호
김양균	이형재	이병채	구분영	황병호
Chris Green		김정완	김효철	심성호
조용희	이병하	박종배	송태상	김승현
윤충렬	송길	윤광진	이윤원	최성규
김희돌	김재준	안정호	김경민	최호상
노전기	박기동	김동완	강신욱	박종원
전현배	라정환	Matthew B, Scerbok		
배원혁	전영삼	김창현	김상혁	김재현
김광준	정상만	조경만	문장석	박용모
김동선	송영우	이상호	박승배	정승준
김영진	박상욱	김병노	한성우	윤용환
김성윤	이희근	강우희	허재윤	이상원

〈성인부 3단〉 (3rd dan of 3Adult)

김경수	김영화	최문환	이취명	봉승열
박종태	권순종	민기섭	장인수	이경효
유수철	오승준	이현재	박용준	

〈성인부 4단〉 (4th dan of Adult)

현종식	채진열	김창균	박소훈수	김광환
이필수	김오수	임병자	정동안	황대익
남궁명석	김인규	최영	최인영	노윤복
김언곤	정영식	김병기	박상채	백성기
장남기	배정영	모상식	송정모	강진국

김삼훈	이인재	김창중	이용서	곽재순	김태수	이영구	유인환	송호준	박희섭
안창범	인해진	공종성	박우성	이용배	김학웅	박성진	이동수	정동환	방주형
박병주	강신재	안성번	김사식	이승표	유영필	임성묵	함승훈	이상익	최승준
홍선명	김재현	벤자민	유재성	김재순	김상은	최양오	조동성	김덕용	윤명수
이형근	김영환	오세경	배종원	이성식	엄광섭	박대웅	전유태	백승훈	김익수
박진우	박만식	이승배	박경준	조경배	김종범	김훈근	이원근	장인석	이한왕
이상현	이응준	조용상	박광옥	윤여필	양진원	장정식	김순기	문병태	이현철
이형기	김진한	송근호	이 한	문원재	이형규	이경근	조정도	홍윤기	김주호
박경록	안민영	김친호	현재호	박준태	박종근	한윤성	박종필	안친수	박 철
박기일	하상수	이상훈	이상민	이상민	이길재	윤영철	박준서	이승진	유성연
한상진	정평모	안민재	이재선	김현석	강승길	이상희	도영범	홍기운	공용선
지용근	이덕우	이 원	김현수	윤주석	안병진	조현권	허승호	김택균	손병훈
최기태	허 훈	곽도암	장용석	노희연	성문석	김도현	고영인	이병규	윤완희
조경환	신세영	임홍석	이상영	신승철	이진호	박정남	한도연	김연철	이승진
권현철	노정민	이홍우	이찬우	김현준	최덕영	최덕현	정주영	고영태	김두호
서창우	방종민	권한옥	장한식	이용철	이인호	이종남	김성기	김경섭	송호신
김성수	이성재	이근옥	이현구	이윤덕	권성식	장홍석	신창섭	김신규	여병만
최승환	신경철	강신진	김용희	이승배	강석봉	홍지선	오성준	이현철	박정호
박후진	김범수	박광선	박세풍	김영일	유철수	이성재	김진구	정주열	박상호
박정민	이 화	김태윤	안종덕	양종모	윤원수	范錦山	조영진	조용균	최용기
한정수	임진빈	강석원	김철승	김환태	오홍태	지성철	서정욱	현정환	박정호
이성화	하순이	이석구	이준선	김창섭	김경일	문대현	백한영	유승우	김한순
장윤석	손창환	장세훈	이철민	황진팔	김대성	조영진	조용균	강석봉	홍지선
이기호	김지환	유신종	진명범	한태원	오성준	정승기	강현철	이승철	정기종
이하영	유준호	한대진	김양익	정경일	김경일	문대현	박상호	윤원수	변찬수
강지구	피석현	허 진	윤병관	김승현	안선후	한 욱	김경서	이기림	채희준
하동욱	Cenobia Y. Morant		최대식	최대식	황명하	이재필	문재기	조현철	조인재
오창용	고명석	이동현	홍동표	조수진	유동진	이기택	최안석	이현호	김민배
손상락	안호진	성주훈	김승한	이철희	신동석	안기홍	김연수	윤운용	최철호
황이순	권기범	양대원	선용광	허효성	박상문	김동현	김복규	위영민	김종문
Patwary Sandra Sola			조영환	정찬환	정해구	신규호			
이용만	김희준	이한균	임형국	이경식					
심현철	윤세진	윤종수	유민재	박기수					
한병길	김한주	김육균	이승필	박준환					
조돈형	임승택	유일수	조성원	정기준					
이종호	김용범	한승엽	Karuna Arand						
손영민	Raniif Anand	안대승	권도현						
김준호	김진규	문석민	박영일	이형한					
신현영	최승규	김진기	고용남	정남일					

〈소년부 2단〉 (Second dan of Junior)

김정호	김상종	배상우	강승학	김동진
박문식	김 철	김용준	한우영	진성중
김영식	김종표	김동연	김영국	박종열
진성행	김민호	조성진		

國技院의 얼굴인 正門이 새로建立되게 되어 지난 九月二日 午後 上樓式이 嚴雲奎事務總長 洪鍾秀 國技院 副院長 그리고 協會任員과 職員이 참가한 가운데 풀려졌다. 韓式으로 設計된 一柱계와造인 正門은 아시 아大會前에 竣工된다.

世界跆拳道聯盟規約

제1조 명 칭

본 연맹은 세계 태권도연맹이라 칭한다.

태권도는 고유한 한국문화의 소산이다. 본 연맹을 조직함은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한국의 전통적인 정신과 기술을 세계 만방에 올바르게 보급시켜 한국이 태권도의 지도국으로서 그 사명과 지도적 위치를 항구적으로 확고히 계속 유지하는데 그 의의를 가지고 1973년 5월 28일 창립을 갖었다.

제2조 목 적

본 연맹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맹은 태권도의 기술 향상과 회원국간에 합리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국제간의 우의를 증진한다.

2. 아마추어, 비아마추어, 프로 등 모든 수준의 경기를 적극 장려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각 가맹협회 회원 및 선수 상호간의 이해와 친선을 증진한다. 단, 장차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었을 경우 아마추어, 프로는 완전 구분한다.

3. 본 연맹은 가맹국 협회에 대하여 지도를 담당하고 요청에 따라 공인 국제 사범을 파견 지도케 할 수 있다.

4. 본 연맹은 가맹협회를 통괄하고 규약 및 규정의 정확한 적용을 감독한다.

5. 세계 선수권 대회, 대륙별 선수권대회 기타 국제친선대회를 개최코져 할 때는 본 연맹의 승인을 받고 본 연맹의 경기규정을 정확히 적용해야 하며 본 연맹은 이를 감독한다.

6. 본 연맹은 각종 국제적 행사에 있어서 태권도를 대표하고 그 권익을 옹호한다.

7. 가맹국 간에 모든 분쟁을 조정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려 실시케 한다.

8. 본 연맹은 어떤 형태이든 정치적, 인종적 및 종교적 차별대우를 전적으로 배제할 것을 선언한다.

제3조 소재지와 공용어

1. 본 연맹의 사무국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단, 본 연맹 총재가 사무국 소재국과 국적이 다른 자로 선출될 경우 총회에서 5분의 4의 결의를 얻어 사무국을 옮길 수 있다.

2. 본 연맹이 사용하는 제1 공용어는 영어로 하고 대한민국어를 제2 공용어로 한다.

3. 문서 기타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영어에 따르며 그 이견이 태권도 기술상에 관한 문제인 경우에는 한국어 원본을 기준으로 한다.

4. 회원국은 모든 회의에서 한국어로 발언할 수 있으며 통역은 원칙적으로 영어와 한국어로 한다.

제4조 구성 및 가맹

1. 본 연맹의 구성은 한국 태권도를 수련하는 국가 또는 자치령 단위 단체로 구성한다.

2. 본 연맹의 가맹은 본 연맹 실행위원회의 승인과 총회의 인준으로서 가맹을 인정한다.

3. 본 연맹은 국가 및 자치령에 대하여 1개 단체의 가맹만을 인정한다. 단, 특정 지역에 한해서는 실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1개 단체 이상을 가맹시킬 수 있다.

4. 한 국가 및 자치령에서 2개 이상의 단체가 자기 대표권을 주장할 시는 해당 지역 올림픽위원회나 최고 체육 행정기기관이 인정하는 1개 단체에 대표권을 부여한다.

제5조 회 비

1. 본 연맹 가맹시는 임회비 200弗을 납입해야 하며 정회원은 년회비 120弗을 매년 3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원중 천재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한 특별한 사유로 납부치 못할시는 실행위원회의 결의로서 그 전액을 면제 또는 감액을 받을 수 있다.

2. 본 규약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치 못한 회원국은 본 연맹의 총회나 기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6개월 이상 체납일 경우 본 연맹 사무총장은 미납국에 독촉장을 발송하며 계속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상실된 회원국중 체납된 전액을 납입한 가맹국은 실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권이 될 수 있다.

제6조 재 정

1. 본 연맹의 회계 년도는 매 2년이며 그 개시년도의 1월 1일을 개시일로 한다.

2. 1) 총회는 공인 회계사를 지명해서 재무분과위원회에서 승인된 연맹 회계를 조사확인 하도록 한다.

2) 공인회계사의 임기는 4년이다.

3) 공인 회계사는 회계 보고서를 제출한다.

3. 1) 각 국제대회가 행해지는 국가의 협회는 본 연맹에 해 대회의 총수입금 중 총회가 지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본 연맹에 납입해야 한다.

2) 만약 해율의 납부시 외환세 또는 이전세가 동금액에 부과될 경우 이는 해가맹국 협회의 부담으로 하며 본 연맹은 해율의 금액 전액을 수취한다.

3) 동 명세, 납부금은 대회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송부해야 하며 이를 준수치 않을 시는 실행위원회는 본규약 제18조의 벌칙을 가할 수 있다.

제7조 총 회

1. 총회는 매 2년마다 개최되되 세계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는 년도는 총회를 대회와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최지 결정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가맹국간에 균등하게 윤번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세계 선수권 대회가 거행되지 아니하는 년도라 할지라도 총회는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책임은 전담할 회원국이 없을 경우에는 본 연맹본부 소재지에서 이를 개최한다

2. 총회의 소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재 및 부총재 선출

(2) 본 연맹의 규약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3) 규약에 의하여 한계가 정해진 사무국의 업무처리

(4) 회의록 및 회계년도 수지결산 보고서 통과

(5) 세계선수권대회

(6) 올림픽 위원회 위원선출

3. 회원국은 3인 이내의 대표를 총회에 파견한다. 단, 1인만이 투표권 및 발언권을 갖는다.

모든 대표들은 회의 개최전에 사무국에 정식으로 서명된 신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의록은 폐회후 2개월 이전에 각 회원국에 배포한다.

5. 총회는 실행위원과 가맹국 대표로 구성한다.

6.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국의 의원은 그 회의의 위임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실행위원회와 총회의 성회는 재적국 3분의 1의 참석으로 성회되며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동으로 가결된다.

8. 실행위원회의 선출과 개인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의 투표는 비밀 투표로 한다.

9. 총재는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 8 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 소집에는 최소한 회원국 반수 이상의 서면 신청서를 본 연맹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집 이유가 명백하여야 한다.
2. 동 회의는 총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 개최한다.
3. 총재는 본 연맹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의사 일정에 없는 사항은 임시 총회에서 심의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임 원

1. 본 연맹의 실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총 재 1인
부 총 재 3인
사무총장 1인
실행위원 21명
2. 실행위원은 개인자격으로 선출되는 것이며 국가 대표로 되는 것은 아니다. 동 위원회의 사임으로 동 직위가 소속국의 다른 위원으로 자동적으로 충당되지 않는다.
공석위원의 보궐선거는 실행위원회에서 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한한다.
3. 선임된 위원에 재선임 될 수 있다.
4. 실행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5. 회원국의 실행위원 후보 신청은 선거 3개월전에 본 연맹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후보자가 선출되면 동 후보자 소속 협회는 최소한 1년에 1회 개최되는 실행부 회의에 그가 협조할 것을 보장하는 서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에는 회원국이 그의 여비 및 회의기간 중에 체제 책임을 부담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7. 실행부는 총회와 다음 총회까지의 중간 기간에 본 연맹의 활동사항을 관리한다.

제10조 총 재

1. 총재는 본연맹을 지휘하고 대외적으로 본연맹을 대표한다.
2. 총재는 의무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부총재 3인, 사무총장 중에서 그 대리인을 지명한다.

제11조 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총재가 지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사무총장은 운영 사업중에 문서 및 서신 정리, 일반 행정, 직원의 업무, 각국 협회와의 관계, 대회 관계를 관한 장악한다.
3. 사무총장은 사무국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본 연맹의 총재 또는 그 대리인은 연맹의 권익 면에서 야기된 여비 일체를 부담시킬 권리가 있으며 동 부담에 대한 계산은 공개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1. 실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선출한다.
 - 1) 기술위원회
 - 2) 재무위원회
 - 3) 홍보위원회
 - 4) 의무위원회

2. 동위원회는 위원 4인과 위원장 1인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위원회기능

1. 기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규칙 제정 및 개정
- 2) 세계 선수권대회의 결과 및 중요한 국제행사에 관한 세부적인 검토, 전기 대회 및 행사 개최 조건의 검토
- 3) 국제 심판 명단 작성 (저짜 및 테프리)
- 4) 심판의 임기 설정 (저짜 및 테프리)
- 5) 판정서 및 항의서에 관한 발간물 편집
- 6) 본 연맹에 관련된 모든 전문사항
- 7) 선수권대회, 국제경기 등 회원국과 합동으로 본 연맹에 참가하는 행사의 일정수립
- 8) 국제적 규모의 기술 심판 강습회 개최

2. 재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본 연맹의 예산 편성
- 2) 본 연맹의 지출 통제
- 3) 부과금, 세계 선수권대회 인가세, 대회 참가선수의 재무, 국제 경기 등에 관한 모든 출납의 업무사항

3. 홍보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발간물, 성명서, 텔레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태권도 선전사항
- 2) 기관지 발간

4. 의무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태권도 선수의 의학적 보호
- 2) 제반 과학적 연구에서 얻은 경험수집 및 과학적 연구수행
- 3) 일반적 태권도 선수의 건강보호에 관련된 기술 연구 및 과학 연구의 발표

제15조 규약 및 규칙의 개정

본 현행의 규약 및 규칙의 변경, 추가, 삭제 또는 개정은 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만 행해진다.

제16조

본 규약 및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난제가 발생하였을 시는 실행위원회는 총회의 사후승인을 전제로 제문제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제17조

실행위원회는 본 연맹운영상 필요한 내규를 제정 및 개정 할 수 있다.

제18조 제 재

1. 본 연맹은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 1) 경 고 2) 견 책 3) 벌금부과 4) 자격정지 5) 제 명

2. 본 연맹 실행위원회는 본 규약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전향의 제재를 행할 수 있으며 추후 총회 인준을 득한다.

3. 벌과금은 100 邦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과한다.

본 연맹은 순수한 경기 운영만을 장악하고 심사에 대한 권한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본 연맹은 한국 태권도 수련국으로 조직되었음을 내 전제로 하고, 승단 심사에 대하여는 한국에 있는 태권도 기술의 최고 전당인 태권도 국가원의 승단 심사권에 절대 승복하고 이행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다.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Article 1. Name

The Federation shall be called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TaeKwonDo is a product of traditional Korean culture. The significance of organizing the Federation lies in propagating TaeKwonDo along with its traditional TaeKwonDo spirit and techniques the world over, thus fulfilling Korea's mission and maintaining her leading role in world Tae Kwon Do. The Federation is founded as of May 23, 1973.

Article 2. Purposes

The purposes of the Federation are as follows:

1.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TaeKwonDo technique among member nations (or national associations) furthering international friendship.
2. To positively encourage TaeKwonDo competitions in all levels, whether amateur, nonamateur, or professional. However, in case TaeKwonDo is incorporated into Olympic Games, professionals will be distinguished from amateurs.
3. The Federation shall assume responsibility for technical leadership over the member national associations and dispatch instructors when requested.
4. The Federation shall control the member national associations and shall exercise supervision and enforcement of the regulations and rules of the Federation.
5. When a member national association plans to hold such international Tae Kwon Do events as World-wide Tae Kwon Do Championships, Continental Championship and other international friendship championships, the promoting association shall obtain prior approval of the Federation.
6. The Federation shall represent all members and affiliates and shall protect their rights and interests.
7. The Federation shall arbitrate any disputes among member national associations.
8. The Federation declares that it will exclude all political, racial or religious prejudices.

Article 3. Headquarters and Official Language

1. The Secretariat or Headquarters of the Federation shall be located in Seoul, Republic of Korea. In case the president of the Federation is elected from among the citizens of another nation the location of the Secretariat may be moved to that country, provided that the change of location is approved by 4/5 majority vote of members.
2.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Federation shall be English; the secondary official language shall be Korean.
3. In case of disagreement over interpretation or translation the English version shall prevail. In case of disagreement over interpretation of technical matters of Tae Kwon Do, the Korean original version shall prevail.
4. Any member national association shall have the right to speak in its mother tongue, and the speech shall be translated into English and Korean languages, or such other languages as

may appear necessary.

Article 4. Organization and Membership

1. The Federation membership shall consist of national Tae Kwon Do associations or organizations representing the various Tae Kwon Do groups existing within the national boundaries or self-governing territories.

2. Admittance into the Federation shall require the agreement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Federation and majority approval of the General Meeting.

3. The Federation shall approve only one association or organization from each nation or self-governing territory. However for special area more than one association can be admitted into the Federation with the decision of the Executive Committee.

4. In case more than one organization claims to represent a nation or a self-governing territory, the dispute shall be solved by the national Olympic Committee or top sports administrative authorities of the nation or self-governing territory concerned.

Article 5. Membership Fee

1. Entrance fee of US \$200 shall be paid when admitted into the Federation. Annual dues shall be \$120 payable before the end of March of each year. However in case a member nation is unable to pay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such as acts of God, natural disaster, war, etc., the payment of fees and dues may be waived or decreased by the resolution of the Executive Committee.

2. Failure to pay membership fee will suspend membership and qualification to participate in the General Meeting or other meetings. In case a member defers payment of the fee for more than 6 months the Federation Secretariat shall send a demand note. In case the member defers payment for another 6 months, its membership shall be cancelled. With the payment of the arrearage the deprived membership may be restored, with the majority approval of the Executive Committee.

Article 6. Finance

1. The fiscal year of the Federation shall be 2 years. The fiscal year starts January 1 of the starting year.

2. a) The General Meeting shall appoint an independent licensed accountant to conduct an audit of the accounts and financial report submitted by the Financial Sub-Committee.

b) The term of office for the licensed accountant shall be 4 years.

c) The licensed accountant shall submit the financial report to the General meeting.

3. a) The member hosting international competitions shall pay to the Federation the designated percentage of the gross box-office income of the event.

b) In case any kind of tax or foreign exchange tax is imposed the host member shall absorb the tax amount and the Federation shall receive the full amount as specified in sub-paragraph a) above.

c) A detailed report and payment from the host members shall reach the Federation not later than 60 days after the event. In case of failure the Executive Committee may impose fines.

Article 7. General Meetings

1. General Meetings shall be held every 2 years. The World TaeKwonDo Championship

shall be held in the same year as the General Meeting at the same location. Each member shall be accorded an equal opportunity to host the World Tae Kwon Do Championship.

The General Meetings shall be convened even in years when no World Tae Kwon Do Championships are held. In case no member volunteers to host such championships, the member nation where the Federation headquarters is located shall host it.

2. The General Meeting

- (a) Elects president and vice presidents.
- (b) Formulates drafts and amendments of regulations of the Federation.
- (c) Manages the affairs of the Secretariat as provided by the Regulations.
- (d) Approves the minutes and balance sheets of the fiscal year.
- (e) Holds Federation World TaeKwonDo Championship.
- (f) Elects members of Olympic Committee.

3. Each member shall dispatch one voting representative and two observers to the General Meeting. The voting representative only shall vote and speak for his delegation.

All representatives shall present their credentials with formal signature to the Secretariat.

4. The minutes shall be distributed to each member not later than 2 months after the closing of the General Meeting.

5. The General Meeting shall be organized with members of Executive Committee and representatives of each member.

6. A designated representative who cannot attend the conference may appoint a proxy with the written approval of his national organization.

7. A quorum for the conduct of the General Meeting and the Executive Committee Meeting shall consist of not less than one third of all members. A simple majority of members present and voting is required for passages of resolutions and or other business.

8. The election of chairman of the Executive Committee and the resolution on the personal status of the Committee members shall be by secret ballot.

9. The President has the deciding vote in case of a tie.

Article 8. An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1. Written application to the Secretariat of the Federation by the majority of members shall precede the summoning of an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There must be clear reason and ground for the summons.

2. The Extra-Ordinary Meeting shall be held at a place designated by president.

3. The President can summon an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in case of emergency.

4. Matters that are not included in the written agenda of the meeting shall not be deliberated.

Article 9. Officials

1.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Federation shall consist of:

- a) One President
- c) Three Vice-Presidents
- c) One Secretary- General
- d) Twenty-one Executive Committee members

2. The members of Executive Committee shall be elected as individuals not as representatives

of member national associations. Accordingly in case a member resigns, the post shall not necessarily be filled by another one of the same nationality. By-election for Executive Committee members shall be held in the Executive Committee meeting. The term of office for the newly elected will be the remaining period of his predecessors.

3. Members of the Executive Committee are eligible for re-election.

4. The term of office of Executive Committee members is four years.

5. The nomination of candidates for Executive Committee membership shall reach the Federation Secretariat three months before the election.

6. When a candidate is elected to the post of Executive Committee member, the member national association to which he belongs shall submit a written statement confirming that he will extend every cooperation for the annual Executive Department conference. The statement shall also confirm that the member national association will be responsible for his travel and other expenses during his stay at the conference.

7. Executive Department shall manage and control Federation affairs during the intermediate period between two General Meetings.

Article 10. President

1. The President shall lead and represent the Federation.

2. In case the President finds himself unable to accomplish his duty, he shall appoint two proxies from among the three Vice-Presidents, and the Secretary-General.

Article 11. Secretary-General

1. The Secretary-General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and approved by the General Meeting.

2. The Secretary-General shall manage Federation affairs, including general administration, affairs of Federation officials, relationship between member national associations and external affairs.

3. The Secretary-General shall submit a report to the General Meeting on the activities of the Secretariat.

Article 12.

The President or his proxy shall have the right to allot the travel expenses to the Federation for any venture which is in the interest of Federation.

Article 13. Sub-Committee

1. The Executive-Committee shall appoint the following four sub-committees and appoint the members of each subcommittee.

- a) Technical Sub-Committee
- d) Financial Sub-Committee
- d) Public Information Sub-Committee
- c) Medical Sub-Committee

2. Each Sub-Committee shall consist of a Chairman and four members.

Article 14. The Function of Sub-Committee

1. The functions of Technical Sub-Committee are as follows:

- a) Formulate drafts or amendments of the regulations of the Federation.

- b) Confirm the results of the World TaeKwonDo Championship or important international events. Approve the conditions and promotion of such events.
 - c) Examine and appoint international referees.
 - d) Designate the term of office for international referees.
 - e) Edit the publication of decision results and protests.
 - f) Control all technical matters related to the Federation.
 - g) Establish the schedules for such events as championships, and or international tournaments co-sponsored by the Federation and member national associations.
 - h) Hold referees courses and lectures on technical matters on an international scale.
2. functions of Financial Sub-Committee are as follows:
- a) Formulate the budget of the Federation.
 - b) Control the appropriations of the Federation.
 - c) Manage all financial affairs ranging from dues, taxes on the holding of World Tae Kwon Do Championships, obligations to all the participants in the contest, to the international contests, etc.
3. The functions of the Public Information Sub-Committee are as follows:
- a) Carry out public information services through publications, press releases, and TV programs, etc.
 - b) Publication of Federation organ.
4. The functions of the medical Sub-Committee are as follows:
- a) Prepare medically protective for the safety of Tae Kwon Do contestants.
 - b) Collect data for, and perform, scientific research.
 - c) Report on the results of technical and scientific research on the protection of medical health of TaeKwonDo contestants.

Article 15. Revision of Regulations and Rules

The change, addition, deletion or revision of the rules and regulations shall be possible by a 2/3 majority vote.

Article 16.

In case disputes occur over matters not specified in the regulation the Executive Committee shall have the right to decide subject to later submission to, and approval by, the next General Meeting.

Article 17.

The Executive Committee shall have the right to formulate drafts or amendments of the by-laws necessary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Federation.

Article 18. Sanctions

1. The Federation shall take the sanctions as follows against offenses.
 - a) Warning b) Rebuke c) Punishment with a fine
 - d) Suspension of membership e) Expulsion
2.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Federation shall take the afore mentioned sanctions against member national associations in case of violation of Federation regulations. And decision shall later have the recognition of the General Meeting.

3. Monetary fines, if imposed, shall not exceed US\$ 100.

The Federation shall have control only over the administration of contests and games, and has no jurisdiction whatsoever over the grading of TaeKwonDo trainees. The Federation, as a Pre-condition, is organized by the association of each nation specializing in Korean TaeKwonDo. Grading system and Dan promotion tests in the member national associations will be subject to the Kuk-Ki Won, the Central TaeKwonDo Gymnasium, world head-quarters of Tae Kwon Do.

(Continued from page 77)

★ July 26

General-meeting of the Technical Council Committee was held at the conference room of K.A.S.A. Subject; The 1st Asian Taewond Championships.

★ July 29

Mr. Leo Wagner, Vice-President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called at Kuk Ki Won and

had a discussion with President Un Yong Kim, on the matters of developing Taekwondo in the West Germany.

★ August 3

Supplementary Training Course for Instructors of those who trained foreigners has been proceeded at Kuk Ki Won.

社 告

百五〇萬跆拳道人 여러분의 성원으로跆拳道誌는發行部數一萬部를突破하게 되었으며季刊에서 격월간으로 여러분을 위한準備를 갖추고部數擴張을爲해定期購讀等을 기획하고 있으며資質向上과科學化에 앞장서기爲한 몇가지事業을 마련했사오니能動的으로參加해주시기 바랍니다.

一. 跆拳道研究論文 대모집

★ 原稿枚數및 寫眞圖解에 制限없음.

★ 內容및 연령에 制限이 없으며 품세, 격파, 겨루기, 기타 特技에 대한 것을 分類할 것.

★ 期間 一次:一九七四年 十一月 二十日

二次:一九七五年 五月 二十日

一. 特輯記事모집

本誌는 이미 市道支部巡禮를 四회에 걸쳐 企劃한데 이어 아시아의跆拳道와 유럽 미주等の世界로 뻗어가는跆拳道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界女老少와公私의團體를 막론하고 대권도지를 위해記事와取材對象을 提供해주시기 바랍니다.

★ 期間:每發行日の二十五日前까지

一. 跆拳道紙 광고 게재 案內

發展하는跆拳道誌의 廣告를 利用하실 분은 언제든지 連絡해주시면 親切히 이에 應하겠습니다.

大韓跆拳道協會 編輯室

서울特別市 中區 무교동 19번지 609號室

跆拳道研究

一九七四年은 跆拳道 資質向上的 해이다. 實技뿐만이 아니고 理論을 겸비한 跆拳道를 定立하기 위해 이 페이지가 百五萬跆拳道家族의 도움이 되기를 빈다. 아울러 汎跆拳道人의 投稿를 기다린다.

目次

- | | |
|-------------------------|--------|
| (1) 跆拳道를 위한 體力強化..... | 유근석 |
| (2) 뒤면서 가르치며 | 최철규 |
| (3) 跆拳道教室.....(地胎)..... | 技術審議會論 |



跆拳道를 위한 體力強化

A Study on Developing Physical Strength for Taekwondo.

유근석 (漢陽大體育大學長) (連載 12回)

앞에서 말한 體力要素外에 더욱 重要視되는 要素의 하나가 持久力이다. 持久力이란 長時間 같은 運動을 되풀이 할 수 있는 遂行能力이며, 이 能力은 全身의 諸器官의 作用에 比例한다고 하겠다. 그 理由는 四肢 또는 體幹을 움직이게 하는 筋肉系의 持久性, 그리고 에너지를 補給하는 役割을 맡은 心臟·肺臟의 持久性 그리고 大腦는 全般의 司令部로, 또 神經은 通信情報網의 役割로 持久性을 지녀야 作業을 長時間 繼續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질 수 있게 되는 事實이다.

그러므로 持久力을 向上시킬 수 있는 方法은 이 器官들을 強化하는 것이다. 卽, 空氣中에서 많은 酸素를

攝取할 수 있는 呼吸機能을 增大하고 이것을 수송하는 순환단계의 기능 強化가 必要하다. 그러기에는 呼吸筋을 發達시켜 肺의 換氣量을 높이는 일과 心臟強化, 血管, 毛細管 發達이 重要하다. 이렇게 되면 血液에 充分한 酸素가 溶解되고 強化訓練에 따라 肺毛組血管等이 發達되어 血流가 좋고, 헤모구로빈의 量이 增加되어 더욱 有利한 條件을 具備하게 된다.

持久力の 強化는 訓練에 따라 心拍出量을 增大하게 하고, 血液流通量을 많게 하고, 組織의 毛細管을 發達시켜, 營養素와 筋肉中의 에너지源의 供給을 圓滑히 하게도 된다. 또 訓練에 따라서는 身體組織內에 化學

의 適應性을 向上케 하고, 에너지源의 蓄積이 많게 되며, 또 그 回收도 빠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持久力의 性質을 살펴보자.

1. 持久力의 性質

持久力은 運動의 樣式, 運動에 參加하는 身體部位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그 性質을 가름할 수 있다. 즉

- 1) 局所持久力과 全身持久力
- 2) 有酸素性 持久力과 無酸素性 持久力
- 3) 靜的 持久力과 動的 持久力
- 4) 힘의 持久力과 스피이드의 持久力
- 5) 파워持久力 等等이다.

이것을 더욱 소상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1) 局所持久力과 全身持久力

局所持久力이란 局部的 持久力이라는 뜻이며, 곧 筋肉持久力을 말하며, 通俗的으로 筋持久力이라고도 한다.

全身持久力이란 筋肉뿐만 아니고, 呼吸循環 그외의 모든 身體의 組織 및 器官이 지닌 能力으로서의 持久力을 말한다. 이같은 持久力은 長距離나 마라톤 같은 長時間을 必要로 하는 競技에 더욱 必要하다. 그러나, 손쉽고 가벼운 것 같이 보이는 運動種목도 意外로 持久力을 要하며 특히 跆拳道競技도 이것이 重要함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留意할 것은 局所持久力과 全身持久力이 다 具備되어 있어야 하며, 그 어느 것이 缺如하여도 充分한 成果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2) 有酸素持久力과 無酸素性持久力

有酸素性 持久力이라는 것은 體內에 酸素를 搬入하여 乳酸의 分解에 利用하고, ATP나 구아아딘磷酸等の 에너지源을 回收하는 때에 도움을 주게 하여, 身體活動을 長時間 可能케 하는 能力이다. 이것을 더욱 알기 쉽게 말하면, 숨을 쉬면서 活動을 계속하는 形態의 運動으로 주로 長時間을 必要로 하는 競技들이다.

그러나 이와 反對로 숨을 멈추고, 運動을 하고, 그 때로의 狀態로 競技를 끝마치는 때의 競技가 있다. 즉 100m或은 200m競走는 走者가 한번도 숨을 쉬지 않고 快勝線까지 달리고 만다. 이같은 競技는 體內에 酸素를 搬入하게 않고, 無酸素性 에너지를 使用하여 活動하게 된다. 이것은 ATP와 ADP로 分解될 때 생기

는 에너지로 活動하게 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 理論的으로 말하면 筋肉內的 乳酸含有量 限界가 130g程度라 하니, 酸素없이 最大스피드로 活動할 수 있는 時間은 43초可量이라 하겠다. 따라서 最近의 世界頂上級 400m疾走選手들은 400m를 呼吸없이 달리려고 努力하고 있는 것도 이런 理論에서다.

이렇게 酸素없이 活動할 수 있는 最長의 能力이 곧 無酸素性 持久力이 될 것이다. 앞서 말한 持久力들은 種目에 따라 具備해야 할 持久力들이라 하겠다.

3) 靜的持久力과 動的持久力

이 持久力은 筋持久力에서 흔히 쓰이는 말로서, 筋肉이 어떤 一定한 負荷를 들고 어느 程度 견딜 수 있나 하는 것이 靜的 持久力이 되고, 動的 持久力이란 것은 一定한 負荷를 몇번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때의 能力이다.

前者는 筋纖維가 收縮되어 弛緩될 수 없으며, 血管이 壓迫되어 血流에 障害를 招來하나, 後者는 筋의 收縮一弛緩이 交代로 反復됨으로 筋內的 血流量에 큰 變動을 주게 된다.

4) 힘의 持久力과 스피이드의 持久力

競技 中에는 힘을 크게 쓰면서 오래 지탱해야 하는 柔道·레슬링 같은 것이 있고, 또 100m疾走나 <아이스·하키>같이 스피이드를 오래 維持해야 할 競技도 있다. 前者가 바로 힘의 持久力이요, 後者는 스피이드 持久力에 해당한다. 그러나 跆拳道나 복싱 같은 것은 이 兩者를 다 갖추어야 한다.

5) 파워의 持久力

前號에서 說明된 바와 같이 파워이란 힘과 스피이드가 相乘 關與能力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 兩者가 오래 지탱되는 것을 파워의 持久力이라고 한다. 이같은 能力은 中長距離 競技나 跆拳道·복싱 같은 種目에 重要한 能力이 된다.

그러면 以上과 같은 持久力의 性質을 살펴보았는 데 跆拳道를 위한 持久力을 어떻게 訓練할 것인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한다.

2. 持久力の 訓練

跆拳道인들이 必要로 하는 持久力은 앞에서 말한 가운데서라면 어떠한 것들을 必須的으로 하는 것일가.

리어, 全身에 큰 刺激을 주어 이에 對應하는 身體的
條件을 強化하는 데에 目的을 두는 것이다. 이 方法은
普通 잘 利用하는 手法이나, 注意할 點은 <울·아·웃>
이 되는 極限까지 몰고가야 效果가 있다는 點이다.

(2) 파알트랙: 北歐地方에서 곧 잘 使用하는 方法으로, 山野의 自然地形을 一定한 速度로 달리는 手法이다. 質과 量이란 關係로 보면, 量을 重視하는 方法이라 하겠다. 이와 비슷한 方法으로 뉴우지랜드에서 發達된 것에 <힐·트레이닝>이란 것이 있다. 이것은 不規則의 <인터힐·트레이닝>이 되며, 역시 量的 訓練에 치중되어 있다.

(3) 인터벌·트레이닝: 인터벌·트레이닝은 運動과 休息을 交代하는 訓練하는 方式이나, 學者에 따라서는 休息을 完全休息으로 해도 좋다는 意見과 不完全休息으로 해야 한다는 差異를 보이고 있다. 獨逸式은 運動—不完全休息—運動—不完全休息……으로 하고, 소련식은 運動—完全休息—運動—完全休息……으로 하는 等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方法中 어느 것이 效果의이나 할 때는 一律의인 解答는 얻기 어렵다. 왜냐 하면, 獨逸式 方法은 心肺機能 強化 向上에 特效가 있고, 소련식은 스피드持久力 向上에 長點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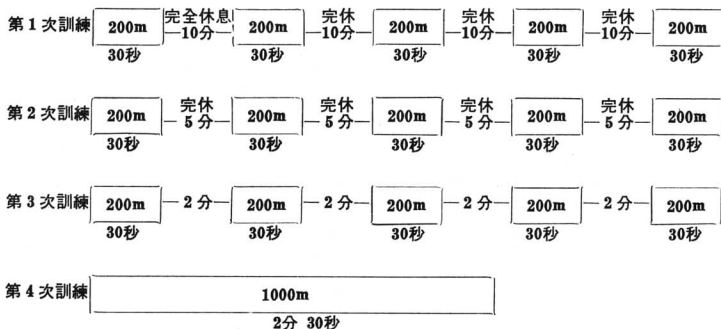
持久力이 效果의 向上될 수 있는 年令은 12~16 세이며, 그後 20세까지는 向上度가 높으나, 20세를 넘 으면 向上度는 漸次 낮아진다. 10세 以前에는 거의 效果가 적다는 事實을 實驗으로 發見했다.

全身持久力訓練은 여러가지 方法이 있으나, 다음에 重要한 몇가지를 紹介하고자 한다.

소련식 方法은 다음 그림과 같은 手法을 쓴다.

即, 1000m달리기를 2分 30秒로 달리도록 目標을 세웠더니 다음의 圖式과 같이 第1次 訓練에 있어, 200m를 30秒에 달리게 하고, 完全休息을 10分 취하고 또 200m를 30秒에 달리게 하는 式으로 反復한다. 이와 같은 訓練이 몸에 박혀 10分의 休息을 취하지 않아도 200m를 30秒에 달리는 能力이 생기면, 다음 2次 訓練의 方式을 취하고, 第3~第4의 訓練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完全休息의 時間을 단축시켜 나가며, 主活動은 固定스피드를 걷지하게 하는 方式이 된다. 이렇게 中間 休息이 達成이 除去될 때까지 訓練을 한다면 始作時의 目標가 完全되게 된다.

<圖 表>



以上 말한 것 같이 訓練方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것을 곧 跆拳道에 轉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原理를 骨幹으로 要領있는 方法을 講究해야 한다. 卽 運動

競技마다의 特性을 把握하고, 그 強化를 위한 特有의 方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호에 繼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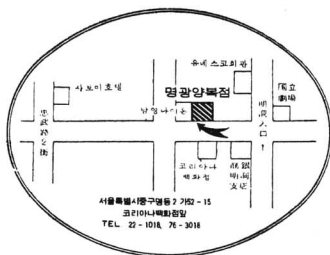
7319

實用・誠實・明洞의 모드!!



명광양복점

MYUNG KWANG Custom Tailor



대한태권도협회회원 및 선수분들에게는 正札(정찰)의 20%를 할인함.

代表 朴元緒

뒤면서 가르치며



全羅南道海南郡 화산국민 학교 跆拳道

최 철 규

머 리 말

이곳은 대한민국의 최남단에 위치한 면소재지 국민 학교이다. 이 학교에서 태권도를 시작한 것은 지금 부터 3년전인 1971년 3월 이 학교 교감으로 발령을 받 고서 부터 자신의 몸을 풀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학부 모의 호응이 좋아 그해 5월에는 학교체육으로 발전하 여 교육적으로 체계를 세워 지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태권도는 신체단련을 하는 것에 그치는 운동 이 아니고 정신적인 자세를 도야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을 기르는 근본이 되며 개성 과 사회성을 신장시키는 운동임은 말할 필요도 없고 나 아가서는 교결한 인격과 인간성을 도야할 수 있는 운 동으로 수련을 하는 동안에 깊고 넓은 도량과 극기 인 내 그리고 남을 도울수 있는 박애정신등, 미덕의 배양 과 패기넘친 투철한 기품을 배양할 수가 있는 운동으 로 특히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불태 태권도는 안보교 육방침에 부응한 스포츠로서 아동들의 심신 단련에 적합한 운동이며 반공사상을 교취시킬 수 있는 무도라 고 생각한다. 또한 태권도는 대중적인 무도로서 힘의 강약 체중에 구애됨이 없이 도시나 농촌 들안이나 운 동장 어느곳에서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란 점 에서 태권도 인구의 저변확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생각된다.

태권도교육의 방침

학교 태권도 지도에 있어서는 먼저 행동목표와 지도 목표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겠다.

1. 행동목표

첫째 강인한 체력단련으로 전격화에 기여한다.

둘째 참된 생활인으로서의 자질함양과 애국심을 교 취시킨다.

셋째 신체의 정상적 발육과 전전한 사회적성격을 형 성한다.

네째 안전에 대한 능력을 발달시킨다.

다섯째 여가선용의 능력을 기른다

2. 지도목표

첫째 태권도의 유래와 중요성을 이해시킨다.

둘째 태권도의 단련법과 인체구조를 이해시킨다.

셋째 기본동작과 공방법을 이해시킨다.

네째 협회품세를 익혀 민첩하고 체계화된 동작을 하 도록 한다.

다섯째 심판규정에 의한 겨루기의 의의와 가치를 인 식시킨다. 등으로 정하고 지도담당은 본교에 현재 군 무하고 있는 교원만으로 조직해 보았다. 이유는 무보 수로서 희생적 봉사정신이 앞서야 되기 때문이다.

3. 조직 및 담당

교문 : 교장 윤주홍 지도감독 : 교감 최철규

학생부아간지도	학생부주간지도	일반부주간지도
사범 최철규 (4단)	교사 김천수 (3단)	사범 최철규 (4단)
교사 오태욱 (2단)	" 윤호인 (2단)	교사 김천수 (3단)
	" 이병남 (초단)	

4. 일과표

구분	지도 시간	수련 대상	인원	비 고
아침	06:10~07:20 (70분간)	교사와일반인	21명	월~토(일요일 제외)
낮	방과후 1시간 (60분간)	1~6년희망학 생	131명	월~금(국경일 제외)
저녁	19:30~20:50 (80분간)	소재지 학생 (중학생포함)	95명	"

실제지도

1. 지도방법

① 일반적인 지도로는 매동작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사범이나 교사의 시범후 단련이나 연습을 하되 한 동작이 익숙해 지면 그 다음 동작을 익히도록 하고 있으며 항상 국기에 대한 경례와 상호간 인사를 하는 것은 물론 예외로 시작하여 예외로 그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② 기초체력을 단련하는 방법으로는 보조운동인 줄넘기 계단오르기 타이어허들 뛰어 넘기 뽀뽀와 철봉등 육상운동을 중심으로 기계운동을 가미하여 몸의 조절 근력 스피드 지구력등 체력기르기를 20분이내에 실시한 다음

③ 보강운동으로 단련백치기를 실시하고 있다.

2. 지도원리

① 저희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도원리로는 힘의 원리를 들수가 있는데

첫째로 호흡조절

둘째로 균형잡기

셋째로 집중력

네째로 반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다.

② 힘의 집중과 호흡에 있어서는 거리와 시간등 가속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몸의 균형과 유강의 적당한 조절 그리고 인지된 동작의 반복연습과 단련, 이러한 동작의 계속 되는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참가와 태권도의 과학화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예를들면 몸통바르지르기를 할때에 몸의 자세와 힘의 작용점등 학적인 면 그리고 생리적인 면등을 고려해야 하고 위생문제도 아울러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렇게 심오한 통찰과 연구가 앞서야 태권도 보급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지도과정

본교에서 실제로 지도하고 있는 지도과정은

① 청소하기 ② 정신문화 (1~5분)

③ 준비운동 ④ 기본동작

⑤ 품세익히기 ⑥ 겨루기

⑦ 보조보강운동하기 ⑧ 정리운동과 위생지도

⑨ 청소하기 ⑩ 반성회등, 일련의 수련

과정을 통해서 바람직한 인간을 기르기에 힘쓰고 있다

수련을 통해서 숭고한 인간미를 육성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분야를 담당한 태권도의 4요소라고 한다면 품세 겨루기 부수기등의 기술적측면과 정의적측면인 정신수양면 둘수가 있을 것이다.

연중 두차례 갖는 야외수련회를 통하여 심신을 단련함은 물론 활달한 기상과 아름다운 정서순화를 기할수가 있다. 그러나 태권도에도 권태기가 반드시 따르는 법이니 임관후 3~6개월동안은 다행히 지고 괴로워하나 이 시기만 지나면 모두 열심히 수련할 수가 있게 된다고 본다.



(全校生の 修練光景 원내는 校長 윤주훈선생님)

보급전망

보급전망은 태권도가 전강에 좋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경제적이며 보급에 용이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권태기에 참고 견디어 계속 숙달하게 된다면 의로운 신념을 가지고 육체와 정신력을 집중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며 맑고 깨끗한 인간성을 도야할 수가 있다고 본다.

학생들의 대부분이 입관초창기 보다도 지금은 말은 일을 충실히 하게 되었고 말보다는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어가고 있으며 난잡했던 학생들도 차츰 바로 잡혀져 가고 특히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수련을 통해서 얻은 단련 등에서 사기가 높아지게 되어 학교공부인 학력도 향상되었다.

앞으로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까지도 전연 보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그러나 태권도 불모지인 이곳 화산에 태권도를 보급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저희 학교 윤주홍교장선생님의 배려와 교사와 학부모가 뒤에서 밀어준 덕이라고 생각되어 끝없는 감사를 드린다.

태권도 기실

TAE KWON DO ILLUSTR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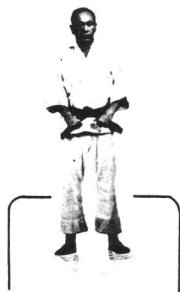
地 踏

품 세 지 태
Poom-Sei JI TAI

모든 생물은 땅에서 나서 땅으로 돌아간다. 땅은 실로 생명의 근원이자 총착점이다. 생물뿐 아니라 지상의 온갖 자연현상도 대부분 땅의 변화와 형태로 부터 발생한다.

품세 지태는 이와 같은 땅의 모습과 속성을 응용하여 엮어진 동작을 말하며 품세선도 한글의 오자(五字)로 되어 있어 땅으로부터 만물의 생명의 싹이 솟아나는것을 뜻하며 모든 동작은 등척성(等尺性)운동 방법으로 오관(五管)에 힘을 주어 천천히 행하여 강인한 근육의 힘을 무한히 솟구쳐 올리는 태지(大地)가 지니고 있는 큰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號 跆拳道教室을 위해 實技를 보여주시는 李永燮 編輯分科委員長 그리고 原稿의 執筆・整理에서 부터 註를 달아주시는 朴海滿 教育分科副委員長께 感謝를 드린다.(編輯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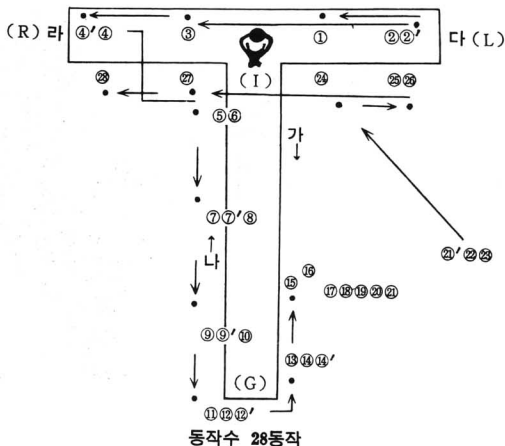


준비
왼발 왼편으로 “한발” 벌려 “G”방향을 향하여
편이서기
기준준비

Jitae JUNBI
Spread the left foot one foot side way to face G direction
PYEONHI-SEOGI
GIBONJUNBI

품세 地踏을 研究하실 때는 품세 진행선(配置詳細圖)을 參考하여
주시고 註를 싣해주십시오

폼세진행 배열표
Plat plan line-up of Jitae



①

- 1 몸을 왼쪽으로 돌려 왼발 “L”선상에 옮겨
오른 뒷굽이
몸통 옆막기

Turn the body to the left and place the
left foot on the “L” line
OREUN-DUITKUBI
MOMTONG-YEOPMAKKI

動作을 행하는데 있어서의 注意點

<第2 動作>

- i) 얼굴막기와 몸통마로지르기는 等尺性
運動으로 한다.
- ii) 오른발이 나갈 때 왼발로 體重을 옮
기며 오른발이 한걸음 나가면서 한걸
음씩 미는 氣分으로 밀고 나간다.
- iii) 발을 옮기는 動作과 얼굴막기는 中
心を 잃지 않게 천천히 신중하게 한다.
- iv) 얼굴막기 動作이 完結되는 순간 오
른발이 完全한 앞굽이가 된다.
- v) 얼굴막기를 할 때 가슴과 아랫배에
들어있는 숨을 서서히 모두 내뿜는다.
- vi) 全身의 上下 균형과 呼吸이 三重一體
되어야 하며 내쉬었을 때 五管에 힘을
주어 약간 멈추었다가 急히 吸氣한 後
그 位置에서 몸통마로지르기를 하는
것이다.



②

- 2 오른발 “한걸음” 나가 (L)선상)
오른 앞굽이
얼굴막기하고 몸통 바로지르기 —두동작
힘주어 서서히 한다—

The right foot steps one step forward
to the “L” line
OREUN-DUITKUBI
EOLGULMAKKI, AND MOMTONGBAR-
OJIREUGI (Execute them forcefully and
slowly)



4. 왼발 “한걸음” 나가 (“R”선상)

원 앞굽이

얼굴막기하고 몸통 바로지르기 —두동작
힘주어 서서히 한다—

The left foot takes one step forward to
step on the “R” line

OEN-APKUBI

EOLGULMAKKI and MOMTONG-

BAROJIREUGI (Execute them forcefully
and slowly)



①

④

③



⑤



⑥

5. 오른발축 몸을 왼편으로 돌려 왼발 “G”선
상에 올려
원 앞굽이
아래 막기

Turn the body to the left pivoting on
the ball of the right foot, shifting the
left foot on the “G” line

OEN-APKUBI

ARAEMAKKI



⑦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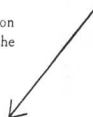
8

7. 오른발 앞차기 차고 내딛어 (“G”선상) .
원 뒷굽이
손날아래막기

The right foot performs APCHAGI. And
it steps forward to “G”

OEN-DUITKUBI

HANSONNAL-ARAEMAKKI



3. 왼발축 몸을 왼편으로 돌려 오른 발을
“R”선상에 올려
원 앞굽이
몸통 옆막기

Turn the body to the right pivoting
on the ball of the left foot, shifting the
right foot on the “R” line

OEN-DUITKUBI

MOMTONG-YOPMAKKI

<第六動作>

- i) 제5동작에서 원앞굽이(體重 앞다리)에
서 오른 뒷굽이로 빨리 轉換한다.

- ii) 빠른 한손날막기를 내라 하미 5동작
6동작의 전환은 신속한 주목 좋다.

6. 오른발 제자리 왼발을 약간 끌어
오른 뒷굽이
원 한손날얼굴막기

With the right foot fixed, pull to the
left foot a little

OREUN-DUITKUBI

OEN-HANSONNAL-EOLGULMAKKI.

8. 두발 제자리

적기 그대로

오른 바깥 팔목 몸통바깥막기 —느리게—
The feet are fixed.

The same stance

OREUN-BAKAT-PALMOK-BAKATMAKKI
(Slowly)

<第八動作>

- i) 역시 等尺性運動으로 호흡과 함께 힘
주어 서서히 한다.



9

10

10

- 9 왼발 앞차기 차고 내밀어("G"선상)
오른 뒷굽이
손날 아래막기

The left foot performs APCHAGI and
it steps forward to "G"
OREUN-DUITKUBI
SONNAL-ARAE MAKKI

- 10 오른발 제자리 왼발 약간 내밀어
왼 앞굽이
얼굴막기 —느리게—

With the right foot fixed, the left foot
draws in a little
OEN-APKUBI
EOLGULMAKKI(Slowly)

<第十動作>

- i) 오른 뒷굽이에서 왼 앞굽이로 變할 때
오른발 (뒷발)을 뒤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왼발 (앞발)을 前進시
키는 것에 특히 유의 할 것.



11



12



12

- 11 오른발 "한걸음" 나가("G"선상)
오른 앞굽이
금강 앞지르기

The right foot takes one step forward
to step on "G"
OREUN-APKUBI
KEUMKANG-APJIREUGI

<第十二動作>

- i) 두번 몸통막기는 연속으로 빨리 해야
한다.

제 19동작에서 20, 21, 22, 23, 24까지 中心
을 간 유지해 가며 빠르고 절도있게 連續
的으로 動作을 取한다.

특히 21동작에서 오른발앞차기 하고 왼
발과 바꾸어 선 때는 그자리에서 바꾸어야
한다.

- 12 두발 제자리
서기 그대로
왼바깥 팔목몸통안막기 하고 오른 바깥팔
목 몸통막기 —두동작을 빠르게—

The feet are fixed

The same stance
OEN-BAKAT-PALMOK-MOMTONG-
ANMAKKI and OREUN-BAKAT-
PALMOK-MOMTONG-MAKKI

<第十一動作>

- i) 금강앞지르기를 할 때 제 10동작에서
얼굴막기를 그대로 두고 하는 것이 아
니라 약간 내렸다가 다시 얼굴막기를
하면서 앞지르기를 한다.
ii) 금강앞지르기의 품은 얼굴막기와 앞
지르기의 두동작이 함께 행할 때를 말
한다.



13

13 왼발 제자리 오른발 뒤로 물러("I"선상)

—시선 "G"방향—

오른 뒷굽이

왼 한손날 아래막기

The left foot is fixed. The right foot draws back to step on the "I" line, facing "G"

OREUN-DUITKUBI

OEN-HANSONNAL-ARAEMAKKI



14



11

14 오른발, 앞차기 차고("G"방향) 뒤로 물러
먼저자리에 들어

왼 앞굽이

오른, 원주먹순으로 몸통 두번지르기

The right foot executes APCHAKI toward "G". And resume the former position OEN-APKUBI

The right and the left fist execute successively MOMTONG-DUBEON-JIRUEGI



15

왼발 뒤로 물러("I"선상) —시선 "L"방향—

주춤서기

한소막기

The left foot draws back to "I", facing "G"

JUCHUMSEOGI

WHANGSOMAKKI



16

16 두발 제자리

서기 그대로

왼바깥팔목 아래 옆막기

The feet are fixed, facing "I"

The same stance

OEN-BAKAT-PALMOK-

ARA'EYEOPMAKKI



17

17 두발 제자리

서기 그대로

오른한손날몸통바깥막기

The feet are fixed

The same stance

OREUN-HANSONNAL-MOMTONG-

BAKATMAKKI



18

- 18 두발 제자리 —시선 “G”방향—
서기 그대로
원 외주먹 표적치기 —기합—

The feet are fixed, facing “G”

The same stance

OEN-OEJUMEOK-PYOJEOK-CHIGI
(With yell)



19

- 19 왼발 제자리 오른발들어 —시선 “G”방향—
왼 학다리서기
오른바깥팔목 아래 옆막기

The left foot is fixed. Raise the right
foot, facing “G.”

OEN-HAKTARISEOGI
OREUN-BAKAT-PALMOKARAE-
YEOPMAKKI



25

- 25 오른발축 몸을 왼편으로 돌려 왼발 “L”선
상에 옮겨
오른 뒷굽이
손날 아래막기

Turn the body to the left pivoting on
the ball of the right foot. And the left
foot steps on “L.”

OREUN-DUITKUBI
SONNAL-ARAEMAKKI



24

- 24 오른발 “한걸음” 나가
오른 앞굽이
몸통 반대 지르기 —기합—

The right foot takes one step forward
OREUN-DUITKUBI
MOMTONG-BANDAEJIREUGI(Yell)



20

- 20 두발제자리 —시선 “G”방향—
서기 그대로
왼 작은 돌쩌귀

The feet are fixed, facing “G.”
The same stance
OEN-JAGEUN-DOLCHOGI



21

21

- 21 오른발 옆차기 한 다음 몸을 약간 뒤편에
발 자리에 두고 왼발을 들어 —시선 “I”
방향—
오른 학다리서기
왼 바깥팔목 아래엮막기

After executing a YEOPCHAGI with the
right foot, your body jumps a little. Plac-
ing the left foot to the former position,
raise it
OREUN-HAKTARISEOGI
OEN-BAKATPALMOK-
ARE-YEOPMAKKI



23

23

- 23 왼발 옆차기 차고 “한걸음” 내딛어
 (“I”선상)
왼 앞꿈이
몸통 바로지르기

After executing YEOPCHAGI with the
left foot, it takes one step forward to “I.”
OEN-APKUBI
MOMOTONGBAROJHUEGI



22

- 22 두발 제자리 —시선 “I”방향—
서기 그대로
오른 작은돌쩌귀

The feet are fixed, facing “G”
The same stance
OREUN-JAGEUN-DOLCHOGI



26 오른발 “한걸음” 나가(“L”선상)

왼 뒷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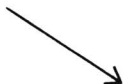
손날뚝맞기

The right foot takes one step forward
to “L”

OEN-DUITKUBI

SONNAL-MOMTONGMAKKI

26



28

28 왼발 “한걸음” 나가(“R”선상)

오른 뒷굽이

손날 뚝맞기

The left foot takes one step forward to
“R” line

OREUN-DUITKUBI

SONNAL-MOMTONGMAKKI



27

27 왼발축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 오른발 “R”

선상에 옮겨

왼 뒷굽이

손날 아래막기

Turn the body to the right, pivoting on
the ball of the left foot. And the right
foot is shifted to “R” line

OEN-DUITKUBI

SONNAL-ARAEMAKKI



그 오른발축 몸통을 왼편으로 돌려 왼발 끌어
만 “G” 방향을 향하여

편이 서기

기본 준비

GEUMAN Turn body to the left pivot-
ting on the ball of the right foot.

Draw in the left foot to face “G”
direction

PYEONHISEOGI

GIBONJUNBI

동 아 체 육 관



관장 김 중 영

대한태수도협회사 (63~65년) 남선하고 단단한 체격으로 선수생활을 했던 김 선수의 모습은 유도나 역도를 한사람 처럼보였다.

1957년도에 동아체육관에서 태권도를 시작하여 30여년간 태권도와 생활한 그, 20여년간 체육관을 운영하며, 동아대체육관의 이름을 사 용하여왔다.

김 관장은 66년 출판업에 투신, 현재 오성(五星)출판사를 경영하며, 출판사 건물에 40여명의 체육관을 개설 후진양성을 겸하고 있다.

김 관장은 태권도 선수의 육성보다는 건강과 정신측면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며, 충효사상을 중심으로 지(知), 체(體), 용(勇)의 삼육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며, 늘 너그러운 사랑으로 관원들이 내 아들 딸처럼 생각된다고 말한다.

그는 말일성도교회의 장로서 사회복지를 위한 신앙생활도 철저히 하며, 틈틈이 시간을 내어 국내각 중경기의 배심(1급심판원)으로 활



동하며 서울시험발족당시 이사로 참여하였고, 국민학교연맹 경기분과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국기원 새생활분과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모든 체육관을 늘 아끼는 후배들에게 인제하고 새롭게 시작한 것만 도●네차레나 되며, 20년간 체육관

운영에 김 관장의 지도를 받으며 도복을 입은 숫자는 3,000여명이 넘 으며, 유품자 배출도 1,000여명에 달한다.

체육관앞의 영중 국민학교에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어 84년 9월 운동회때 태권도 시범을 보여 좋은 반응을 받았으며 관원 거의가 영중국



교생들로 모범생들이라고 말한다.

영중 국민학교 5학년 재학중인 김재현군은 1981년 9월에 2품 심사에서 품세상을 수상하였고, 1학년부터 지금까지 반장을 하게 된것도 태권도 수련의 덕이라고 말한다.

본인의 건물에서 사업과 태권도장을 같이 운영하는 김관장,

우리 모든 태권도 사범이 태권도수련은 후배양성과 취미를 살리는 부업으로 각박하지않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인사(人師)로서의 모범을 보일그날이 오기까지 모든 사범들의 정성어린 노고가 필요하며, 밝고 여유있는 태권도인의 모습을 그려보며 발길을 돌렸다. 한

김관장은

태권도 선수의 육성보다는

건강과 정신측면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며,

충효사상을 중심으로

지(知), 체(體), 용(勇)의 삼육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있다.



祝

大統領下賜旗爭奪 第九回全國團體對抗跆拳道大會

The 9th Presidential Flag Taekwondo Champion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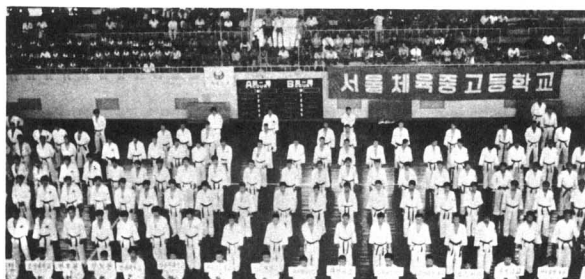


김 운용 회장으로 부터 영광의 하사기를 수여 받는 고등부 우승 서울 체육 고등학교팀.

Mr. Un-Yong KIM, President of K.T.A. is presenting the Presidential Flag to the top winner of the High School Division, the Seoul Physical High School team at the closing ceremony.

대통령 하사기행탈 단체대항전에 입장한 전국의 태권도 선수들. (7월 19일)

Opening ceremony of the 9th Taekwondo Championship for the Presidential Flag, (July 1974,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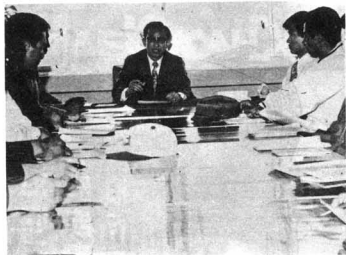


일반부 라이트급 결승전 · 이 윤기(명지대, 좌)대 조대식(경기지부·우)의 대결
Final Match of light Weight in adult Class. Mr. Lee, Moon Ki (left) and Mr. Cho, Dae Sik (right)





제1회 아시아선수권대회 개최계획안 토의
김 윤용 회장이 주재한 기술심의회 전체
회의가 체육회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Committee of Technical Councils held
at K.A.S.A. conference room on 26th
July to discuss the 1st Asian Tae-
kwondo Championsh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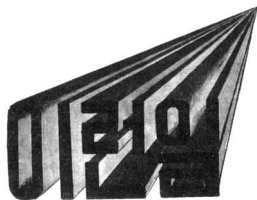
시·도지부, 각 관, 각 연맹, 실무자회
의가 국기원 회의실에서 엄 윤규 사무
총장의 주재로 열렸다. (6월 7일)

The local administrative officials con-
ference held at Kuk Ki Won conference ro-
om, conducted by Woon Kyu Um, Secre-
tary General of the K.T.A.



제10기 지도자 교육 수료식에서 김 운
용회장은 강창진 수련생에게 자격증을
수여했다. (6월 29일)

Un Yong KIM, President of K.T.A.
presents the certificate to Mr. Kang
Chang Jin who represented Instructors
at the 10th Instructor Training Course



A Pictorial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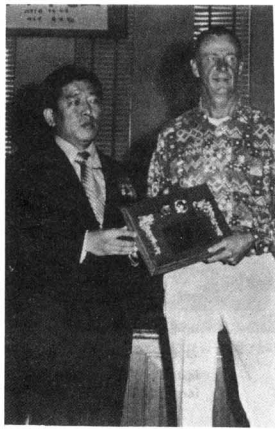
제6기 심판교육이 전주에서 열려 55명
의 3급 심판원이 탄생했다. (8월 3일)

The 6th Referees Seminar was held
in Chun Joo and 55 participants at-
tained the 3rd class Referee's Cer-
tific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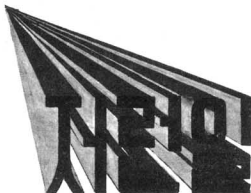


세계 태권도연맹 김 운용 총재는 부총재 레오·바그너씨(독일하원의원)의 방문을 받고 감사패를 증정했다. (7월29일)
Un Yong KIM, President of W.T.F. presented a plaque to Leo Wagner, Vice President of W.T.F.



김 운용회장은 미2사단장 헨리·E·에머슨 장군에게 감사패를 증정 태권도 발전에 대한 공적을 치하했다. (6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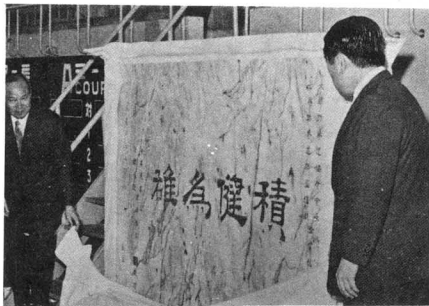
Un Yong KIM, President of K.T.A. presents a plaque to the Maj. Gen. Henry Emerson for his effort to promote taekwondo.



of Current Events.



김 운용 회장은 한국 걸프주식회사 사장인 잭·하버씨에게 감사패를 증정
Un Yong KIM, President of K.T.A. presents a Plaque to Jack Harbough, President of Korea Gulf Oil Co.



자유중국 라 영덕 대사는 친필 휘호(대리석현판)를 국기원에 증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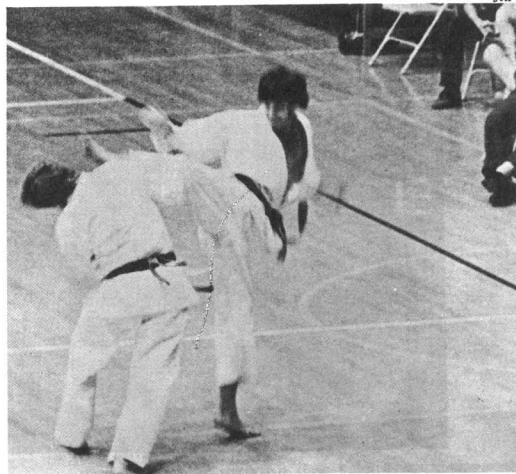
Ambassador, Loh Ying Teh of Republic of China donated a marble monument to Kuk Ki Won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 용길 사범과 수련생들
Instructor Kim, Yongkil and his tra-
iness at Los Angeles



1974년도 미국 미시간 주 태권도 대
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좌에서 두번째
가 박 원직사범.
Memorizing picture after finishing the
1974th Annual Tournament. Second
from left is the Instructor Park, Won
Jik



온세계가 Taekwondo Around

제1회 A.A.U.(미국체육회) 주최 태권도
경기대회 광경(캘리포니아, 미국)

The 1st A.A.U. Taekwondo Champions-
hip has been held in the California.

미국에서 활약하는 사범들이 모여서 태
권도의 현대경기화에 대한 토의를 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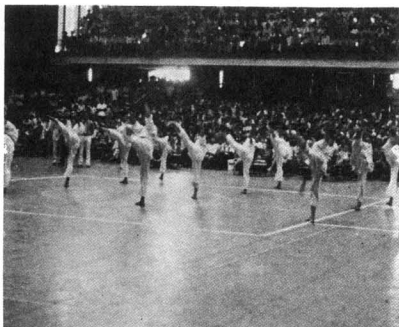
Taekwondo Instructors in the United Sta
tes of America gathered to discuss moder-
nization and promotion of Taekwondo in
U.S.A.





프놈펜의 론놀 대통령은 김 세종, 김
용현등 한국 사범을 접견하고 공로를
치하였다.

Ronnol, President, Republic of Khmer
pays appreciation to Instructor Sae-jong
Kim, Yong-hyun Kim, and Choi, for the
contribution of Taekwondo in Khmer.



제1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 크메르국 대표팀 선발 대회장

Preliminary Tournament of selection for
the Khmer National Taekwondo team at
the 1st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태권도 품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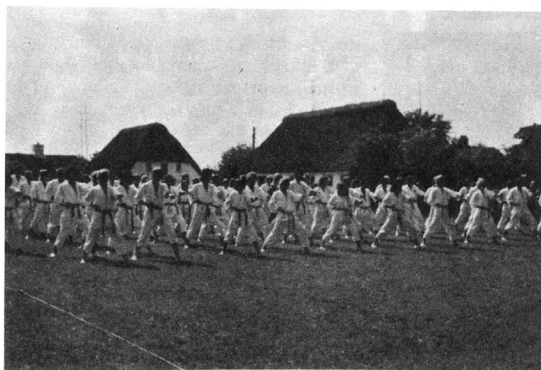
the World

네델란드에서 활약하는 Th.P. 쌀름씨가 주최한 덴마크
특별 태권도 수련 광경(7월 1일~13일 덴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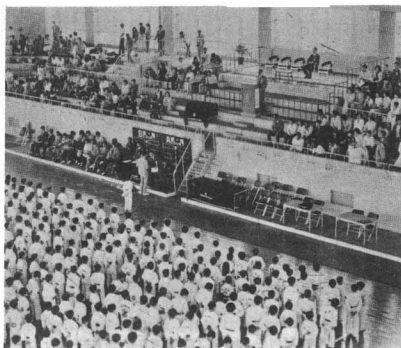


우간다 태권도 수련생들은 김남석 사범
인솔로 국기원에서 김운용 총재께 인사
를 마치고 기념촬영(8월 27일)

Instructor Nam-suk KIM, and 13 Ugan-
da Taekwondo trainees paid curtesy call
to Mr. Un Yong KIM, President of K.T.
A. and W.T.F. at the Kuk Ki Won. (27th
October)



A View of Taekwondo special training at
the Denmark, which conducted by Mr. T.
Hp Salm, who has contribute on taekwon-
do in the Netherland Kingdom (from July
first to 13th, Denmark)



제 1 회 국민학교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제1회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 개인 선수권대회 입장식 광경 (5월 26일)
Opening Ceremony of the 1st National Primary School Taekwondo Tournament at the Kuk Ki Won.

시합.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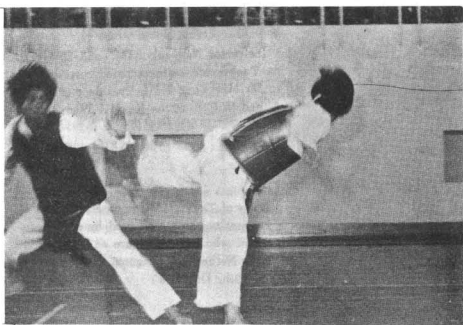
Birds-Eye View of the 1st National Primary School Taekwondo Tournament.



제 1 회 대학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김 운용 회장과 대학연맹 박대선 회장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나란히 선수들의 열전을 지켜보고 있다.

Un Yong KIM, President of K.T.A. and Dae Sun Park, President of Collegiate Taekwondo Federation watching the competitions



제1회 전국 대학 개인 선수권대회에서 묘기를 보이는 손태환(우, 명지대) 대 김창숙(좌, 동아대) (6월 8일)

Player Son, Tae Hwoan(right Myung-ji College) against Kim, Chang Sook (left, Dong-a University) matches at the 1st National Collegiate Taekwondo Championship at the Kuk Ki Won



제55회 전국체전 서울예선대회

제55회 전국체전 서울예선을 통과한 대표 선수에게 엄 윤규 사무총장이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Woon Kyu UM, Secretary General of K.T.A. present a citation to the winners at the Preliminary Tournament for the 55th National Sports Festival



고봉신 대 현창환의 미들급 고기부 결승전. 현창환은 고 봉신의 턱에 앞차기를 명중시켰지만 추첨패 했다.

사진은 따운되는 순간
Competitors, Ko, Bong Sin against Hyun, Chang Hwan has Final match of Adult Class Middle weight Hyun have front kick on jaw of Ko's but he defeated by Ko, after drawn.

소년 스포츠대회가 국기원에서 열려 서울이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6월 2일) 경기 중의 한 장면

Junior Sports Game held at the Kuk Ki Won. The Seoul team won first Prize.

제 3 회 스포오츠소년대회



제59회 성인부 승단심사 대회 광경
미국에서 수확하다 온 여자흥심자의 겨루기 광경

A view of the 59th Promotion test Miss Yoon from the U.S.A. takes a posture of Sparring



제5회 주한 외국인 및 여자부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에서 김 운용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6월 22일)
Opening Ceremony at the 5th Annual
Foreigners and Women Taekwon-
do Championships.



미2사단 소속 데이빗 · 스미쓰가 "정정
당당히" 싸울 것을 선포하고 있다.
Smith David (U.S. Army 2nd Division)
have an Oath of "fair play" to the
Un Yong KIM President of K.T.A.

The 5th Annual Foreigners and Women Championships

제5회 주한 외국인 및 여자부 태권도 개인 선수권 대회

Date : 22 - 23 June 1974. A.M. 10:00

C 조결승전 미카엘 · 더비(우승)와 웨
인 · 클라크가 연장전까지 벌리고 있다
Michael Derby and Wayne F. Clark
fighting at the final match of B grade
Derby (left) won the 1st prize



여자부 A조에서 우승한 엄 인숙양이 김
운용 회장으로 부터 상장을 받고 있다
Miss. In-sook UM received citation
from Un Yong KIM, President of
K.T.A. at the Closing Ceremony